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김통정 이야기의 전승과
역사의 재구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배 윤 정

2018년 2월

김통정 이야기의 전승과 역사의 재구성

지도교수 허 남 춘

배 윤 정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배윤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8년 2월

The tradition of Kim Tong-jong's Story and Reconfiguration of History

Yun-Jung, Bae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1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	4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7
II. 김통정 이야기의 역사 인식	10
1. 중세의 역사 인식	10
1) 국내 기록	10
2) 국외 기록	15
2. 근현대의 역사 인식	19
1) 일제 강점기	19
2) 대한민국	20
III. 김통정 이야기의 설화 인식	24
1. 전설	24
1) 애월 지역	24
2) 안덕 지역	31
2. 지명 유래담	36
1) 애월 지역	36
2) 그 외 지역	41

3. 당신화	45
1) 애월 지역	45
2) 안덕 지역	49
3) 성산 지역	52
IV. 설화와 역사의 재구성	58
1. 김통정(삼별초) 장군의 설화와 역사	58
2. 민중영웅(아기장수)의 설화와 역사	65
V. 결론	74
참고 문헌	78
〈부록〉	
1. 현용준 『제주도 전설-34.김통정 장군』 원문	85
2. 삼별초와 관계된 지명 유래담	89
3. 향파두리성 밖 향몽 관련 유적지	96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 목록	8
〈표 2〉 김통정 국내 기록	14
〈표 3〉 현용준, 『제주도 전설-34.김통정 장군』 단락정리	25

ABSTRACT

The tradition of Kim Tong-jong's Story and Reconfiguration of History

Yun-Jung, Ba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tory of Kim Tong-jung, a general of Sambyeolcho, and focuses on the discrepancies between history and story, compares and analyzes historical perceptions and narrative perceptions. Through this, history has complemented the authenticity of the story and the story has raised the necessity of complementary research in terms of supplementing the empty part of history.

This paper consists of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Kim Tong-jung's story, the recognition of narrative, the reconstruction of narrative and history. I have widely recognized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Goryeo Dynasty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librarians related to Kim Tong-jung, examined various sources to date, and examined the patterns that have been transformed and handed down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times. Legends of the characters, legends, and the names of the people are reflected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real person as a story, and they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narrative, we can restore the micro-history and life history centered on the ruling class and explore the cultural significance by verifying it through historical confirmation.

The historical record of Kim Tong-jung is evaluated as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the times. In the Middle Ages, we can find traces of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 as a rebellion and the number of longevity of Sambyeolcho. After the modern times, it was reevaluated by the national visionarie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demand for people's consciousness. In the Rhee regime, it inherited the dynasty and negatively published in the textbooks.

Currently, Kim Tong-jung's story and Sambyeolcho ruins are necessary to preserve and utilize marine history, culture and tourism resources and education. To this end, universal values and meanings of Sambyeolcho ruins should be preceded from the viewpoint of East Asia, and various interdisciplinary studies are needed to secure authenticity as a cultural heritage of Sambyeolcho ruins.

Although Kim was a defeated longevity, he reduced the taxes of Jeju residents and took care of the famine of the citizens by seizing the three curves, so he remains a relatively positive person in the story despite various ministry during the Sambyeolcho war. In the history book, which is centered on the book, it is depicted as counter-reversal, and in the painting, which is conscious of the villagers, it is passed down as a losing longevity.

The story of Kim Tong-jung is a folk tale of a people's hero and has a special tradition of your painting. The folk hero is a group hero of ancient founding myths, but it is characterized by a mid-term hero in that it is a historical, progressive, subject, and struggle hero. Therefore,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time of the birth of the baby longevity story of similar series such as Kim Tong-jung story was from the 13th to 14th century when the people's consciousness exploded.

This is also confirmed through the history of the village, and Awol and Seongsan were found in the village along with the entrance of Kim Tong-jung in the 12th century, and Andeok was established after the 14th century.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myth of Andean was made in the most later gener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village faith, and it is possible that it was modifi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form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believers.

So far, Kim Tong-jung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arrative as a complement to historical technology and examined the aspects and significance of tradition in a public and universal manner. In addition, we were able to discover the authenticity of the story through historical facts, which is a task to reconstruct the life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and to restore the micro-history of the people in detail.

Keyword: Kim Tong-jung, Sambyeolcho, history, historical recognition, Kim Tong-jung 's story, Goryeo Dynasty, Legends, local characteristics, history of the village, Middle Ages, tradition, Awol, Seongsan, Andeok

I. 서론

1. 문제 제기

이 논문은 김통정 이야기의 전승과 역사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이다. 삼별초 장군이었던 김통정 이야기는 역사, 전설(傳說), 지명유래담, 당신화(堂神話)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김통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와 전설간의 평가가 상반된다. 이 연구를 통해 역사 기술에서 생략된 김통정의 일대기를 보완하고 설화 속에 전승되는 김통정의 다양한 구전에 진정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특히, 문학과 역사 사이의 불일치는 두 학문간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차이로 인해 실제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며 실제 인물의 삶의 역사도 다르게 평가하는데 이르렀다. 역사는 실증적 자료에 의해서 과거를 복원하여 해석하고, 문학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역사를 상징하고 그것을 허구의 세계로 재구성해 놓는다.¹⁾ 이것이 바로 문학과 역사가 함께 세계를 복원해야 할 이유이다. 문학은 역사의 비위준 부분을 보충해주고 역사는 문학적 진실에 진정성을 갖게 한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관점·방법론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²⁾

김통정이라는 실존 인물은 다양한 이야기에서 긍정 혹은 부정 혹은 복합적인 양상으로 평가되어 전승된다. 전승자의 계급적 성향, 가치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수용된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가치관적 대결을 보이며 전승됨을 알 수 있다. 문학적 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1)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265~266쪽.

2)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19쪽.

한국사 연구는 지나치게 실증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증거가 있어야 믿고, 증거가 사라지거나 없으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태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막힌 태도이기도 하다. 정황을 포괄적으로 통찰하여 얻는 결론을 역사학계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신화는 역사학계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해 온 고대사의 중요한 증거이고, 특히 지금까지 말과 노래로 전해지는 ‘본풀이’는 탐라국의 실체를 더욱 명료하게 할 단서라 하겠다.

발견과 탐구를 추구한다. 김통정이라는 인물설화를 통해 인물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발견과 탐구를 시도하고 고려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설화적 특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민중의 의식을 이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담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시사(微示史)이자 가능성의 역사이다. 이러한 설화가 오늘날에 와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상상력에 의한 이야기식 역사서술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설화에는 실증적인 증거보다 민중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 일상사(日常史)나 심성사(心性史)³⁾ 자료로 제격이다. 신문화사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은 지배층의 문헌자료와 현장에서 전승되는 민중들의 구비문학 또는 민속문화사회의 심각한 불일치를 주목한다. 이러한 불일치야말로 지배층 중심의 거시적 역사의 상투성에서 해방되어 피지배층 중심의 미시적 역사의 일상생활사를 가능하게 만든다.⁴⁾

인물전설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역사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인물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 거리가 되는 인물의 성격이나 행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며 전승한다. 인물전설은 어떤 인물이 어떤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면서 살아간 이야기이므로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는 관계를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나타내는 양상이 다른 전설의 경우보다도 구체적일 수 있다.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물전설에서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야기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창조자 및 수용자 자신의 가치관을 깊이 있게 표현한다.⁵⁾

3) 최갑수, 『역사가와 역사인식』, 민음사, 1989, 285~316쪽.

심성사는 개인들의 의식적인 창작물로서의 이념이 아니라,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집단적 태도, 일상생활이나 습관의 차원, 곧 개인의 의식에 잡히지 않는 사상의 비인격적 층위에 주목한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또는 암묵의 가정, '일상적 사고'나 '실제적 이성'의 작용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심성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브로델은 시간 지속의 변증법(장기 지속, 주기 변동, 사건의 단기적 시간)을 활용하여 거의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정신구조(신념체계, 범주, 상징과 비유 등)와 감수성의 급속한 변화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집단심성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4) 임재해,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46쪽.

설화를 사료로 다루게 되면 '사실의 역사'와 함께 '의식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설화를 사료로 주목하게 되면 민중의 변혁적 세계관이나 민중의식의 성장과정을 쉽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역사는 제3세대 아날학파들이 주장하는 심성의 역사와 만난다.

본고에서는 김통정 이야기 중에서 설화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여 수용자들의 가치관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역사와 민속지(民俗誌)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당시의 피지배층 중심의 미시적 역사와 일상생활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역사에서 역적으로 기록된 김통정이 설화에서 영웅으로 전승되는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역사는 진실하고 설화는 허구인 것인가?

고려시대 역사적 상황을 김통정과 관련된 국내·외 사서를 통해 폭넓게 인식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료들을 살펴보고 시대 정신에 따라 변모되어 전승된 양상을 고찰해 보겠다. 인물설화를 통해 실존 인물이 설화로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 민중의 의식을 파악해보고 지역적 특징에 따른 변이양상을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설화를 통해 피지배층 중심의 미시적 역사와 생활사의 흔적을 복원하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 검증해가며 문화적 의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김통정과 관련된 역사를 고려시대, 일제강점기, 유신정권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승되어 온 양상을 살피고 당시의 민중 의식과 시대 정신을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지역별로 전승되는 설화를 통해 김통정이라는 인물을 재구성하고 당시 민중들의 일상사와 심성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김통정 전설, 지명 유래담, 당신화를 중심으로 설화와 관련된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당시 민중의 생활사를 통해 사회·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I장에서는 김통정(삼별초) 장군 이야기를 설화와 역사를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재구성해보고 전승 양상과 의의를 정리하겠다. 당대 민중영웅(아기장수)의 변화 과정을 분석해보고, 김통정 이야기를 제주의 특수성과 당대의 일반성이라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비교 연구해보겠다.

V장에서는 김통정 이야기의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오늘날에 전승해야 할 가치에 대해 고찰해보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5)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6~7쪽.

2. 선행 연구 검토

김통정 설화는 다양한 화소들이 결합되어 갈등 양상과 구조적인 완성도 등이 뛰어난 작품이다. 다양한 각 편들과 다채로운 소재들이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구전되어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김통정 설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고 장수설화 연구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여 당본풀이와 전설의 관계나 설화에 담긴 민중의식과 의의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어 왔다.

현길언은⁶⁾ 제주를 절해고도의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제주장수설화를 지형설화(단택설화)와 연관 짓고,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을 펴치 못한 민중 의식의 발로로 본다. 김통정이 신이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제주도민과의 갈등양상이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삼별초와 제주도민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지인이자 통치세력으로 김통정설화를 바라보는 한계는 육지의 삼별초 장군 설화 등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균형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대혁은⁷⁾ 김통정을 비롯한 삼별초의 항몽 정신에 주목하며 관찬사서인 고려사에 대한 기록은 왕권 수호를 목적으로 서술되었으므로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낸다고 지적하였다. 김통정 설화는 당신으로서 위엄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적 사실이 허구화된 흔적과 그의 죽음으로 인한 몽골의 지배와 정부의 억압 등 결과론적 역사인식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0편의 설화로 간략한 분석이 제시되었으나 후대 연구에 많은 과제를 제시했다. 민속과의 관계 등 다양한 시도와 이에 대한 후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김영화는⁸⁾ 역사와 전설, 한국소설과 일본소설에 나타난 김통정의 활동을 통해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 전설과 소설에서 김통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전설과 소설에 드러난 상상세계의 차이를 밝히고 제주인과 외지인의 역사 인식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였다. 김통정을 다룬 소설이 많지 않아 분석의 자료

6)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7) 오대혁, 「김통정 관련 서사물에 투영된 역사인식」, 『동원론집 제10집』, 1997.

8) 김영화, 「김통정의 활동과 문학적 상상력」, 『탐라문화 21호』, 1997.

가 미약한 것이 한계이지만,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와의 비교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권태효는⁹⁾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좌정한 당신이 다름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밝힌바 있다. 중국의 신이 김통정 장군을 징치하는 당신화의 내용을 김통정이 여몽연합군에게 패해 죽음을 당하고, 그 곳에 몽고 및 고려군이 주둔하여 통치하게 되면서 그 역사적 사실과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왜곡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광양당인 토착 세력에 의한 징치는 안덕이라는 지역이 호종단의 단맥 설화에 대한 반감으로 김통정이라는 외부세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통정이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성산 지역에서도 호종단의 단맥 설화가 존재하므로 부가적인 이유가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순덕은¹⁰⁾ 실재 전승되는 구비문학을 채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김통정을 역사적 인물이 설화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아 역사와 실재의 간극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았다. 김통정 장군의 활약상, 당대 제주민들의 노역동참정도,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에 대한 역사 인식 등을 채록본과 추가 조사를 통해 서술하였다. 구비문학 자료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였으나 설화 자료의 정리를 위주로 한 학술조사지의 성격이 농후해 자료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이남옥은¹¹⁾ 권태효의 논의를 심화시키고 장주근의 당신화의 발전 단계를 적용하여 지역별로 당신의 좌정담을 분석하였다. 당신화의 화소들을 기원형, 기본형, 성장형, 완성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담긴 민중의식을 분석한바 있다. 당신화가 지역적 특징이나 후대의 역사적 연유로 축소되거나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발전 단계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통정 전설을 영웅설화의 구조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헌자료와 구전자료를 비교하는 등 김통정 설화의 전반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9)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제8집』, 1999.

10) 문순덕 외, 「제주의 향몽관련 구비전승편」, 『제주향파두리향몽유적지학술조사 및 기본정비계획』, 2002.

문순덕, 「구비문학의 역사적 의미-향몽 김통정 설화를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 제15호』, 2011.

11) 이남옥, 「김통정 설화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위의 선행 연구에서는 설화를 역사와 민속 등에 의한 사회적 생산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설화 속의 신화와 당신화의 구분과 화소 및 내용 구조 등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관점으로 다각도로 설화를 바라보고자 한다.

김통정설화는 인물전설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와 기능 등을 전승양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이 있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조동일은 인물전설의 중요성을 창조자와 수용자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하는 설화의 특성에 입각하여 강조한 바 있다. 인물전설을 통해 당시의 역사에 대한 민중들의 가치관(세계관)적 논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만은 아니다. 의식으로서의 역사를 역사의 중심적인 개념으로까지 생각하는 데서 설화의 역사적 성격 또는 설화에서 전개되는 세계관적 논쟁의 역사적 성격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역사학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학의 한계까지 비판하면서 문학연구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학 연구 중에서 인물전설이야말로 문학의 역사적 성격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피기 위해 아주 유리한 연구 대상이다.¹²⁾

임재해는 설화를 생활사 자료이기도 하고 사상사 자료라고 보았다. 설화는 생활사, 사상사, 인물사, 문화사, 예술사, 가족사, 지역사 등 과거 인간행위의 모든 사실을 두루 포함하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또 설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과거 사실을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관적 역사이기도 하다. 설화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전승될 뿐 아니라 인간 세계에 관해서 어느 것이든 다루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역사이되, 설화의 실체는 한 전승자가 수용자를 의식하며 이야기할 때 비로소 생생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주관적이고 개별적이다. 역사 서술은 주관적 시각에서 과거 사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역사를 보충하는 자료로서 설화의 가치가 있다.¹³⁾ 따라서 설화를 바탕으로

12)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9.

13) 임재해,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이야기된 설화의 실체로서 각편(version)에는 이미 이야기꾼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포되어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로서 과거 사실에

로 인물의 일생과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성과 다양한 학제간 통합 연구로의 전환이 제기된다.

허춘은 설화 각 편마다 가지고 있는 생성 발전의 역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역사·지리학적 방법, 설화의 발생 동기와 기능을 민간 신앙 같은 것과 연관지어 규명하려는 민속학적 방법, 설화에 내포된 원형상에 주목하여 무의식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인간 심성을 추출하려는 분석심리학적 방법 등의 여러 연구 방법이 계발·응용되어 자료 해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 지역사회나 주민들의 심리와 설화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사회심리학적 방법, 설화와 관련된 그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한 작품을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연구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연구 방법론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¹⁴⁾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본고에서는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을 바탕으로 설화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김통정 관련 설화가 담긴 자료는 설화집을 바탕으로 당신화는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제주문화원형 설화편』을 추가 자료로 보충하였다. 지명과 민속은 지역의 『역사문화지』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¹⁵⁾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인용하여

관한 이야기꾼들의 해석이 그때마다 설화를 새롭게 재구성해 놓는다는 것이다. 설화의 모든 각편은 이야기꾼의 서술 의도가 반영되어 재구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설화의 구연(performance)은 곧 설화의 합성(composition) 또는 재구성(reconstruction)을 두루 뜻하는 것일 정도로, 사실상 설화는 그때마다 재창조되어 각편으로서 제 모습을 드러내며 공간적으로 확산(transmission)되고 시간적으로 전승(tradition)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화가 구연되는 과정에서 설화의 내용 일부가 삭제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며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는가 하면 설화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설화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그 때마다 재구성되어 과거 사실이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 서술은 주관적 시각에서 과거 사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설화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14) 허춘, 『제주 설화 연구』, 경인문화사, 2016.

15)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1985.

제주도, 『제주문화원형 설화편1』, 제주연구원, 2017.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 『제주설화집성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제시한 이유는 내용 서술상의 편의성과 가독성, 제주학 연구 분야의 발전성과를 반영하여 최근의 해석본을 존중하는 의도이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목록의 서지 사항은 다음 표와¹⁶⁾ 같다.

<표 1> 연구대상 목록

구분	수록문헌	전승지 및 제보자	제보일자	작품명
전설1	『한국구전설화9 (제주도편)』	M.애월면 수산리 고시(남,78세)	1964.8.	희뿌리 샘물
전설2	현용준 『제주도전설』	A.애월면 고성리 강태인(남,64세)	1975.8.14.	김통정 장군
		B.제주시 용담2동 박승남	미상	김통정 장군
		C.제주상업고등학교 학생 전승규	1960.1.15.	김통정 장군
		D.애월면 고성리 김연(남)	1965.1.25.	김통정 장군
		E.애월면 애월리 박길순(남,80세)	1975.7.18.	김통정 장군
		F.애월면 광령리 고인훈 부친	1975.2.19.	김통정 장군
전설3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G.애월읍 고성리 강정(남,61세)	미상	김통정 장군
		H.애월읍 고성리, 김병수(남,82세)	미상	갈구미(渴政棍)
전설4	『한국구비문학대계 9-3(제주편)』	L.안덕면 덕수리 이화옥(여,80세)	1981.7.17.	김통정 장군
전설5	김영돈 등 『제주설화집성』(1)	I.애월읍 어음리 김승추(남,76세)	1984.7.18.	김통정 (I)
		J.한림읍 옹포리 장덕기(남,76세)	1984.9.5.	김통정 (II)
		K.애월읍 광령1리 고용해(남,45세)	1983.7.27.	아기업개 말도 들어라
전설6	『고성리지』	N.애월읍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	1993.	김통정 장군
		O.애월읍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	1993.	안오름호수

김영돈, 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 9-3(남제주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제주도, 『고성리지』, 북제주군애월읍고성리향토지편찬위원회, 1983.
 고창석 외,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기본정비계획」, 제주북제주군, 2002.
 제주도, 『성산읍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0.
 제주도, 『애월읍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3.
 제주도, 『안덕면지』,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2006.
 제주도, 『제주도지 제7권-문화유산』,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제주도,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이야기-제주시Ⅴ 애월읍』,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4.
 제주도,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이야기-서귀포시Ⅲ 성산읍·표선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4.
 제주도,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이야기-서귀포시Ⅴ 안덕면·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4.
 16) 이남옥, 위의 논문, 36쪽 <표4>를 보완하여 작성.

전설7	『제주문화원형 - 설화편 I』	P.안덕면 사계리 김여옥(남, 1918년생)	2016.10.23.	김통정
		Q.애월읍 광령3리 김명훈(여, 1953년생)	2016.10.12.	김통정 장군과 모기 장군
		R.애월읍 고성1리 강양자(여, 1942년생)	2016.10.13.	김통정과 아기업개
		S. 애월읍 고성리 강정(남, 1928년생)	2016.10.13.	김통정과 아기업개의 딸
		T.애월읍 고성리 김재화(여, 1930년생)	2016.10.14.	김통정의 불치공출
		U.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남, 1938년생)	2016.10.16.	유수암 종신당
		V.애월읍 수산리 부규일(남, 1931년생)	2016.10.14.	토성쌍은 김통정과 지집아이
		W.애월읍 고성1리 진성출(여, 1928년생)	2016.10.13.	횃부리 장수물
		X.애월읍 애월리 양병연(남, 1928년생)	2016.12.1.	아기업개 말도 들으라
보조1	『고성리지』	애월읍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 ※ 부록2에서 제시	1993.	장털왓 등
보조2	『제주향과두리항몽 유적지 학술조사및 기본정비계획 (제주북제주군)』	애월지역 대상 1차자료: 문헌자료 2차자료: 고성, 광령, 유수암, 장전, 상귀, 하귀지역 선정	2002.	제주의 항몽관련 구비전승편 (문순덕)
보조3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부록3에서 제시	2006.	물유적 등
보조4	『애월읍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3.	김통정 설화 등
보조5	제주학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	2015.	김통정 설화 등

II. 김통정 이야기의 역사 인식

1. 중세의 역사 인식

1) 국내 기록

김통정은 고려가 몽고에 복속되던 시기에 삼별초의 일원으로서 최후까지 몽고에 항전한 역사적 인물이다.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어 최씨 무신정권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였던 조직으로,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지배층이 몽고와 강화를 맺어 개경 환도를 결정하자 그에 반기를 들고 끝까지 항쟁하였다. 강화, 진도, 탐라로 이어진 항쟁 과정에서 김통정은 탐라 민중과 더불어 여몽연합군에 맞서 최후까지 항전하였다.

역사적 인물을 둘러싼 서사물들은 시공을 달리하여 수용층의 다양한 역사적 인식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 서사물 속에는 계급적 입장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며, 그가 활약한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실제로 벌어졌던 사실에 관한 서사물은 전승의 과정에서 수용층에 의한 허구적 내용의 삽입, 새로운 사실의 첨삭에 따라 구조나 내용상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사회문화적 전통, 개인의 취향, 특히 수용층의 역사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사실로 간주되곤 하는 문헌사료는 관의 명령에 따라 찬술(撰述)되는 까닭에 역사 서술상 민중적 입장을 도외시한 이해와 해석을 가하곤 한다. 문헌사료는 중앙·지배층의 이해를 대변하며 민중에 의한 구비 서사물이나 역사인식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역사적 인물에 관한 구비 서사물을 살피는 작업은 설화의 전승, 전파, 서사구조, 모티프상의 변화 등 문학적 관심 분야를 폭넓게 하며, 역사서가 담지 하지 못한 민중의 역사인식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¹⁷⁾

17) 오태혁, 앞의 논문, 57~58쪽.

선초에 『고려국사(高麗國史)』, 『동국사략(東國史略)』, 『고려사대전(高麗史大全)』,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동국통감(東國通鑑)』, 『국조보감(國朝寶鑑)』과 함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조선왕국의 집권자들이 고려왕국을 멸망시키고, 개국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한 전조(前朝) 사서 간행의 필요성에서 쓰여진 사서임을 생각해 본다면,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인식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¹⁸⁾

김통정을 위시한 삼별초의 항몽세력을 ‘반역’ 서술부에 소속시키고, 외세를 끌어들이어 자주성 구현을 지향했던 세력을 초토화시킨 김방경과 같은 인물을 충신으로 높이 역사적 교훈을 왜곡시킨 선초의 관찬사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을 위의 사실은 증명해준다. 이는 현재적 관점에서도 되새겨볼만한 대목이라 하겠다.¹⁹⁾

『고려사』의 「김방경」조는 유교적 관찬 양식으로 중세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반적들이 탐라에 들어가서 내성과 외성을 쌓고 그 험준함을 믿고 더욱 더 날뛰게 되었으며 때때로 나와서는 노략질을 하였으며 남송의 수령 온유를 붙잡아 가지고 갔다. 이리하여 바닷가 지방은 소란하게 되었으며 반적들의 침입 범위는 동기에까지 확대되었고 도로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있다. 왕은 이것을 심히 우려하여 14년에 김방경을 행영 중군병마사로 삼아서 보냈다. 김방경이 다시 군사들을 훈련하여 수군과 함께 만여 명을 거느리고 혼도, 흥다구와 더불어 반남현에 주둔하고 장차 탐라로 떠나려 하였는데 각 도에서 온 전선들은 모두 바람에 까블리고 전라도에서 온 160척만을 가지고 떠났다. …중략… 김방경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사직의 안위가 이번 일거(一擧)에 있는데, 오늘의 일은 나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니, 잠시 후 풍량이 멎었고, 중군이 함덕포(咸德浦)에서 들어가니, 적은 암석 사이에 매복하였다가 이리저리 뛰면서 크게 소리질러 저항하였다. 김방경이 소리를 질러 독려하면서 여러 배가 함께 나아가니, 대정(隊正) 고세화(高世和)가 몸을 던져 적진에 돌입하였다. …중략… 관군이 외성(外城)을 넘어 들어가서 불화살을 사방으로 쏘자,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였고, 적의 무리가 크게 흔들렸다. 적진에서 내투한 어떤 자가 말하기를, “적은 이미 세력이 다해 도망하려 계획하고 있으니, 빨리 공격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벌써 적의 우두머리 김통정(金通精)이 그 무리 70여 명을 거느리고 산 속으로 도망해 들어갔고, 적장 이순공(李順恭)과 조시적(曹時適) 등은 옷을 벗은 채 항복하였다. 김방경이 제장(諸將)을 지휘하여 자성에 들어서자 사녀(士女)들이 목놓아 울었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다만 거괴(巨魁)만 주살할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그 괴수 김윤숙(金允叔) 등 6명을 잡아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참하였다. 친당(親堂) 35명을 생포하고 항복한 무리 1,300여 명을 배에 나누어 실어 귀환하자 그곳 거주민은 모두 전과 같이 안도하였다.²⁰⁾

18) 오태혁, 앞의 논문, 62~63쪽.

19) 오태혁, 앞의 논문, 64쪽.

적들이 진도(珍島)로 들어가 버티면서 주군(州郡)을 노략질하니, 왕이 김방경(金方慶)에게 명령하여 가서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다음 해(1271), 김방경이 몽골 원수 혼도(忻都, 힌두) 등과 함께 3군(軍)을 인솔하고 적들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적들은 모두 처자(妻子)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적장(賊將) 김통정(金通精)은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쳐서 탐라(耽羅)로 들어갔다. …중략… 유존혁(柳存奕)은 남해현(南海縣)을 거점으로 하면서 연해 지역을 노략질하였는데, 적들이 탐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8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따라갔다. 적들이 이미 탐라에 들어가 안팎으로 성(城)을 쌓고 때때로 <물으로> 나가서 약탈하고 주군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수령들을 죽이니 연해 지역이 쓸쓸할 지경이었다. 왕이 김통정의 조카 김찬(金贊)과 오인절(吳仁節) 등 6명을 파견하여 가서 적들을 회유하였으나, 김통정은 김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죽였다. <원종(元宗)> 14년(1273), 왕이 다시 김방경에게 토벌을 명령하니, 김방경이 혼도 등과 함께 탐라로 진격하여 그들을 공격하니 적들이 크게 무너졌다. 김통정이 70여 명을 이끌고 산 속으로 도망해 들어가 목을 매고 죽으니, 탐라가 마침내 평정되었다.²¹⁾

이에 비해 충신 서술부에 속하는 『고려사』열전 「김방경」조는 방대한 양으로 김방경의 가계와 신이한 출생,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활약하고 출장입상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가운데 간략히 김통정 세력의 진압을 서술하였다. 『고려사』열전 「배중손」조는 반역 인물 서술부로 배중손을 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김방경의 활약상에 치중하는 승리자 위주의 역사 서술을 보여 준다.²²⁾

『고려사』세가 권제27에 진도토벌군이 적을 대파하자 김통정이 잔당을 이끌고 탐라로 들어가자 김통정을 회유하기 위해 조카 김찬을 보낸 내용 등이 남아 있고, 『고려사』지리지 권제11 「탐라」조에는²³⁾ 삼성신화부터 신라와의 관계,

20) 『고려사』열전 권제17 「김방경」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1) 『고려사』열전 권제43 「배중손」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2) 오태혁, 앞의 논문, 60~62쪽.

23) 『고려사』지리지 권11 「탐라」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숙종(肅宗) 10년(1105)에 탁라(毛羅)를 고쳐 탐라군(耽羅郡)으로 하였다. 의종(毅宗)때는 현령관(懸鈴官)을 두고 희종(熙宗) 7년(1211)에 역적 김통정(金通精)이 삼별토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난(亂)을 일으키니 그 4년 뒤에 왕이 김방경(金方慶)에 명하여 이들을 쳐서 평정(平定)하였다.

충렬왕(忠烈王) 3년(1277)에 원(元)나라가 말을 기르는 목장을 만들었으며 20년(1294)에 왕이 원나라에 조회하여 탐라를 돌려주도록 청원하니 원나라 승상 완택(完澤) 등이 아뢰어 황제의 뜻을 받들고 탐라를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그 다음 해(1295)에 제주(濟州)로 고치고 비로소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최서(崔瑞)를 목사(牧使)로 삼았다. 26년(1300)에 원나라 황태후(皇太后)가 또 다시 말을 방목(放牧)하였는데 31년(1305)에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충숙왕(忠肅王) 5년(1318)에 원나라에 예속되기를 청하였으므로 원나라는 부추문아단부화(副樞文阿但不花)를 탐라만호(耽羅萬戶)로 삼았다. 이에 문아단부화는 본국의 천한 노비 김장로(金長老)와 함께 본주(本州)에 와서 만호 박도손(朴都孫)을 매질하여 바다에 던져 죽였다. 16년(1367)에 원나라는 제주(濟州)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이때 원나라의 목호(牧胡)들이 난폭하여 여러 차례나 국가에서 임명한 목사(牧使)와 만호(萬戶)를 살해하여 반역하였다. 김유(金庠)가 그들 목호(牧胡)를 토평(討平)하려 하자 그들은 원나라에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하여 주도록 청하였다. 18년(1369)에 원나라 목자(牧子) 합적(哈赤)이 제멋대로 날뛰어 관리를 살해(殺害)하므로 6년 뒤(1375)에 왕이 도통사

삼별초의 난과 목호의 난 등 개략적인 고려사가 기술되어 있다. 『고려사절요』²⁴⁾ 김통정이 산중으로 도망하였는데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 송보연이 적 괴수 김통정의 시체를 얻어 보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외의 국내 자료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고려정부의 입장에서 서술된 자료들이다.

설화를 연구할 때 지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설화와 관련된 그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은 설화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게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지』를 토대로 자연환경·역사·행정·산업·신앙·민속·구비전승·설촌유래·지명유래·문화유산 등 다양한 자료를 연구하여 설화 연구의 관점을 넓힐 수 있었다. 현재 전해오는 제주도의 가장 오랜 읍지인 『탐라지』는 이후 제주도에 관한 문헌들의 저본(底本)이 되었으며, 17세기에 전국적으로 활발한 편찬을 보이는 사찬읍지의 전형을 지닌 책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내용면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인물·시문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특징을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주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²⁵⁾ 다음은 『탐라지』에서 김통정에 대한 서술이 있어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중략... 삼신녀 타고 온 석함 어디서 왔나! 들판에 피와 기장 뿌릴 줄 알았네.
 세월이 흘러 주씨·한씨 한 마을을 이루듯,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졌네.
 별무리 처음으로 계림 하늘 움직였소, 이미 배 한 척이 탐진에 닿았네.
 좋은 작위 형과 아우에게 봉하자, 영화롭다! 고국 탐라의 후예에게 전했네.
 험한 길 무릅쓰고 자주 찾아왔고, 아침에는 신라를, 저녁에는 백제를 섬겼소.
 송악에 왕이 일어나 오랑캐를 무찌르고, 미리 찾아가서 공물을 바쳤다네.
 어찌하여 난을 일으켜 탐라도 도망쳤나? 호원이 들어와 오염시켰네.
 후풍도 어귀에는 장군 김방경이요, 명월포 머리에는 도통 최영일세.
 앞뒤로 개선의 깃발 바다를 덮었소. 적들도 난리에 피곤하여 서로 응했네.
김통정의 사나운 피 이 땅에 뿌려지고, 한치의 모진 닢은 칼 끝에 날렸네.
 나쁜 무리 일망타진 극형에 처했더니, 이후로는 해마다 시끄러움 없어졌네.
 가는 곳마다 마음 놓아 다시 숨을 돌리오. 사냥으로 삶을 도모하며 제자리를 얻었네.
 노를 저어 조각배는 북풍을 맞받아 뜨고, 토산물을 보냈으니 신직을 다했네...중략...²⁶⁾

(都統使) 최영(崔瑩)을 보내어 합적(哈赤)을 토멸하고 다시 관리를 두었다.

24)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탐라(耽羅)에 진(鎭)을 치고 주둔하던 장군(將軍) 송보연(宋甫演)이 적의 괴수 김통정(金通精)의 시체를 찾았다고 아뢰었다. 또한 적의 장수 김혁정(金革正)·이기(李奇) 등 70여 인을 사로잡아 홍차구(洪茶丘)에게 보내니, 이들을 모두 죽였다.

25) 이월진, 고창석 외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281쪽.

26) 이월진, 고창석 외, 앞의 책, 198쪽.

35절은 '탐라시삼십오절(耽羅詩三十五節)' 또는 '탐라사(耽羅詞)'라고도 한다. 최보가 1488년 1월 제주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왔을 때 지었다.

제주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부임한 최보가 김통정을 200여 년 후에 대하면서 쓴 시이다. 최보는 『동국통감』의 초본을 쓴 사람으로 유교적 명분론에 따라 충신은 칭송하고 정적은 배척하는 관리로서의 태도가 그의 시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²⁷⁾ 제주의 역사는 『고려사』지(志) 권 11 「지리」조에 서술된 바와 같이 변방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지위에 있다가 삼별초의 항쟁으로 인해 관심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보는 마치 『고려사』를 보듯 지배층의 입장에서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토산물이나 바치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의 김통정에 대한 기록은 민중들의 의식이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라는 사실과 권력관계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재정리된다는 것을,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에 따라 언제든 그 실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표 2> 김통정 국내 기록

	역사서	서사
①	『고려사』 열전 권제17 「김방경」 조	적의 우두머리 김통정(金通精)이 그 무리 70여 명을 거느리고 산 속으로 도망해 들어 항복하였다.
②	『고려사』 세가 권제27 「김방경」 조	김통정이 잔당을 이끌고 탐라로 들어가자 김통정을 회유하기 위해 조카 김찬을 보내었다.

27) 국사편찬위원회 - 최보 검색.

역사서술에서 최보의 교훈적인 사론(私論)은 주로 군주를 포폄한 것과 개인 인물을 포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폄하한 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론에서 군주의 仁政·恤民之政·賢政 등이 포찬되었고, 강상의 윤리를 어긴 군주와 불교를 숭봉한 군왕, 왕위와 왕통을 지키지 못한 군주, 난신적자를 처벌하지 못한 군주, 사대교린에 실패한 군왕, 항략에 빠진 군주 등이 폄론되었다.

28) 제이스 젠킨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해안, 1999. 40~41쪽.

과거와 역사를 결합시키고자 할 때 크게 세 가지 이론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인식론, 방법론, 이데올로기 영역이 그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할 때 이 세 영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역사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권력관계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재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배자뿐 아니라 피지배자도 각각 자신들의 실천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를 독자적으로 각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이 각색한 과거를 부적절한 것으로 취급하여 지배적 담론의 공간에서 배제시켜 버린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 세계의 지배자 또는 피지배자의 필요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그 때문에 전달될 내용은 계속 재정리된다. 이 때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자신의 이해를 지지해 줄 사람을 동원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역사는 날조된다. 이러한 상충된 역사에 대한 필요들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쟁(소유권 투쟁) 속에서 충돌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③	『고려사』 열전 권제43 「배중손」 조	적장 김통정은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쳐서 탐라(耽羅)로 들어갔다.
④	『고려사』 지리지 권11 「탐라」 조	역적 김통정이 삼별초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난을 일으키니 그 4년 뒤에 왕이 김방경에 명하여 이들을 쳐서 평정하였다.
⑤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조	김통정이 산중으로 도망하였는데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이 피수 김통정의 시체를 얻어 보고하였다.

2) 국외 기록

국외 자료는 중국의 사서인 『원사(元史)』 권208 열전 제95 외이 1 「탐라」조, 「고려」조, 『신원사(新元史)』 열전 제146 외국 1 「고려」조, 『원고려기사』의 「세조황제」조, 일본의 기록물인 『고려침장불심조조(高麗牒狀不審條條)』 등이 있다. 이 국외사료 중 원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들은 침략의 과정을 서술한 외세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일본에 보낸 삼별초정부의 대외문서를 정리한 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문서이다.

중국의 김통정 관련 사서인 『원사』와 『신원사』는 탐라를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일본 정벌을 위한 전진기지로 묘사하고 있다. 1272년 9월 김통정이 탐라로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된 추밀원 신하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²⁹⁾

만약 앞세워 일본과 일을 벌인다면 그 승패의 정황은 살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문제가 있을까 두려우니 앞서 탐라를 평정한 연후에 일본이 붙좃을지 여부를 관찰하며 서서히 그 일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탐라국왕은 일찍이 조정으로 들어와 알현하였는데, 지금은 반적들이 그 군주를 축출한 뒤 그 성에 자리잡아 지키며 난리를 일으키고 있으니, 군사를 일으켜 그를 토벌함이 의리상 앞세워야 할 일입니다.³⁰⁾

위의 기록은 몽고군이 탐라를 진압하는 데 협조한 까닭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

29) 오태혁, 앞의 논문, 63쪽.

30) 『원사(元史)』 권208 열전 제95 외이 1 「탐라」조.

은 몽고가 일본정벌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삼별초는 몽고의 일본정벌을 위한 병선진조를 파괴하고, 송경(宋京) 수송 공미(貢米)와 수송 선박을 탈취하며, 몽고인과 몽고에 협력하는 관원 및 조선공(造船工)을 납치한다는 공격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계획 하에서 삼별초는 끊임없이 본토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몽고는 삼별초의 섬멸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련의 상황 아래에서도 몽고는 ‘거병토지(擧兵討之)의소선야(義所先也)’라 하여 탐라국왕과의 의리를 앞세웠다. 이는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서술 태도를 느끼게 해 주는 대목이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탐라국 성주의 위치를 다시 찾아주어야 한다는 미명 아래 고려와 함께 일본의 정벌을 피하면서 저항세력을 제거하고, 마침내는 탐라에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를 설립한 뒤 진병군 1천 5백 명을 두고, 마목장을 설치하는 등 지배세력으로 군림한 것이 몽고였던 것이다.³¹⁾

지원 10년(1273) 4월 28일, 경략사(經略使) 혼도(忻都, 힌두)가 홍다구(洪茶邱)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바다에 가서 탐라(耽羅)에 있는 적의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는 김통정(金通精) 등을 사로잡아서 지(旨)를 받들어 그를 주살했다. 앞서 승화공(承化公)이 이미 죽자 그 일당이었던 김통정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군사를 데리고 탐라에 들어가 저항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시위친군(侍衛親軍)이었던 천호(千戶) 왕잠(王岑)이 지를 받들고 고려에 가서 국왕 및 홍다구와 함께 탐라의 반적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홍다구는 이로써 아뢰기를, “고려의 왕경에 김통정의 친척이 많이 있으니 보내어 초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군사력으로 그들을 공격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안이 들려오자 지를 받들고 홍다구에게 명하여 전라도에서 김통정의 사위인 김영(金永) 등 7인을 찾아 김통정을 초유하도록 하였으나, 김통정과 본국의 성주(星主) 등은 따르지 않은 채 사신을 모두 죽이고 오직 김영만은 억류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혼도 등은 성지를 받들어서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에 모두 처형하였다.³²⁾

『원고려기사』에서는 김통정의 죽음과 그의 가계에 대한 기록이 국내 기록보다 상세하게 남아있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고려의 기록에는 반적이었던 김통정과 그의 친척인 김찬, 김영 등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국외 기록을 참고한다면 김통정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과 전설과의 관련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1) 오택혁, 앞의 논문, 64쪽.

32) 『원고려기사(元高麗記史)』 「세조황제」 조.

『고려첩장불심조조(高麗牒狀不審條條)』는 삼별초 정부가 1271년 우호적인 국교관계를 맺자고 일본정부에 보낸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삼별초 정부가 첩장을 보내기 전 3년 전 고려정부도 강화도에서 일본에 첩장을 보냈다는 점이다. 두 가지 첩장을 받은 일본 정부는 비교를 한 뒤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의심되는 부분만 골라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첩장불심조조이다.

역사학자들은 고려첩장불심조조는 삼별초 정부가 자신들이 고려의 정통성을 가진 진짜 고려 정부임을 선포하는 정식 외교 문서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 적은 내용을 보면, 강화도에서 보낸 첩장은 몽골군을 우호적으로 표현했지만, 삼별초 정부의 첩장에서는 오랑캐로 표현했고, 몽골의 야만성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진도로 도움을 읍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신들 때문에 일본이 안전하다는 내용도 있으며, 삼별초 정부에 식량과 함께 구원병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 첩장의 의미는 단순히 외교 문서가 아니라 삼별초 군이 분명히 또 다른 고려의 정부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³³⁾ 삼별초 정부가 독자적으로

33) 서찬석, 『삼별초 항쟁 가까이』, 어린른이, 2007, 128쪽.

이기백, 『한국상대고문서자료집성』, 일지사, 1987. 「고려첩장불심조조」 재인용.

이 사료는 1271년(원종 12년) 고려가 외교문서로 일본에 보낸 내용에 대해 당시 가마쿠라 막부 [鎌倉幕府]가 이를 검토하여 교토[京都] 조정에 보내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한 12가지 항목이다. 삼별초 정부의 정통성 및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살펴보면 외교문서의 진실성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서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이미 고려 원종(元宗, 재위 1259~1274)이 보낸 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1271년 문서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 고려에서는 1267년(원종 8년) 원종이 몽골의 요구에 따라 일본으로 하여금 몽골에 사신을 파견할 것을 권하는 국서를 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수령을 거부했고, 결국 고려 사신들은 이듬해에 귀국하였다. 이때 보낸 문서가 일본 나라의 동대사 존승원 소장 문서 중 「조복이조원적초(調伏異朝怨敵抄)에 필사되어 전한다. 그 내용은 몽골 황제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려 하니 통호하길 권유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문서 수령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를 정리해 두었는데, 이는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 상황 전개와 결과에 대해 여러 경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결과였다. 그리고 1271년 다시 고려에서 첩장이 왔을 때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앞서 첩장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이러한 의문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은 고려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1271년 첩장은 고려 조정이 보낸 것이 아니라 몽골과 지속적인 항쟁을 주장하며 새로 국왕을 옹립하고 진도로 피신한 삼별초 정부가 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몽골에 대한 정반대의 입장이 첩장에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몽골의 덕을 칭찬하다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 것, 몽골 연호를 쓰다가 그 연호를 쓰지 않은 것, 오랑캐의 풍속[被髮左衽]은 성현이 싫어하므로 이에 입각하여 진도로 천도하였다고 한 것, 몽골이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한 것 등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문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삼별초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우고 일본에 사신과 문서를 보냈으며, 삼한을 통합하고 사직을 안녕케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료는 삼별초의 항쟁과 몽골-고려/삼별초 정부-일본의 외교 관계를 보여 주

정부를 세우고 일본에 사신과 문서를 보낼 정도의 외교적 능력이 있었으며, 삼별초에게 호병(胡兵) 수 만 명을 청군(請軍)하는 등 물적인 기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몽고의 야만성에 대항하는 대몽항쟁의 정신을 전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김통정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제주에 입도한 시기인 1271년에 진도 정부에서 보내진 것으로 보아 대몽항전(對蒙抗戰)이나 대일교섭(對日交涉)을 통한 제주 항전의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이라 눈여겨 볼 수 있다.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배중손이 127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면 김통정과 관련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후대의 기술이지만 삼별초는 일본 역사에서 다른 나라와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학자 하타 다 다카시(旗田巍) 교수가 1965년에 발표한 논문 내용 일부를 살펴보자.

삼별초는 몽고의 일본 침략을 방해했던 용사들이다. 삼별초의 항전이 없었다면 몽고는 훨씬 일찍 일본에 출병하였을 것이다. 일본 원정을 위한 둔전군은 삼별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삼별초 토벌에 전용될 수밖에 없었다. 삼별초의 저항이 없었다면 몽고는 예정계획에 따라 훨씬 일찍 일본을 습격했을 것이다. ...중략... 삼별초의 난은 몽고의 일본 원정을 늦추고, 방위 준비를 갖추 시간을 주었던 것이다.³⁴⁾

일본은 삼별초의 저항으로 방위를 갖추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삼별초는 몽고의 일본 침략을 방해한 용사라는 국익에 결부되는 사관(史觀)이 이어져 온 것이다.

김통정에 대한 국내·외 기록은 동일하게 역적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록은 삼별초 정부가 고려의 정통 정부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볼 때 정부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원나라와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삼별초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4) 旗田 巍, 『元寇』, 1965, 106쪽.

2. 근현대의 역사 인식

1)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의 역사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황의돈(1890-1964)³⁵⁾은 잡지 『개벽』(1922)에서 「민중적 투호(吡號)의 제일성인 갑오의 혁명운동」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갑오혁명을 논하며 이명학, 이괄, 김통정, 홍경래의 반란과 비교하고 민족적 불평과 민중의 요구의 폭발은 갑오혁명 운동이라고 강조하며 전민중적 봉기를 통한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원지배기에 고려정부와 몽고군에 저항한 삼별초는 노역에 동원되고 군량미와 군비조달로 인한 식량부족, 역사 인식의 차이 등으로 전민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패하고 만다. 일본의 지배하에 의도적인 역사왜곡과 민족말살주의 정책은 아마도 우리의 많은 역사를 폄하하였던 것처럼 삼별초의 역사를 지웠을 것이다. 조선시대까지 역사상 대표적인 ‘반역’의 집단으로서 규정되었던 부정적인 삼별초에 대한 평가가 민족사학자에 의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우리 동양의 과거 기술을 회고하면 찬탄구가(讚歎謳歌)할만한 민중적 혁명 운동이 적었다. 다시 말하면 시대에 혁명적 쟁투가 없지 않았지만 그는 다 한 두개의 야심적 영웅의 사육적 쟁탈전뿐 정말 정신계로나 물질계로나 전민중의 자유적 권리, 평등적 행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또는 그를 대표하여 규호(吡號)하고 분투(奮鬪)한 광영의 기록이 적었다. 더구나 우리 조선민족의 기록은 아무리 사천여년의 장시간에 뻗었다 하더라도 나의 가장 구가하고 찬탄하는 민중적 요구의 폭발인 갑오혁명운동을 놓고서는 효천의 성진과 같이 낙낙할 뿐. 때때로 혁신적 운동이 없지 안 하였더라도 그는 다 일시적 효응의 야심적 운동뿐이었다. 나말의 혁신운동이 아무리 장렬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오직 궁예, 견훤, 왕건배의 야심적 규호뿐이었으며 여말에 이태조의 혁신이 성공하였더라도 그는 일부 귀족계급에서 지위적 쟁탈전뿐이었다. 이몽학, 이

35) 다음 - 황의돈 검색.

호는 해원(海園). 충청남도 서천 출생. 아버지는 황기주(黃麒周)이며, 한말의 문인 황현(黃玹)과는 족친간이다. 1911년 안창호(安昌浩)가 설립한 대성학교(大成學校)에서 국사교육을 맡았으며, 1913년에는 향리에 돌아와 청년들에게 국사를 강의하기도 하였다. 1916년 YMCA강당에서 국사 강연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며, 재직하고 있던 휘문의숙의 교사직에서 파면되기도 하였다. 1920년 이후 약 20여 년 간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국사와 한문을 강의하였고,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원도 겸임하였다. 1938년 이후 일제의 침략전쟁인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국사·국어교육이 금지되자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조선일보사 기자가 되었다. 조선일보사 기자 재직시에는 고적조사를 담당했으며,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팔, 김통정, 흥경래의 반란이 때때로 없지 안 하였더라도 그는 다 개인적 국부적 불평의 규호성 뿐으로서 완전히 진실로 전민족의 불평, 고통, 신음, 참담적 생애의 반동으로 민중적 요구의 폭발은 오직 갑오혁신의 운동이었을 뿐이다.³⁶⁾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신채호 등 일부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민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김통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귀한 기록물이라 의미가 있다. 외세에 항거하는 민족항전으로서의 삼별초의 항전을 보는 시각은 1941년 김상기 선생에 의해 제기되었다.

묘청 정중부의 난은 내부적 운동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삼별초 난은 복잡한 내부적 사정 이외에 외부 압력에 의한 일종의 반발운동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결과에 있어서도 내부에 끼친 영향보다도 국내에 뻗어드는 외력의 소장(消長)에 지대한 관계를 가진 것이다.³⁷⁾

이는 12·13세기 고려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던 묘청란·무신란과 삼별초의 봉기를 고려 역사에서 전통적 민족의식의 발로에 의한 대외항전의 사건으로 파악하면서 역사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인데, 이는 묘청란의 역사적 의의를 주목하였던 신채호 선생의 사론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³⁸⁾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던 관찬사서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김통정을 역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설화 등 여러 가지 경로로 김통정 이야기가 민중 영웅으로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기에는 반공 민주주의 국가 실현 및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데 주안점을 주었다. 이 시기 검정된 국사(사회) 교과서에서 삼별초항쟁은 대부분 ‘삼별초 반란’으로 기술됨으로써 아직 전통적인 왕조사관·유교사관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김상기³⁹⁾·손진태⁴⁰⁾·신석호 등의 일부 민족주의사학

3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김통정 검색, 『개벽』, 1922.

37) 김상기,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1948, 91쪽. 재인용.

38)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279~280쪽.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삼별초항쟁이 고려 무사의 상무정신·자주정신이나 기백, 투혼을 보여준 것이라 강조하였지만 우리 민족 전체의 대외항쟁으로 승화시키지는 않았다.⁴¹⁾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쟁탈한 박정희는⁴²⁾ 향파두리 유적지에 ‘항몽순의비’를 건립하고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삼별초의 항거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다. 원지배기와 조선시대 동안 유린되고 폐허가 되었던 이곳에 항몽유적지 전시관이 설립되고 주변 유적의 발굴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민족 사학자들은 군사독재 세력이 삼별초의 자주(自主) 이미지를 조작했다면서 김방경에 대한 평가와 삼별초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였다.

삼별초는 몽골에 반감과 원한을 지닌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 세력 범위를 넓혔다. 민중들은 수탈을 일삼는 무신정권에 맞서 봉기하였고 뒤이어 몽골의 수탈이 가중되리라는 예상 아래 삼별초에 호응했다. 성글게 수탈하는 고려라는 얼레빗과 빈틈없이 끊어가는 몽골이라는 참빗을 모두 거부하는 민중 정서였다.

하지만 삼별초의 역량으로서는 강력한 몽골에 끝까지 맞설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려의 30년 대몽 항쟁이 고려인의 의지와 정신을 드날렸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비례하여 높았다. 삼별초의 항쟁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대세는 이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삼별초의 항쟁은 민족 정신사에 남을 뿐 현재적 실익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들의 투쟁은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뒤이어 이루어진 원의 지배를 곱게 받아들이자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1970년대 군사 독재정권 아래서 어용학자들은 무신정권을 민족적이고 진취적인 정치세력으로 높이 평가하고, 삼별초군의 활동을 ‘국난 극복’의 사례로 꼽았다. 군사 독재정권의 민족주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역사 조작의 한 예였다.⁴³⁾

39) 김상기, 「삼별초와 그의 난에 취하여」, 『진단학보』 9·10·13, 1939~1941.

“삼별초가 주로 항몽전선에서는 항전을 계속하여 온 것이니 고려의 항몽사는 그것이 곧 삼별초의 대외역사였다. 이와 같이 보아온다면 삼별초는 안에 있어서는 권신과 운명을 같이 하였고 대외관계로 볼 때에는 그것이 대몽항전기에 출현하였다가 평화기에 들어 복멸한 것, 다시 말하면 항몽에 종시한 것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40) 손진태, 『국사대요』, 을유문화사, 1953.

“삼별초군을 이끌고 왕족 왕을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도 몽고에 대한 항쟁 사상에 의함이 었다…중략…그 동안에 많은 이민도 그들에 가담하고 또는 동정하였다.”

41) 강재광, 「1950~1960년대 독재 권력의 삼별초항쟁 인식과 서술」, 역사와 현실, 2015, 95~96쪽.

42) 강재광, 앞의 논문, 97쪽.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장악하고부터는 민주적, 민족적 지도자로서 탈바꿈되어야 했고 그래서 ‘조국근대화’, ‘경제개발’, ‘자주국방’을 통한 탈후진국과 ‘민족 정체성’, ‘민족적 자주정신’ 확립을 통한 탈식민사관 및 민족사관 재정립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 박정희는 『우리민족의 길』(1962)에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유산들 중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애국전통”을 특히 강조하였고, 충무공 이순신과 전봉준 등을 국난극복을 위한 애국정신을 보여준 인물로 높게 평가하였다.

43) 이이화, 앞의 책, 115쪽.

그러나 “민족의 자유와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삼별초의 봉기였다”⁴⁴⁾고 하여 삼별초의 민족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민중적인 성격을 부각한 경향은 민중항전으로서 삼별초의 성격에 대해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로 수용되어 지금까지 평가되어 왔다.⁴⁵⁾

내년은 고려가 건국한 918년에서 1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도내 역사학자 등은 이를 기념하여 ‘고려 해양 삼별초 유적’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와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사)제주학회와 (재)제주고고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⁴⁶⁾ 지금 향몽 유적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동아시아의 화합, 지속가능한 문화유적 보존 등이 주된 관점인 듯하다. 지역 개발과 문화 산업 양상이라는 경제 논리와 경쟁 논리가 다시 이 지역을 투기와 반목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볼 일이다. 향파두리 유적지가 오늘날 갖는 의미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제주 삼별초가 최후의 향몽거점으로 삼았던 향파두성과 그 주변의 경우는 ‘제주향파두리향몽 유적지’라는 이름으로 1997년에 국가사적 제 396호로 지정되고,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었다. 향파두성의 활용과도 연계된 제주 향몽유적의 문화콘텐츠화와 관련해서는 후세들에게 국가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밀도 있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사교육장화와 직접 이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제주역사와 경관 및 생태 등의 남다름을 체험적으로 엿볼 수 있는 문화기행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문화 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도 나아가야 한다. …중략… 이밖에도 제주의 향몽 유적·유물은 13세기 당시의 보존도가 높아 고고학·미술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자못 큰 만큼, 13세기 고려의 역사문화를 생생히 해명하는 역사적 자료서의 가치도 높다. …중략… 요컨대, 제주 지역 대몽항전 관련 유적의 문화콘텐츠화는 우리나라의 외세 항쟁사 및 동아시아사의 문화적 동질성과 아울러, 제주역사와 경관 및 생태가 맞물려 이루어진 문화자원화의 창출과 함께, 산교육장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⁴⁷⁾

44) 강진철, 『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74, 387쪽. 재인용

이러한 농민·노예의 폭동은 모두 몽고와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며, 그들에 의한 이중적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었다. 이 압력의 해방자로서 민중들은 삼별초에 큰 기대를 걸었다. 각처에서 삼별초가 민중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중략… 이 민중의 투쟁은 강력한 몽고의 군대와 고려정부를 사어로 하는 이중의 투쟁이라는 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45) 윤용혁, 앞의 책, 282~283쪽.

46) 강창화 외, 「제주 향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 『2017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역사문화학회, 2017, 52쪽.

47) 김일우, 「제주 향몽유적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2015, 26~27쪽.

‘고려 해양 삼별초 유적’은 해양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삼별초 유적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 부여가 선행되어야 하며⁴⁸⁾, 삼별초유적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학제간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통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시대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시대에는 국가를 반역한 역적으로 폄훼하고 삼별초의 수많은 장수들처럼 역사에서 소멸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근세이후에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 선각자들에 의해 민중 의식의 요구로 재평가 되었다가 이승만 정권기에는 왕조적 사관을 이어받아 반란집단으로 부정적으로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으며, 박정희 정권기에는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무신의 자주정신이 높이 평가되기도 하였다.

김통정이 이끌었던 삼별초는 13세기의 다양한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무인정권, 몽골과의 대외관계와 전쟁, 해양, 신분 문제 등이다. 21세기에 있어서 삼별초는 민족주의적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적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통정과 삼별초에 대한 정치적 측면의 평가 이전에, 그 실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파악과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⁴⁹⁾ 역사서, 지리서, 외교문서, 잡지, 신문 기사 등 다양한 기록물들의 연구 및 전설, 지명 유래담, 당신화 등 설화 자료,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따른 유적과 유물을 통해 김통정 이야기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위한 학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듯 삼별초의 위상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김통정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김통정의 면면을 이용하고 미화하는데 사용했을 뿐 역사적 진실로 김통정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설화에서 김통정은 민중의 영웅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48) 강창화, 『제주 향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 2017, 52쪽.

49) 윤용혁,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해안, 2014. 4~5쪽.

Ⅲ. 김통정 이야기의 설화 인식

1. 전설

1) 애월 지역

김통정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물이 빈약하기도 하지만, 역사 편찬자의 관점에 따라 역사적 기술이 시대정신에 따라 변모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화에 대한 연구와 민속적 고증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제주 지역에서 의미있는 인물로 구전되는 김통정 이야기를 통해 김통정의 삶을 재구성하고 현재적 의미를 고찰해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김통정 이야기는 현재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되고 있다. 전설은 증거물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지역성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한결 절실하게 감동과 애착을 주기 때문에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 그 증거물과 더불어 살아온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전설은 다른 갈래의 이야기들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 인생관을 드러내어 보여준다.⁵⁰⁾

김통정 이야기를 여러 방식으로 분류한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설의 성격이 강하다. 지역 사람들의 삶과 의식 등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지역별로 전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

김통정의 항몽기지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곳이 항파두리성이었다.⁵¹⁾ 성이 있는

50) 김수업, 『배달말꽃』, 지식산업사, 2002, 210쪽. 재인용.

김연희, 「중학생의 표현력 신장을 위한 지역전설교육 연구」, 2002.

51) 윤용혁, 『고려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215~216쪽.

홍다구가 왕 온을 살리려는 영녕공 왕준의 계획을 알면서도 온왕 부자를 단칼에 참살시켜 버린데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다구의 부 홍복원은 몽고군 침입 초기 서경의 낭장으로 있으면서 몽고의 주구(走狗)가 되어 행패를 자행하던 대표적인 부원배였다. 그가 몽고에 있을 때 인질로 오게 된 왕준이 홍복원의 집에서 기숙하게 되었는데 살다보니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다. 이에 몽고 황족 출신인 왕준의 처가 몽제(蒙帝)에게 읍소함으로써 홍복원은 타살되고, 가산은 몰수, 아들 홍다구를 포함한 가족들은 체포 구금되었던 것이다. 그후 홍다구는 몽제에게 청원하

고성리라는 지명도 항파두리 토성이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⁵²⁾

이곳에는 김통정에 관한 지명 유래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김통정 전설에서 각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것이 아니라 화소를 종합하여 김통정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정리하기 위해 『제주도 전설』의 김통정 장군 설화를 살펴보겠다. 김통정 장군 설화는 고내리 외에도 주변 마을인 장전리와 고성리, 하귀리, 유수암리 등에서도 전해온다.

〈표 3〉 현용준, 『제주도 전설-34.김통정 장군』 단락정리

①	고려 때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매일 어떤 남자가 들어와 잠을 자고 간다고 하였다.
②	마을 사람들이 일러준대로 몰래 남자에게 실을 묶어 따라가보니 실이 지렁이 허리에 감겨있었다.
③	과부는 옥동자를 낳았는데 온몸에 비늘이 있고 날개가 있었다.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고 해서 '진통정'이라 불렀다.
④	김통정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려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김통정은 진도를 거쳐 제주로 들어왔는데 '군향이'로 상륙하였다.
⑤	김통정은 군향에서 찾아 들어와 항바들이에 토성을 쌓고 궁궐을 지어 '해상왕국'이라고 하였다.
⑥	김통정 장군은 세금으로 재 닷되와 빗자루 하나씩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토성위를 빙 돌아가며 재를 뿌리고 말을 달려 적이 보지 못하게 하였다.
⑦	김방경 장군은 김통정 장군을 잡으러 왔는데 아기엽개 한 사람을 들여놓지 못하고 성의 철문을 잠갔다.
⑧	김방경 장군은 토성이 높고 철문이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아기엽개가 하는 꼴이 우스워 불미를 걸어 열나흘 불을 때라고 하였다.

여 복권되고, 삼별초 봉기 이후 자신의 고려인 영민(領民)을 끌고 고려에 들어와 이듬해 진도 공격에 주력군인 좌군으로 투입되었다. 그는 용장성에서 가장 먼저 진입하였고 도망하는 온왕을 추격, 부자를 모두 참살시킴으로써 과거의 사원(私怨)을 앙갚음했던 것이다. 논수골(돈지벌)에서 혈전이 벌어지고 삼별초 정부의 상징적 존재였던 온왕 부자가 무참히 살해되는 경황 속에서 김통정의 부대는 겨우 탈주에 성공, 금갑포에서 승선하여 제주로 남하하게 된다.

52) 김일우, 『제주학과 만남』, 제주학연구자모임, 2010, 81쪽.

성 이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제주 삼별초를 진압한 장군 홍다구가 '홍바투' 칭호를 받아서 '홍바투'의 공을 기리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항파두리가 '항바두'의 한자표기이고, '항'은 '항아리', '바두리'는 '테두리'의 뜻을 가진 제주방언에서 유래하여, 지형이 '항아리에 죽 돌린 가장자리'와 같다는 설도 있다.

⑨	성문을 열고 김방경 장군의 군사가 몰려들자, 김통정 장군은 깔고 앉은 쇠방석을 물뭍루에 던지고 날개를 달고 날아갔다.
⑩	김방경이 다시 아기업개에게 물으니 장수 하나는 새로 변하고 또 한 장수는 모기로 변하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⑪	새는 김통정 장군 투구 위에 앉고 모기는 앵앵거리자 김통정이 고개를 들어 새를 보다 목의 비늘이 거슬리어 틈새가 생겼다. 순간 모기로 변한 장수가 칼을 빼어 김통정의 목을 내리쳤다. 재를 뿌려 놓으니 목이 다시 붙지 않았다.
⑫	김통정 장군은 '내 백성일랑 물이나 먹고 살아라'하며 뱃을 신은 발로 바위를 찍어 샘물이 솟아 흘렀다. 이 샘물이 지금도 있는데 '햇부리'라 한다.
⑬	김통정 장군을 죽인 김방경 장군은 김통정 장군의 처를 잡아냈다. 뱃속에 임신한 자식이 있나 보니 매 새끼 아홉 마리가 있어 불을 붙여 죽였다.
⑭	김통정 장군의 처를 죽인 일대에 피가 흘러내려 흙이 붉게 물들어 '붉은 오름'이라고 한다.
⑮	김통정 장군이 아기업개의 말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 아기업개를 발로 차고 날아갔는데 아기업개가 피를 토해서 안오름의 흙이 붉다.

대표적인 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표 3>의 전설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중영웅의 일대기에 지명유래담이 덧붙여 있다. ①~②는 김통정의 탄생담으로 아래자 설화가 삽입되었다. 백제의 견훤과 같은 영웅의 신이한 출생 과정을 보여준다. ③은 김통정이 온몸이 비늘로 덮히고 날개가 달린 아기 장수로 묘사되어 있다.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삼별초의 장수로 성장한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④~⑥은 김통정이 삼별초 장군으로 제주에 들어와 '해상왕국'을 건설한 내용이다.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재와 빗자루만을 받아 도민들에게 세金的 부담을 줄여준 통치자로서의 모습과 재로써 연막작전을 펼친 장수로서의 지략 등이 서술되어 있다. ⑦~⑩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기업개가 김방경 장군에게 성을 함락시키고 김통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애월지역에만 나타나는 화소이다. ⑪은 무쇠방석 위로 날아간 김통정을 김방경과 장수들이 변신술을 써서 물리치는 장면으로 해모수와 화백, 김수로와 탈해의 경쟁담을 보는 듯하다. ⑫는 김통정 장군이 최후의 유언으로 '햇부리물'을 남김으로서 제주도민에 대한 애민정신을 보여준다. ⑬은 김통정의 아이까지도 날개 달린 영웅이었으나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결말을 보여준다. ⑭~⑮는 붉은 오름의 흙이 붉

은 이유를 설명하는 지명 유래담이다.

김통정의 탄생과 성장, 덕성과 지략, 장수로서의 면모, 영웅적인 활약상, 제주도민과의 관계, 당시의 시대적 상황, 전투의 진행과정 등 역사에서 기술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설화 속에 반영된 민중들의 생활상과 시대 정신과 민중 의식 등도 살펴볼 수 있다.

〈표 3〉의 전설에는 김통정의 장군으로서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향파두리성 위에 재를 뿌리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아 ‘연막작전’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는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백성을 중시한 기본 원칙과도 통하는 것이다. 토성 위로 말이 실제로 달렸다는 『고성리지』의 ‘진군ᄃᆞᆫ’에 얽힌 지명 설화와 더불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발굴 작업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가 구체성을 더해주고 있다.⁵³⁾

김통정의 징치담은 고종달의 징치담과 유사하다. 고종달 설화는 진(秦)나라에서 온 고종달이 왕후지지(王后之地)인 제주의 혈자리에 단맥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하자 한라산신의 아우인 광양당신이 매로 변신하여 배를 침몰시켜 징치하는 내용이다. 김통정의 징지담은 외부세력인 고종달의 이야기에 삼별초 장수인 김통정의 이름만 바뀐 듯한 내용이다. 따라서 김통정을 외부인으로 반감을 갖고 대하는 지역민의 의식이 설화의 화소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통정을 영웅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삼별초의 난으로 변화를 일으킨 외부인으로 배격하는 이중적인 시각이 동시에 설화에 드러나 있다.

애월읍에서 전승되는 자료들은 다양한 화소를 갖고 김통정의 일대기를 생생하

53) 윤용혁,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해안, 2014, 290-291쪽.

향파두성 내성의 건물지에 대한 조사는 2013년도에 지속되어 내성일대에서 11동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출토 유물로서는 기와류, 청자류 이외에 철제 솔과 정동기류 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화살촉, 철모(鐵矛) 및 갑옷의 찰갑(札甲)이 출토하여 주목을 끌었다. 한편 내성 발굴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는 향파두성 축조 이전에 이미 성내에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향파두성 위로 말을 달렸다고 하는 구전을 신빙한다면, 향파두성의 토축은 성을 일주할 수 있는 도로 역할을 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 위에 재를 뿌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화에서는 적에 대한 ‘연막작전’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토축 위를 말이 달리는 도로로 사용하였다면, 비·이슬 등 수분으로 말미암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행해진 조치였고 이 때문에 말을 달리면 자연히 재가 하얗게 피어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향파두성의 축성에는 흑심한 노역의 동원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삼별초가 탐라민에 대하여 여타의 과중한 세금의 부과, 혹은 수탈을 자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전에는 강조되어 있다. 삼별초가 현지인에게 거둔 ‘세금’이란 돈이나 쌀이 아니라, ‘재 닷 되와 빗자루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통정이 제주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물, 영웅으로 각인된 데에는 이 같은 그의 제주 사람들에 대한 유화적 시책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향파두성이 함락되면서 김통정이 마지막으로 성을 탈출하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샘을 ‘선물’하였다는 구전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 전한다. 김통정을 아기장수의 면모를 갖춘 영웅으로 묘사한 대목도 인상적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등장하지 않는 아기업개나 어머니에 대한 서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표 3>의 이야기에서 아기업개는 적의 침공에서 포로가 된 상황인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적장을 조소하고 질책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인다.⁵⁴⁾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가장 힘이 약한 아이와 여성이다. 아기업개는 바로 부모를 잃어버리고 아이가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처참한 전쟁의 상황을 보여준다. 파괴된 세계에서 삶이 유린되고 상실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여린 존재를 전쟁의 승부사로 등장시켜 놓은 것이다. ‘아기업개 말도 들어라.’는 속담은 전쟁이라는 남성 우위의 세계에서 여성과 아이의 세계를 존중하고 되새기라는 충고처럼 들린다.

아기업개의 존재는 김통정에 반감을 가진 토착민과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설화에 등장하는 호국여산신으로 나라에 전쟁이 생겼을 때 나라를 지켜주는 존재로 김방경, 즉 고려정부를 돕는 신격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⁵⁵⁾ 아기업개가 누구의 편이였는가가 기존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아기업개는 제주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존중되어야 할 ‘생명’의 상징이 아닌가 싶다.

허균의 ‘호민론(豪民論)’에서 논하고 있지만 민중들은 상황에 따라 향민과 원민, 호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중은 언제든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위정자들은 이런 민중의 힘을 두려워하고 이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려 말의 원 지배기에는 사리사욕을 위해 민중을 배반하는 친원 세력들이 득세하는 아비규환의 시대였다. 김통정은 능력 있는 장군이었으나 그의 시대는 너무나 폐쇄적인 사회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엄중한 현실이 압도하고 있었다. 결국 김통정은 민중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호민이었지만 패배하고 마는 비운의 영웅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선과 악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준거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김방경이 선이고 김통정은 악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김

54) 애월읍 일대에는 설문대할망 전설이 많이 구연되고 있으며 증거물도 보존되고 있다. 애월할망과 설문대본풀이도 전해내려 오는 곳이라 그런지 여성들의 활약상이 대단하게 드러난다.

55) 권태효, 앞의 논문, 182~184쪽.

방경이 영웅인가? 김통정이 영웅인가? 김통정 전설은 여러 각편을 통해 민중들의 가치관적 논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인물은 김방경도 김통정도 아닌 아기엽개였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김방경이나 김통정 장군 같은 '신이한 존재'가 아니라 어찌면 '아기엽개'와 같은 '하찮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기엽개는 다른 설화에서 김통정의 부인으로 설정되어 김방경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모반의 죄로 김통정에게 제거당하는 처지로 다양한 각편들이 존재한다. 김통정을 죽인 후 그 아내를 잡아 뱃속의 아이를 확인해보니 새끼매가 아홉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아기장수가 김통정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아기장수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결말이다. 아기장수설화에서 용마의 등장이 그러한 것처럼 한 번의 좌절로 그들의 바람이 끝났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혁의 시도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거듭된 아기장수의 설정과 좌절은 그만큼 김통정에 대한 민중의 염원이 절실했다는 것이며 그 좌절감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⁶⁾ 『고성리지』의 설화에서는 김통정 부인의 영웅적 면모와 맹모와 비견되는 김통정 어머니의 현명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⁵⁷⁾

56) 권태효, 앞의 논문, 181쪽.

57) 제주도, 『고성리지-장탈왓』, 244~247쪽. 『학교가 펴낸 우리 고장 이야기-애월읍』, 722~724쪽.
김통정 장군은 한탄하였다. 고려가 이렇게 몽고 오랑캐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나약한 문인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무단(武斷)의 최씨정권(崔氏政權)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을... 문인 없는 것은 좋다. 우리는 싸워 이기면 이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김통정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위안을 느낀다. 이때 김통정 부인이 이 적막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시를 읊는다.

“북쪽 하늘에 일기 시작한 검은 구름은, 남쪽 하늘을 향하여 덮여오는데, 국운은 쇠약해져 풍전등화 같도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삼별초군의 봉화불은, 분연히 일어나서 강화도에 도움을 정하였지만,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삼별초군은 강화도를 버리고 진도로 옮겨와서 항몽의 거센 파도를 일궈네. 몽고의 앞잡이와 개성의 괴뢰도당들은, 진도의 성스러운 우리의 도움을 불바다로 만들고 우리의 백성을 마구 죽였으니, 하느님께서서는 탐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항파두성에 달은 한없이 밝은데 서울(松都)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은, 꼭 서울을 찾고 이 땅에 해방을 이룩할 것이다.”

구구절절 애국충정(愛國衷情)을 절규한 노래였다. 그리고 이 탐라의 항파두성을 하느님이 준 땅으로 읊고 있는 것이다.

“아! 역시 나의 사랑스러운 부인이로구만.” “대장군님, 부질없는 아녀자의 노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처, 역시 나는 이 고려 강토에서 몽고 오랑캐를 쳐부수고 자주의 고려왕국을 부흥시켜야겠어. 하루라도 빨리. 자! 건배합시다.” ...중략...

어머니는 울었다. 어찌하다 비천한 몸으로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되고 보니 지령이까지 몸을 넘봐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하니 이 통정이를 낳게 되고, 그리하다 보니 아버지와 조상 없는 자식으로서 어릴 적부터 남의 천대를 받게 하지 않았는가? 옛날 중국의 맹자 어머니는 세 곳을 옮겨가면서 맹자를 키워 대성인으로 성공시켰다는 고사를 통정 어머니는 알고 있다. 맹자모처럼 하였으면 통정은 아버지 지령이가 묻힌 장소를 몰라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쯤 용이 된 아버지 지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던 시기는 몽고의 침략으로 짓밟힌 폭력과 광기의 시대였다. 전쟁과 지배라는 남성의 논리와 역사로 기억되는 이 시대에 여성들은 역사의 무대, 정확히 말해 역사책에 거의 등장하지 못한다. 즉 여성들은 '역사에서 감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가들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당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⁵⁸⁾ 그러나 민중들은 그들이 기억해야 할 여성의 역사를 이야기 속에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김통정의 어머니는 아기장수를 낳은 영웅의 어머니이지만 육지부에서 전승되는 잔혹하고 굴욕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자애롭고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특히 맹모 삼천지교(三遷之教)의 고사를 실행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단군성조(檀君聖祖)의 우리 민족을 평화롭게 지켜내지 못함을 애석해하는 위인들의 어머니상을 보여준다.

통정(通情)이라는 이름의 유래담으로 지렁이와의 교혼(交婚)을 의미한다지만, 김통정의 일화 속에서 드러나는 행적은 정(情)이 통(通)하는 인품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여 세금을 줄여주고 고려 조정의 조공품(朝貢品)을 도민에게 배풀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장(戰場)을 택하여 유인하여 전투를 하고⁵⁹⁾ 마지막 순간에도 물이 부족한 도민을 위해 샘물을 만들어주는 김통정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제주도민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김통정 어머니의 최후는 종신당 설화⁶⁰⁾에서 나타난다. 굴에 들어가서 불이 꺼

렁이는 통정이를 도와 아들의 힘으로 몽고놈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물리치고 이 나라 백성, 단군성조(檀君聖祖)의 우리 민족은 평화스럽게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통정의 어미는 시운(時運)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통정도 이 꿈부터는 운명을 가름하게 된 것이다. 삼별초의 김통정 장군이 탐라에 와서 만 3년 만에 패하게 된 원인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인가?

58) 제이스 젠킨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해안, 1999, 34쪽.

59) 김일우, 앞의 책, 25쪽.

김통정과 이문경의 부대는 송담천 전투 등 제주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곽지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0) 제주의 마을 - 종신당 설화 검색.

이 종신당은 애월읍 금덕리(今德里) 있는데 이 이름은 속칭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종신당은 김통정 장군이 여몽연합군에 쫓겨 한라산 붉은오름으로 들어가기 전 처와 자식은 고성(古城) 안오름에서 자기 칼로 죽이고 어머니는 금덕쪽으로 피신시켰는데 김통정 장군의 어머니는 이곳 종신당에 들어와서 은신할 굴을 팠다. 물론 사녀(士女)가 따라와서 도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굴안에 몸을 은신하고 밤에는 '눈비아기굴'이란 풀의 씨를 따 짜낸 기름으로 불을 켜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부탁을 하였다. 이곳에 불빛이 안보이거든 입구를 막아달라고. 그후 이 굴에 불빛이 안보이므로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입구를 흙으로 막으니 자연적인 무덤이 된 것이다. 이후부터 이 곳을 '종신당'이라 일컬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곳 주위에

지면 바위로 입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받들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도굴이 행해져서 은수저 등 고려유물이 많이 나왔다 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고내리 현장에 다녀갔을 때 마을 주민들이 종신당을 설명하면서 고내리는 당이 많이 없다고 하였다. 김통정 장군이 너무 세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통정 설화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역민들에게 전승되어 채록되고 있다. 설화와 당신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애월지역에 널리 전승된 데 반해 큰곳의 일반 제차에서 불러 지지 못하고 특정한 마을에서 전승되는 신으로만 된 이유에⁶¹⁾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회·문화적인 원인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2) 안덕 지역

안덕면에 김통정과 관련된 설화가 채록된 것은 한 편만이 전해진다. 애월읍에서 전해지는 내용과 유사하나 김통정이 항바두리 성을 쌓고 그 위에서 말을 달려 이동을 하고 전투를 하는 등의 생활사가 나타난다. 쇠와 관련된 화소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옛날 부자집에 점잖은 딸아기가 있었는데 별첨당을 바다 가운데 사람 하나만 살게끔 지어 거기서 처녀를 키웠다. 누가 잡인이 들어갈까봐(총각이 들어갈까봐) 처녀를 바다 가운데 집을 지어서 아무도 못 다니게 길렀는데 그 처녀가 아버지에게 “밤에 자다가 보면 어떤 도령이 와 꼭 누운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아버지가 명주실을 주면서 “이걸로 그 사람 온 때랑, 밤에 누운 것 같으면 잔등을 푹 졸라매라.”하니까, 그렇게 해서 졸라매었다.

매어 두고는 뒷날 보니 올래에 큰 돌이 있어, 그 아래 명주실이 기어들어있어 그걸 장남

옛 기왓장(항파두리 기와와 같음)들이 널려 있었으며 또한 주위에는 자생하는 자당화가 있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이곳에 호리꾼들이 와서 이 산(墓)을 파헤쳐 이곳에서 은수저, 옛날 솔, 참나무로 된 밥상을 습득하여 가버렸다 하니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만약 어딘가 김통정 자손이 있으면 이곳 조상의 묘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현재까지 김통정 장군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더욱 아쉬운 마음뿐인 것이다.

61) 권태효, 앞의 책, 「함경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아기장수전설>의 수용 양상」, 110쪽.

김통정이 대몽항쟁을 벌였던 고내리를 비롯한 제주 몇몇 지역에서 김통정이 날개 달린 장수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마을신으로 숭앙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큰곳의 일반 제차에서 불러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마을에서만 전승되는 당신화이다. <아기장수전설>이 무가가 되어 곳의 일정 제차에서 꾸준히 불리는 양상은 오직 함경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빌어다가 일으켜 철퇴로 땅을 파내 그 큰 돌을 들어보니, ‘큰 게우리(지렁이)’가 사람 화신(化身)을 해 사람으로 둔갑하여 동침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처녀가 아기가 생겨서 명주실 흘러간 곳을 찾아보니 잔등을 졸라 맨 채로 있었다. 그것을 앗아내서는 게우리라며 잡아버렸다. 잡아버렸지만 그 사람의 처녀가 아길 배어 낳았더니 술수를 쓰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나라를 대단한 영웅 모양으로 막 뒤집어엎으니 저걸 어떻게 하여 잡으라고 하니 서 울서 군사들을 몇 소대 끌고서 나왔다. 항바두리 흙으로 토성을 막 둘러서 우리 항바두리 갔다 왔다 구경하라고 하여 거기를 둘러서 앉아 있으니 이젠 저기서(관군이) 또 나와서 마주 싸움을 붙을 것이었다. 관군이 와서 싸우게 되니 그 바위 위로 토성 위에서 싸움을 하였다. 토성바위로 말을 달리면서 싸움을 하려고 하니, 진나라 진통정이를 잡으려 하면, 달려가서 구름이 일어나 눈 앞이 캄캄하여 그 진통정이를 못 잡았다. 그러니 저놈을 죽이지 못했다. 진통정이가 날개가 돋고 장수이므로 게우리에서 생긴 것이다. 쇠옷을 해 옷 입고 나오니 그러니 그놈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관군이 그만한 인물을 못 잡았다. 이렇게 싸움을 하여가니까 할 수 없이 (진통정) 죽을 위기에 처하자 무쇠 방석을 바다에 던지면서 “자, 이젠 잡으라.”고, 비늘이 솟구친 틈에 고개를 숙여서는 “자, 잡으라.”고 하니 딱 찍어서 비늘이 솟구쳐난 틈에 그 칼이 들어가 죽었다. 진통정이를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⁶²⁾

김통정의 출생 지역이 천자국, 몽고, 개경, 진나라 등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덕수리에서는 진나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제주를 중국과 대등한 하나의 나라로 인식한 탐라인의 자주정신의 표현이라고⁶³⁾ 했으나 이는 설화에서 단순한 지명의 나열에 불과한 사항이다. 진나라와 김통정 시대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전승자의 구술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 설화는 어머니와 지렁이가 정을 통해 낳았다는 ‘야래자설화’라는 점에서 한림읍 옹포리의 설화와 매우 유사하다. 덕수리 설화는 뒷부분에서 김통정이 관군

62) 김영돈, 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 9-3』 남제주군 안덕면, 721~724쪽.

이화옥(안덕면 덕수리, 여, 당시 80세), 1981.

63) 이남옥, 앞의 논문, 39쪽, 53~54쪽.

중국에서 파견된 고종달이 제주도 전 지역을 단맥하여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 돌아가다가 한라산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가 몰락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대국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저항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고종달의 단혈 원인은 제주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을 중국왕이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주도가 왕후지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주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는 제주도가 고려에 복속되기 이전의 독립국이었던 사회상황을 설명한다. 이런 호종단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김통정 이야기와 서사구조가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호종단 전설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을 우려해 단혈을 했다는 것은 김통정 전설에서 제주가 큰 인물이 날 수 없음을 합리화한 것이며, 또한 국란을 이겨낼 인물이나 장수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갈망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중들은 이러한 전설을 만들어내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정신적 극복을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통정의 민중영웅으로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증거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 향파두리 성에서 싸운 이야기에 중점을 둔 반면 옹포리 설화는 ‘통정(通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옹포리 설화는 김통정의 어머니가 처녀 때 밤마다 ‘청의동자’가 와서 정을 통했는데 알고 보니 주뎡이(지네)였다고 하는데 지렁이가 지네로 바뀐 것이다. 두 설화는 『삼국유사』의 견훤의 탄생담과 같은 유형의 이야기다. 이는 설화적 상상력에 의해 김통정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탄생에 동물의 변신담을 끌어 들여 역사적 사실을 흥미롭게 구성한 것이다.⁶⁴⁾ 견훤의 탄생담은 후백제를 세웠던 영웅적 인물을 고려 지배세력이 폄하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김통정 설화에서는 출생이 다른 비범한 인물이자, 철갑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말을 달리는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덕수리 설화에서 특히 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덕수리는 좋은 흙이 있어서 ‘불미마당’이 15~16여 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불미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주조할 때 ‘참봉제’⁶⁵⁾가 구연되는데 제주 무속에서 중요한 신인 ‘도채비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불미’의 전래 과정 등은 이 지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에는 불미공예와 관련하여 ‘불미소리’가 작업의 형태에 따라 ‘똑딱불미소리’, ‘토불미소리’, ‘디뎨불미소리’로 분화되어 전승되고 있다. 분화된 노래가 모두 채록되는 곳이 바로 안덕면 덕수리이다. ‘똑딱불미’는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불미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가 작은 불미이다. 보통 호미나 낫 등 간단한 철제도구를 제련하는 기능을 하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졌고, 노래 역시 여러 마을에서 채록, 보고되고 있다.

64) 오태혁, 앞의 논문, 75쪽.

65) ‘참봉’은 풀무 수호신인 ‘도채비신(神)’을 일컫는 말인데, 보섭이나 솔 등을 주조하기 유식(儒式)으로 불미마당에서 치러진다. 집 주위인 우영에 시루를 뒤엎어 반쯤 묻어 놓고, 평상시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 본제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떠 모은 잡식을 시루 속에 던져 넣지만 솔이나 보섭 등을 주조할 경우 예는 불미마당에 제상을 차려 놓고 제를 지낸다. 도포에 유건을 쓴 원대장은 불미마당 창고 바닥에 자리를 깔아 놓고 매 5그릇, 건어 5개 야채, 과일 등을 올려 제를 지냈다 매 5그릇은 도채비신인 ‘참봉’을 위시하여 ‘독’, ‘알’, ‘풀무’를 수호하는 독신, 알 신, 풍신과 원대장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수호해 주는 조상신까지 합해 다섯 신위 뒀다. 제주도에서 도깨비신은 하나의 신앙대상이 되어 배를 부리는 여촌에서는 선왕신(船王神)으로 수렵, 축산업을 하는 산촌에서는 산신일월(山神日月)로, 풀무질이나 도요업을 하는 곳에서는 집집마다 모시는 조상신 내지는 마을신으로 모시고 있다. 지난날 덕수리 주민들은 온통 풀무업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거의 도채비신을 모셔 온 셈인데, 풀무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모시는 집이 한 가구도 없다.

김통정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 다른 두 지역은 김통정이 상륙한 것으로 보이는 성산포와 진지이자 항전 장소인 향파두리가 있기에 뚜렷한 전승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안덕면에서 김통정 설화가 전승되는 이유가 무엇이였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제주도 내에서 제련기술이 가장 발달했던 ‘불미마당’이 많이 있었던 이곳에서 향파두리성의 쇠문이나 무기를 주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면 해답이 보이는 것 같다. 또, ‘불미과정’에서 쇳물이 주형에 붙지 않도록 재를 칠하는 과정⁶⁶⁾이 있는데 김통정이 세금으로 받았던 재가 사용되고 지역민이 노역을 담당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향파두리성에서 토성을 쌓는 노역만큼이나 고되었을 부역을 담당할 지역민들은 김통정 장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향파두리와 안덕 지역 설화에는 김통정이 아기장수의 능력을 가졌으나 군사에 의해 징치되는 것으로 끝난다. 김통정과 삼별초 장수들이 이 지역에 일으킨 갑작스러운 변화와 전쟁의 공포 등은 김통정 전설의 부정적 결말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원 지배기에 고려는 엄청난 사회 변동을 겪었다. 정치, 군사, 경제뿐 아니라 풍속, 언어, 의식, 복식, 음식, 그리고 성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원나라는 고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 사회 변동에 부정적인 요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역 확대, 인물 교류, 주민 이동, 문화 수용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교환했고 행동반경을 넓혔다.⁶⁷⁾ 이는 고려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고려인들의 세계관이 확장되어 고려시대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방적인 사회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분제의 동요와 민중 의식의 성장이다. 설화에서 묘사되는 김통정은 민중들과 적대 관계가 아닌 민중을 의식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보인다. 제주라는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전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김통정도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고 능력을 보상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애월 구엄리는 종달리 다음으로 염전이 많은 지역이다. 또 옹기를 구웠던 굴이 있어 옹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 목기류도 만들었던 곳이었다.⁶⁸⁾ 애

66) ‘질떡칠하기’는 쇳물이 덩이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숯가루나 흑연가루를 물에 타서 ‘비얇’로 칠하는 일이다. 이 일은 질떡대장이 맡는다.

67)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327쪽.

68) 제주도, 『애월읍역사문화지』, 582쪽.

월의 염전산업, 수공업산업이라든지 안덕의 제련산업은 고려시대 천민들이 담당했던 주된 산업이었다.⁶⁹⁾ 고려시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담당층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는 알 수 없지만 고된 노동을 담당하는 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삼별초가 입도했을 때 해방군이라 생각하고 호응하였던 민중들이 많았다고 전해오는데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에 신음하던 하층민들이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다. 역사에서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김통정이 만약 승리한 전투를 이끌었다면 역사서는 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처인부곡의 처인성에서 입보민들을 지휘하여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한 김윤후는 삼별초 장수이지만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어 대중들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 민중들의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 모습이 더 절실한 기록이 아니었을까 반문을 해본다.

69) 박종기, 앞의 책, 320~321쪽.

일제 식민지 시기의 조선인 역사가 안확은 『조선문명사』(1923)에서 고려의 ‘귀족정치시대’를 움직인 세 집단은 승려, 무신, 폐신(廢臣)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폐신이란 원나라 간섭기에 고려 정치를 주도한 세력을 말한다. 폐신은 국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는 뜻이며, 폐행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의 행적을 따로 기록한 것이 『고려사』 권123·124, ‘폐행열전’이다.

폐행 열전에는 주로 원 간섭기에 활동한 55명의 인물이 실려 있다. 출신이 밝혀진 인물 가운데 문·무반 출신 관료는 다섯 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평민(15명), 천민(10명), 상인(2명), 승려(3명), 외국인(7명) 등 미천한 신분이 많다. 사회 밑바닥의 민초가 국왕 측근이 되거나 지배층으로 진출하는 일은 신분제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원 간섭기를 우리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시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90년 전 역사가 안확은 원 간섭기에 민초들이 지배층으로 진출한 사실에 처음으로 주목했다. 역사가로서 안확의 안목은 실로 신선하고 놀랍다. 억압과 규제만 받아온 민초들에게 원 간섭기는 기회와 희망의 시기였던 것이다.

민초들의 신분 상승을 주도한 계층은 부곡인(部曲人)이다. 부곡인은 향·부곡·소·장·처라는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던 주민이다. 이 중 향과 부곡은 통일신라 때 처음 생겨난 행정구역이다. 인구·토지 규모가 작아 군이나 현이 되지 못한 지역을 주변의 군현에 소속시킨 소규모 행정구역이다. 소는 고려 때 처음 조직되었는데, 금·은·동·철 등의 광산물, 맥·자기·칼·종이 등의 수공업 제품, 모시·생강·소금·숯·생선 등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장과 처도 고려 때 처음 조직되었는데, 사원과 왕실 등에 소속되어 해당 기관의 토지를 경작해 생산물을 세로 바쳤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신라 때부터 존재한 향과 부곡을 비롯해 소·장·처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동시대에 모두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

2. 지명 유래담

1) 애월 지역

애월 지역은 삼별초 관련 유적과 이를 반영한 지명 전설의 보고(寶庫)이다. 『고성지리』와 『애월읍역사문화지』 등 민속자료에 전설과 설촌 유래담이 전해지며, 제주학콘텐츠가 개발되어 자료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속이라는 이유로 문학적 연구 및 역사와의 학제간 통합 연구 자료는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원형을 간직한 채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삼별초 관련 설화를 전승자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⁷⁰⁾ 이 지역의 지명과 김통정의 행적이 비교적 잘 구술된 최근의 자료를 소개한다.

김통정 장군은 삼별초의 우두머리로 진도에 웅거하면서 패전하여 제주도로 오려고 했다. 고려 조정에서는 삼별초의 상륙을 막도록 김수 장군을 제주로 보냈다. 김수 장군은 삼별초가 명월포로 상륙할 것을 믿고 새별오름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다시 고려 조정은 고여림에게 김수 장군을 돕도록 내려 보내 화북포로 상륙하였다.

김통정 장군도도 고려 관군이 온 것을 듣고 바로 제주에 상륙하지 않고 이문경을 보냈는데, 그는 '명월포'로 상륙하여 '새별오름'으로 올라와 김수 장군과 싸움을 벌이게 되며, 김수는 '새별오름'에서 '삼시막(산세미오름)'까지 밀리다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그 때 전사하여 몰살당

70) 문순덕, 앞의 책, 286쪽.

삼별초 대몽항쟁 근거지인 고성주민들은 역사의 현장이며, 민중영웅이 활약한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며, 김통정을 여몽연합군에 저항한 민중영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통정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토성을 쌓을 때는 힘들었지만, 훌륭한 장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설화를 통해서 전승되고는 있지만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으며 김통정의 항몽정신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아울러 21세기인 지금도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역사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적지로 여기고 있다. 유수암리의 제보자는 어린 시절에 김통정 장군의 설화를 듣고 자랐으며,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경청하는 대상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장전리 제보자는 자녀들에게 김통정 설화를 들려주고 기억하기를 바랐다. - 주: 김덕희(여, 1968년, 애월읍 애월리)와 김현옥(남, 1976년, 애월읍 하귀2리)은 하귀초등학교, 귀일중학교 학생 시절에 향파두리 지역을 다니면서 간단히 들었다. 또한 국사 수업시간에 고장 이야기라 조금 관심을 갖고 들은 정도이며, 특별히 어른을 통해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구비문학의 가치란 항몽 관련 설화처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본 화소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고성, 유수암, 장전, 광령 등 설화의 발생 지역에서는 김통정의 저항의식을 본받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화가 살아있는 설화라 할 수 있다.

하게 되었다. 그러자 김수 장군은 산 중턱에 안장을 하였고 고려시대 반묘의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 못이 생겨 김수 장군못이라고 부른다. 다시 이문경은 화북포에서 고여림을 격파하게 되었고 김통정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김통정은 성산포 고성으로 상륙하여 제주 전역에 진지와 관영을 물색한 후 '항과두성'을 발견하고 2년(원종대, 1271~1273)동안 토성과 궁성을 지어 웅거를 하였다. 2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토성을 쌓고 궁성을 지었는데, 고려 조정에서는 '김방경'과 '홍다구'를 보내 토벌하려고 하였다. 김방경이 지략을 써서 고기잡이배와 상선을 이끌고 짚더미를 싣고 '명월포'로 상륙하였다.

김통정 장군은 본성에는 약간의 군사를 남기고 명월포로 나가고, 고려조정의 김방경은 조천, 함덕포로 상륙을 했다. 서쪽으로 진격을 해와서 삼별초가 사용하는 군녕이(군항포)에서 일부 군사를 섬멸하고, 파군봉으로 후퇴를 한 군사들이 패했다고 해서 파군봉이라고 한다. 곧바로 항과두성으로 와 안타깝게도 성이 함락하게 된다.

김통정 장군의 처 이화선은 남장을 하고 72명의 장수를 데리고 김통정 장군을 감추고 갔다. 이화선은 명월포로 올 줄 알았는데 함덕포로 와서 항과두성이 함락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김통정에게 다시 결전을 할 것을 다짐한다. 붉은오름에서 진지를 구축했는데, 김방경 군대에게 패전을 당하게 되고, 거의 패전하자 김통정은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며 아내와 같이 자결한다.

김통정 장군과 함께 따라온 척화라는 고승이 있었는데 유수암에 산세가 수려하여 암자를 지어 태산암이라고 하였다. 얼마 후 다시 사찰을 지어 태산사라고 명명을 하였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썩터 주위에 기와집을 10여채 짓고 작은 촌락을 지었다. 이것이 유수암의 설촌 시초이다. 후일 원나라가 항과두성을 차지하고 이 지역에 와서 삼별초의 잔존세력이라고 생각해서 절이고 집이고 사람이고 모두 몰살하고 평정하였다. 남은 것이라고는 스님들이 염주를 만드는 무환자나무와 절에 서있는 석비였다. 무환자나무는 도채하였으나 순이 난 것이 지금 크게 자랐다. 절간에 석비는 숙종 때 이형상 목사가 당오백절오백을 파괴할 때 파괴해서 땅속에 묻혔다고 전해진다. 척화라는 스님이 물도 흐르고 산세가 좋아 유수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김통정 장군의 모친이 함께 와서 불안해서 수하를 데리고 와서 유수암굴에 양지바른 곳에 토굴을 무덤처럼 집으로 만들어 창구멍을 내고 살았다. 나중에 불빛이 보이지 않거든 구멍을 막아달라고 했다. 불빛이 꺼지니 사람들이 입구를 막아 무덤으로 만들었다. 이곳을 종신당이라고 한다. 1961년도에 완전히 도굴되어 촛대도 나왔으므로 그 당시 흙이 발에 널려서 깔리고 평지가 되어버렸고 돌조각들만 남아있다. 1935년에 발을 갈다가 불상이 발견되어서 많은 고승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에서 김통정 장군 시절의 기와 파편, 고려청자 파편 등이 발견된다.⁷¹⁾

71) 강충희(남, 1938년생), 제주학아카이브, 2015, 김통정전설. 구술필사 및 요약.

위의 설화는 유수암리를 위주로 구술된 자료인데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다 보면 김통정이 제주에 입도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전투가 벌어지는 정황, 최후의 격전까지 한 눈에 그 당시의 역사가 펼쳐진다. 구술자료가 갖는 매력이 바로 전승자의 실감나는 묘사와 이를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채록자료는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하며 역사를 해석하는 보조자료로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으며 역사적 의미가 크다.⁷²⁾ 아래는 고성리의 향파두리 성내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 김통정과 관련되는 몇 가지만 요약하여 소개한다. 『고성리지』에는 삼별초 관련 유적지의 지명과 유래담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어 부록으로 제시한다.

(1) 햇부리물(장수물): 토성밑 서벵디 골금이내 옆에 있는 석간수(石澗水)이다. 전설에 의하면 김통정 장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을 바다로 던지고 발을 여기 디더 탈출하였다고 한다. 움푹 패인 암석의 모양이 오른발 같으며 그곳의 엄지발가락 비슷한 위치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일명 '햇뿌리'라고도 하는데 '햇'은 옛날 장군이나 귀족이 신는 신발이었으니 '장수물', '장수(將帥)발자국'과 같은 뜻이다.⁷³⁾

(2) 장털왓: 북동 쪽 성벽 인접의 '안오름 일대와 남쪽의 '장털못' 지역을 통틀어 '장털왓'으로 일컫는다. 2개소 건물지 구역과 1개소 가마터도 확인됐다. 이 지역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한편, 향파두성 내에서 지대가 가장 낮은 곳으로 동북부 쪽 성내 물은 모두 모여들게 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연못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물이 고여 있었던 흔적과 아울러, 물이 남북쪽의 작은 내로 빠져나가는 지점도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기와·도기편이 수습되기도 했다. 연못을 만들어 삼별초 지휘부가 배를 띄어 즐기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더욱이 김통정 장군은 장털못 주위에 자당화도 심었다고들 한다. 자당화는 산수국을 일컫거니와, 제주에서는 '도체비꽃'이라 부른다. 또한 삼별초의 국화로 본다. 그래서 도체비꽃을 '망한 꽃'이라 해 집에 심지 않는다. 삼별초가 망했기 때문이다.⁷⁴⁾

(3) 안오름(붉은 오름): 고성리 바로 남쪽 오름으로 토성 안에 있어 안오름(內岳)이라 하나 실제로는 능선으로 성이 관통하여 반은 성안이고 반은 성 밖이 되는 것이다. 안오름 정상에 서면 과군봉, 도두봉, 한림 비양도까지 조망할 수 있어 망대가 있었던 곳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성이 함락될 때 김통정은 어머니를 종신당으로 보내고 아내는 장군의 칼에 쓰러진다. 살아서 적군의 노리개감이 되기보다 차라리 남편의 칼에 쓰러짐을 자청하였다. 그 피에 물들어 이 근처 흙은 붉은 황토가 되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안오름은 토성의 상징이며 붉은 마음으로 우뚝 서 고성리를 지켜갈 것이다.⁷⁵⁾

(4) 살 맞은 돌: 극락봉 북쪽에 있는 자연 입석인데 여기 화살이 박혀 있어 「살 맞은 돌」이라 한다. 삼별초군이 무술을 익히던 곳이다. 이 입석을 과녁으로 하여 활을 쏘았다. 쏘고

72) 문순덕, 앞의 책, 287쪽.

73) 제주의 마을 - 고성1리, 지명유래 검색.

74) 김일우, 「제주 향몽유적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몽골학 제43호, 2015, 18쪽.

75) 제주도, 『고성리지』, 116쪽.

또 쓰고..... 과녁은 깊게 패었을 것이다. 1950년대만 해도 이 과녁에 살축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누군가가 빼어가 버려 과녁만 남아 비바람에 마멸되고 있다. 극락봉은 병사들의 훈련코스이며 망대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제 절은 고성리 서쪽 서병티 토성 밑 분지로 옮겨졌고, 극락 봉과 「살 맞은 돌」만 남아 옛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⁷⁶⁾

(5) 파군봉(破軍峯): 군녕이 바로 남쪽 해발 90m의 오름으로 군사(軍土)가 파(破)한 봉(峰)이란 뜻에서 「파군봉」이다. 삼별초군이 여기 잠복했다가 적을 맞아 북쪽 너른 벌판에서 격전을 벌렸다. 그러다 보름이길로 물러나 호근드르를 돌아 술쟁이곳 너머 진군궤를 진지를 구축, 완강하게 버텼다. 속설에 파군봉은 여인이 너울을 쓰고 우는 형체라서 묘자리가 파군봉에 드러나면 과부가 많이 난다는 등 불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만큼 한이 서린 격전지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 아닌가 한다.⁷⁷⁾

(6) 진수못(金須못): 향파두리성 남쪽으로 6Km 지점, 산심봉 동북쪽에 있는 못이다. 진라 영광부사 김수의 본영(本營)이 있던 곳인데 속칭 진수못이라 한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제주의 혈맥인 이곳에 작전지휘소를 두었는데 삼별초가 김수를 정벌하고 여기다 못을 파버려 호수처럼 물이 고였다. 지금은 고성 공동목장에 방목 중인 우마들이 먹는 물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못이 되었다. 그러니까 삼별초가 아직 진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김수와 고여림 장군에게 군사 1,200여명을 주어 삼별초의 제주 상륙을 저지하도록 명하였다. 이들은 1270년 9월에 제주에 들어와서 바닷가 300여리에 「환해장성」을 쌓고 삼별초와 맞서 싸웠으나 패하여 김수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현재 산심봉 기슭(진수못 곁)에 김수 장군의 묘가 남아있다.⁷⁸⁾

(7) 구시물: 향파두성 삼별초군이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썼던 용천수였다. 성의 북동쪽 앞, '용성물' 동쪽 길가에 위치하거나, 용성물과 함께 성내에 있었다. 삼별초군이 향파두성을 쌓을 때부터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을 최대한 활용코자 3칸의 물통을 두었다고 한다. 곧, 처음 칸은 마시는 물, 이어 순서에 따라 음식물 재료를 씻는 물, 빨랫물, 가축용 물로 구분·관리해 썼다는 것이다. 흘러 나간 물은 농업용수로 이용했다. 제주는 물이 귀했던 만큼, 물 관리에 철저했던 것이다.⁷⁹⁾

(8) 장군이왓: '장수왓'이라고도 한다. 향파두성의 북쪽 지역이거나, 현재 하귀로 이어지는 큰길의 동쪽 일대를 일컫는 속칭의 지명이다. 삼별초의 지휘소, 혹은 장수의 야영장이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장군이왓에 '장수항아리', 곧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고, 삼별초 장수가 물을 담아 마시는데 이용했다고 한다.⁸⁰⁾

(9) 돌쩌귀: 내성 '대궐터'의 '순의문' 앞 광장에 전시되어 있는 석제유물을 말한다. 애초, 향파두성 안팎에 산재해 있었다. 향몽유적지 정비 과정에서 수습해 현재의 위치에 모아두었거나, 그 수가 10개에 이른다. 모두 현무암으로 거칠기는 하나, 다듬질 과정을 거쳤다. 원형으로 오목하게 파여 있는 홈들이 눈에 띈다. 문을 끼워 받쳤던 구멍이라고 한다. 곧, 향파두성의 4곳 성문을 달았던 밑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⁸¹⁾

76) 제주도, 『고성리지』, 118쪽.

77) 제주도, 『고성리지』, 121쪽.

78) 제주도, 『고성리지』, 121~122쪽.

79) 김일우, 「제주 향몽유적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몽골학 제43호, 2015, 20쪽.

80) 김일우, 앞의 논문, 17쪽.

김통정과 관련된 지명 유래담은 인물전설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로 의미가 있다.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의 식수원과 가마터, 야영장과 훈련장, 격전지와 최후의 항전지까지 위의 지명들을 보면 2년여 동안의 생활을 유추해볼 수 있다. 파군봉은 원래 바굽지오름이었는데 삼별초가 주둔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기도 하였다. 이처럼 삼별초군은 이 지역에 지명과 생활방식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비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통정 설화에는 쇠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 향파두리성은 고성천과 소왕천이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고 있고 북쪽의 성동산이 성벽의 역할을 해 천연적인 방어 요새가 되었다. 돌쩌귀 유물이 발견되는바 남쪽이 낮은 지형이라 쇠문을 달아 적을 방비했다는 내용이 마을 사람들에게 구전되고 있었다. 당시 항전 당시 쇠붙이를 모두 모아 쇠문을 만들었다고도 하고 삼별초의 배에 실어서 왔을 것이라고도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통정이 도망을 가면서 밭을 짰다는 헛부리물에서 쇠방석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사실 아기업개가 말한 불무질은 쇠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화약무기’라는 몽고군의 공격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진도와 제주도 전투에서 “불을 지르고 협공하니 적(삼별초)이 놀라 무너졌다.”라든가, “관군이 외성을 넘어 들어가 불화살을 4번 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고 적(삼별초)의 무리가 크게 혼란되었다.”⁸²⁾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진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던 몽장 혼도는 화창(火槍), 화포(火砲)등을 쿠빌라이에게서 받았다.⁸³⁾ 몽골군의 화포는 최무선이 고려 말에 화통도감(火筒都監)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화포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⁸⁴⁾

81) 김일우, 앞의 논문, 17쪽.

82) 『고려사』 김방경전, 윤용혁, 앞의 책, 192~194쪽에서 재인용.

화약무기는 1274년(충렬왕 즉위) 여몽군의 일본 침입에서도 사용되었다. ‘철포(鐵砲)’라는 명칭으로 『몽고습래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철포로 철환을 발사했다. 발사하면 사방에 화염과 연기가 치솟아 주위를 모두 덮어버렸다. 또 소리가 우레와 같아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관련 기록도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향파두성을 진압할 때 쏘았다는 ‘불화살’에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했다.”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83) 『원고려기사』 지원 8년 5월, 윤용혁, 앞의 책, 192~194쪽에서 재인용.

84) 디지털영천문화대전 - 최무선 검색.

최무선(1325~1395)은 고려시대 무인으로 화통도감(火筒都監)을 설치하여, 대장군포(大將軍砲)·이장군포(二將軍砲)·삼장군포(三將軍砲)·육화석포(六花石砲)·화포(火砲)·신포(信砲)·화통(火筒)·화전(火箭)·철령전(鐵翎箭)·피령전(皮翎箭)·질러포·철탄자(鐵彈子)·천산오룡전(穿山五龍箭)·유화(流火)·주화(走火)·

최근의 발굴 유적 중에서 명문기와편은 신축년(1241) 2월에 ‘돈미’라는 고대 촌 장인에 의해 기와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향파두성 축조시 관청 기와를 가져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⁵⁾ 아울러 신촌현, 고내현, 괄지현의 고대 탐라시대 전체를 통하여 제주도식 토기의 출현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파두리 토성과 내성지에서 발굴되는 명문화는 무문토기를 만들던 문화 단계의 후대 계승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⁸⁶⁾ 향파두성의 축성에 사용된 이들 기와는 폐기된 기와들이고, 대량의 폐기된 기와가 삼별초가 제주도를 장악하기 전 이미 존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파두성의 축성에 사용된 이들 폐와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성내 혹은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와요지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인 것이다.⁸⁷⁾

2) 그 외 지역

안덕 지역의 설촌 유래에서 김통정과 관련된 곳을 찾았는데 지명 설화에 얽힌 구체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앞서 불미마당이 성했던 철기 제련지로서 안덕 지역과 김통정 설화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아래의 자료는 보다 확실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1) 서광동리: 구전에 의하면 이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700여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 사수가 불리해진 삼별초는 1272년 제주도로 들어와 향파두리에 외토성, 내석성을 쌓고 궁궐과 관아를 건축하면서 주민들을 대거 동원시켜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고씨, 김씨, 양씨가 탈출하여 이 지역 즉 자단리(自丹里)에 숨어 살았다 한다. 이것이 서광동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초이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촌락이 형성되고 인근 지역인 서광리, 동광리, 덕수리, 사계리로 확산되어 자단리가 되었다. 자단리와 가장 가까운 촌락

촉천화(觸天火)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였다.

최무선이 제작한 고려의 화약 무기는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화약의 개발은 중국에 비해 600년 이상 늦었지만 대표적 화약 무기인 화포는 중국 못지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포인 ‘원나라 지순 3년(1332) 동포’에 비해 40여 년 정도 늦을 뿐이다.

85) 강창화 외, 「제주 향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 『2017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역사문화학회, 2017.

86) 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47, 2015, 199~202쪽, 206쪽.

87) 윤용혁, 앞의 책, 301쪽.

이 서광동리이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넓개오름(광해약) 자리에 큰 사찰이 창건되었는데 이형상 목사가 입도하여 '당 오백, 절 오백'을 없앨 당시 소실되었다고 한다. 절이 있었다는 증거로는 절에서 사용하던 넓개물이 있으며 절터에는 지금도 많은 기와 파편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광동리가 인근 어느 마을 보다 먼저 설촌되었다는 것은 건곤(乾坤)자리라는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곤자리라는 지명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건곤은 '하늘과 땅'을 뜻하는데, 서광동리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자단리에서 내려다 보면 하늘이 땅 같고 땅이 하늘같이 편안한 지형이라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이 제일 먼저 살았으리라 추정하는 것이다.⁸⁸⁾

성산읍 고성리는 김통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명이나 설화는 많지 않지만 삼별초군이 진지를 구축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점으로 볼 때 애월면 고성리 지명유래담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속적인 근거와 함께 성산에 김통정 설화가 전해진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밖에 군대(軍隊)가 들어왔던 포구와 축성한 토성(土城) 등 관련된 이름들이 아직까지 지명에 남아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2) 고성리: 고성리 지역의 마을 형성을 거론할 때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1200년대부터 비롯했다고 말한다. 고려의 삼별초가 제주 지역을 거점 삼아 대몽항쟁을 전개하던 1217년 무렵 그 지위자 김통정이 군대를 인솔해 성산리 지역으로 들어와 일출봉 북쪽 허리에 진을 친 다음, 외성을 쌓고, 고성리 쪽에는 내성을 쌓음으로써 고성리 지역의 마을 형성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몽골은 1273년(원종 4) 고려의 마지막 항몽세력인 제주 삼별초를 평정한 뒤, 제주를 자신의 영토로 삼고, 1276년(충렬왕 2) 몽골말 160필을 갖고 와 수산평 일대에 방목하였다. 이후 대대적인 목장의 확장과 목축업의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할 때 고성리 지역도 수산평에 설치된 목장이 들어왔던 곳인지라, 마을도 들어서 있었다고 하겠다.⁸⁹⁾

이 마을은 '남작(南昨)', '남정리' 등으로 불려지다가 고려조 원종 때 삼별초군의 김통정과 유재섭 장군이 상륙하여 방어시설을 갖추면서 석성(石城)을 마을주위에 쌓아 이를 백산성(白山城)이라 했는데, 조선조 태종 2년에 정간(鄭幹)목사가 옛성터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고성리'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또한 이 일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이 잦아 한 번은 이들의 침입을 받고 성이 괴멸된 적이 있어 '괴성리'라고 불린다는 설도 있다. 지역주민들은 두 이름을 두루 사용한다.

조선조 태종 16년(1416) 5월에 제주가 삼읍으로 분할되면서 '고성리'는 정의현청의 소재

88) 제주도,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안덕면』, 2014, 161쪽.

89) 제주도, 『성산읍역사문화지』, 2010, 284-285쪽.

지가 된다. 그러나 바다가 가까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하여 수산리로 옮겨지고 이후 1609년에는 정의현 좌면 면역소 소재지가 되었다가 1915년 정의면 고성리로 1933년에는 행정리 '고성리 1구·2구'로 나뉘었는데 1951년 4월에 이르러 1구는 '고성리'로 2구는 '신양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른다. 지금 이 마을은 제주섬의 동부 중심지로서 성산읍 청사 소재지를 비롯 각종 관공서와 공공시설이 들어섰다.⁹⁰⁾

(3) 오정개: 고산리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오정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정개'는 일출봉 북쪽 포구로 성산포 중심지에서 바로 동쪽에 위치한다. 이곳 일대에서는 적갈색 경질토기가 출토되고, 이는 기원전 1세기~5세기에 사용했다고 본다. 이로써 성산리 지역은 1,500여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겠다. 7세기 중반 이전의 일로서는 일본인 진수길상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특사로 갔다. 백제를 거쳐 귀국하는 도중에 풍파를 만나 성산포 구에 표착한 일이 있는 후 일본인들의 왕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한 13세기 중반에 몽골 황제 쿠빌라이, 즉 훌필렬이 일본 정벌에 나설 때 성산포에서 발진·공격할 것으로도 이야기하곤 한다. 한편, 고려의 삼별초가 제주도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대몽항쟁을 전개하던 1272년 무렵 그 지휘자 김통정이 군대를 인솔해 성산리 지역으로 들어와 일출봉 북쪽허리에 진을 친 다음, 방어 시설로서 토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도 그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고, 그 토성의 안쪽을 '토성안'이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이로 봐서 성산리 지역은 13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마을이 들어서 있었다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⁹¹⁾

(4) 덕수리: 덕수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어떻게 설촌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덕수리가 과거에 속했던 대정현에 대한 유적과 문헌상의 기록을 통하여 덕수리의 설촌 연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정 지역에 대한 유적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이 안덕면 대평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상모리 송악산에 있는 산이수동유적에서는 구멍띠토기와 붉은토기, 검은토기 등의 토기편 및 마제석부, 그물추, 공이 등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 기원전 5~4세기로 추정되며 제주도에서 발견된 토기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유적으로 보아 지금의 대정 지역에는 청동기시대에 벌써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정 지역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탐라지』 건치연혁조에 1300년 탐라를 동서도로 양분하고 14개의 현촌을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현촌 중에 산방(山房)이라는 현촌이 들어 있다. 덕수리에도 당시에 비록 집단적인 취락은 형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소수의 사람이 살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다. 덕수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유적과 기록상으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인 14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덕수리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⁹²⁾

90) 서귀포문화원 - 성산읍 고성리 검색. <http://seogwipo.org/>

91) 제주도, 『성산읍역사문화지』, 2010, 275~276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월읍과 성산읍은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며 설촌의 역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김통정과 관련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성을 쌓으며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 지역민들이 김통정 관련 설화를 전승시키고 향유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마을 설촌의 역사 중에서 특이한 지역이 안덕이다. 한라산신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광양당과 아우 광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의 설촌 시기가 14세기라는 점은 당시의 좌정 시기도 다른 두 지역에 비해 100년가량 후대의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광정당 신앙민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여 이 지역에 설촌을 하였을 가능성과 고려 후기인 14세기 마을 조직과 무속의 성장으로⁹³⁾ 인한 당신화의 파생 등 사회·문화사적인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

설촌 유래로 볼 때 광정당신화는 애월이나 성산의 당신화보다 더 후세에 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정당신화는 김통정의 설화가 갖는 온전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지역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광정당신화가 개작되고 변형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⁹⁴⁾ 기존 연구에서는 광정당신화가 주변의 당신화와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광양당신 이야기에 김통정 이야기가 혼착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⁹⁵⁾ 이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역사적인 고증과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지명 유래답은 인물 전설의 구체적 증거물로 이야기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주며, 설화의 화소로 등장하는 민속적 요소를 통해 당시의 생활사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설촌 유래와 당시의 좌정 시기를 추측하는 단서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92) 제주도, 『안덕면지』, 2006, 181~182쪽.

93) 주강현, 『국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58~68쪽.

민간의 향도가 등장한 것은 고려말기로 짐작되며, 기존 민중조직 자체의 연대과정으로서 생산주체의 자주적 조직이 자리잡는 과정이다. 13·14세기경 향촌사회인 리에 사회안정시책으로 향약이 보급되었다. 향도들은 마을곳에 대해 대하여 매우 중요한 모태가 되는 셈이다.

94)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95~332쪽, 인용.

현용준은 삼성신화는 본래 삼성씨족 조상 본풀이요, 삼성씨족이 숭상하던 당본풀이적 성격을 가진 신화였다고 지적한다. 고기(古記)등이 작성된 시기를 고려 11세 중기인 문종대(1046~1083), 탐라 출신 고유(高維)가 중앙관직에 취임할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고려사지리지 탐라현조 서두에 인용된 고기는 문종 11년(1057) 고유의 중서성 유습유의 임관을 위해 제출한 행권가장과 같은 종류의 서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기류가 후에 조선 초기에 고씨 가문의 삼신인 설화의 모체가 되었다. 또한 이것이 조선왕조 세종대(1418~1459)에 고려사지리지 탐라현조 서두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95) 권태효, 앞의 논문, 170~175쪽.

3. 당신화

1) 애월 지역

당신화(堂神話)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당신의 내력이면서 동시에 마을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⁹⁶⁾ 마을 사람을 보호해주는 당신의 내력이면서 동시에 마을 사람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즉 당에 매인 심방이 당신의 이야기를 구술하면, 듣는 마을 사람들도 그 내력이 자신의 내력과 비슷함을 깨닫고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된다. 그리하여 당신의 내력담은 마을 사람들 마음에 쌓여있는 한도 풀어낸다. 심방이 당신의 내력담을 구송하면 그 내용이 마을 사람들의 처지와 비슷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당신의 내력담이 사람들 사이에서 향유되어 성장해 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이 녹아들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신화에는 신앙양식과 사회 상황과 관련된 사실들과 마을 사람들의 삶의 단면들이 반영되고 있다.⁹⁷⁾ 마을 당신의 본풀이는 그 마을의 역사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함께 성장·발전하면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존재하게 된다.⁹⁸⁾

당과 마을은 신앙과 신앙민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 제주도 자연부락의 형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물 문제와 농업, 목축, 어업 등 실생활적 측면, 왜구나 관의 침탈 등에 대비한 중산간으로의 이주, 그리고 신

96) 당신화는 마을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좌정 유래담과 마을신으로 보이는 능력을 설명하는 영험담을 말한다.

97) 현길언, 『제주 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년, 20~23쪽.

제주도 내에는 자연마을마다 1-2개씩 당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분포로 봐서 사람들은 마을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의 과정 중에 당에 매인 심방이 당신의 내력을 구송하는데 이것이 본풀이다. 그런데 이 본풀이는 종교적인 엄숙성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일상사와 밀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의에서 구술되는 당신의 내력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98) 현길언, 앞의 책, 60~61쪽.

허기와 좌절의 당신들에 투영된 제주사람들의 의식은 한스런 삶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저항적 측면도 있다. 그것은 삶의 진지성과 통한다. 이 저항과 한스러움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본풀이에서는 힘없는 신으로 좌정하여 마을 사람들과 공생하는 인간적인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불운한 신을 신앙함으로 신의 이야기가 더 현실성을 띄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구체화된다. 당신 본풀이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몰락한 신에서 인간으로 변신하는 특별한 인간의 이야기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본풀이는 인물설화를 낳게 했다.

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로서의 부락 형성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부락수 만큼이나 그 사연이 기구하고 많은 것이 특징이다.⁹⁹⁾ 설촌(設村)의 과정에는 마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장주근은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¹⁰⁰⁾에서 당신화의 내용구조를 통해 발달단계에 대한 체계를 세웠다. 김통정과 관련한 당신화도 내용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각 편들의 내용상 완성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신화는 마을의 설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과 쇠락을 거듭하였다. 당신의 좌정경위를 마을 설촌과 관련지어 당신의 계열관계를 통한 발달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신화의 변화 과정을 역사·사회적인 관점에서 체계를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통정 설화의 전승지인 애월읍 고성리, 안덕면 감산리(덕수리), 성산읍 고성리 지역의 설촌 내력과 당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김통정의 어머니는 출생이 분명치 않다. 개성의 부잣집 딸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과부, 처녀, 중국 조정승의 딸, 몽고 왕족 혹은 천자국에서 왔다고 전해진다. 이는 김통정의 출생과도 관계가 있는데 당신화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과 해결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까지 김통정과 관련된 당신화로 전해지는 지역은 애월면 고내리 및 금덕리, 성산읍 삼달리와 성산리, 안덕면 덕수리이다.¹⁰¹⁾

99) 고창석 외, 「자연부락 수만큼이나 많은 설촌(設村)에 깃든 사연들」, 앞의 책, 113~114쪽.

우선 신앙공동체적인 면에서의 설촌을 보자. 부락마다 거의 수호신으로 ‘본향당신’이 좌정해 있으면서 부락과 부락민을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다. 이 당신들의 내력 신화인 ‘당본풀이’에는 당신이 어느 부락을 차지해 마을을 열고, ‘단골(신앙민)’들의 제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신앙공동체로 묶여진 설촌 이야기가 나온다. 제주도에에는 당마다 독특한 당신본풀이가 전해 오는데, 그중 제주도 당신화의 발상지로 알려진 구좌읍 송당리의 송당본풀이를 보면, 현재 ‘웃송당’에 백주할망이, ‘알손당’에 소천국이 좌정해 있다. 이 백주할망이 송당리를 설촌한 것이 대충 1천 5백 년 전이라 하니, 그 아들, 딸, 손자가 좌정해 있는 부락들은 설촌 년대가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주도의 부락형성은 대체로 삼백 년에서 오백 년 쯤에 기틀이 잡히는데, 이 시기는 조선왕조 초기에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난 시기까지 해당된다. 조선초기에는 두 왕조를 섬기지 않으려는 고려 유민들이, 그 후에는 난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이 부락을 열기도 하고, 기존 부락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00) 당신화는 ‘기원형, 기본형, 성장형, 완성형’의 발달 단계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완성형은 “㉠남신입도-㉡좌정경위-㉢여신입도-㉣결혼-㉤식성갈등과 별거”의 구조로 되어 있다.

10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당신본풀이 지역별 전승자료, 민속원, 1991.

* 구술시기 : 1956년 3월~1963년 7월.

구분	전승지	무가명	구연자
A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①	양태옥(애월면 신엄리, 남무, 당시42세)
B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②(큰당)	양창보(애월면 애월리, 남무, 당시30세)
C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⑤(신도본향)	고경삼(애월면 고내리, 신여, 당시64세)

김통정이 당신화에서 구전되는 애월읍 고내리는 일반적인 내용인 고내본향 본풀이가 전해온다.

옛날 탐라 때 제주도가 축산과 생산이 좋다고 하니 대국 천자국에서 김통정을 제주로 보내어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김통정은 모든 생산이 탐나 향파두리에 토성을 쌓아 쇠문을 달고, 성 위에 재를 깔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 말을 몰아 재를 날려 온 섬을 감추어 숨어버렸다. 김통정이 돌아오지 않자 천자국에서는 다시 황서, 을서, 병서 삼장수를 보내어 붙잡아 오게 하였다. 삼장수가 김통정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어떤 계집아이가 삼장수를 비웃으면서 무쇠문을 불로 달구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삼장수는 계집아이의 말대로 무쇠문을 불로 달구니 문이 녹기 시작하였다. 김통정은 할 수 없이 임신 중인 아내를 죽여두고, 무쇠방식을 수평선 근처 관탈삼을 향하여 던지니 방식이 물에 뜨므로 그 위에 올라앉았다. 황서는 새로 변신하여 김통정의 머리 위에 앉아 괴롭히고, 을서는 새우로 변신하여 김통정의 다리를 괴롭히니, 김통정의 목이 흔들리면서 비늘이 들쳐졌다. 병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장도로 목을 베어 죽였다. 삼장수는 김통정의 목을 상관에 바쳤다. 한편, 용왕국 벨궁즈따님아기는 부모에 불효한 죄로 귀양을 당하여 고내봉 팽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삼장수는 벨궁즈따님아기의 고운 얼굴에 반하여 고내리로 찾아와 고내리 토지관, 곧 본향신이 되었다. 힘센 세척하르방이 낚시를 갔다 오다가 본향당에서 굿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토지관이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모시라고 야단쳤다. 이리하여 세척하르방도 따로 모시기 시작하였다.¹⁰²⁾

고내리본향당의 김통정은 설화에서 사용된 화소가 그대로 전해지고, 뒷부분에 삼장수와 용왕국 벨궁즈따님아기가 결혼하여 당신이 된 내력담이 덧붙여진 형태이다. 김통정 이야기가 당의 좌정담에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데, 설화와 달리 김통정 장군이 삼장수에 의해 징치된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화는 신앙민의 요구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사회적·정치적 영향을 받고 재생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堂神)은 죽어야만 신(神)이 되는 운명을 타고 났다. 김통정 장군은 비록 민중의 영웅이었고 기운이 센 원신이 되었지만, 그 지역에

D	애월면 고내리	고내본향당본풀이⑥(고내본향)	진유아(애월면 납읍리, 여무, 당시65세)
E	애월면 금덕리	금덕리당	고일부(애월면 금덕리 여무, 당시 70세)
F	성산읍 삼달리	삼달본향당본풀이①	한기신(성산면 온평리, 남무, 당시49세)
G	성산면 성산리	성산본향본풀이①(장수당)	신명근(표선면 표선리, 남무, 당시 68세)
H	성산면 성산리	성산본향본풀이②	조옥순(성산면 수산리, 여무, 당시49세)
I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본풀이	고창학(안덕면 창천리, 남무, 당시69세)

102)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7, 29쪽.

진유아(애월읍 납읍리, 여무, 당시 65세), 고내본향당본풀이⑥(고내본향)

좌정한 더 강한 신에게 밀려나는 모습으로 민중들에게 요구된 것이다. 몽고군에 의해 패배한 김통정 장군은 이후 몽고가 통치한 100여년 동안에도 정치당한 장수로 남아있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신화에서 ‘남신의 입도’는 당신본풀이가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가장 잘 허구화한 부분으로서 세 남신은 천자국, 초나라 화양땅, 황서국으로 중국의 삼장수 또는 여몽연합군으로 변개시키면서 외래신인 김통정을 진압하고 신으로 좌정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다.¹⁰³⁾

고내리본향 진유아 본에서 삼장수는 천자국에서 도래하지만, 양창보 본에서는 초나라 화양땅에서 도래하였다. 중국의 삼장수는 김통정 장군을 징치하는 외국 세력으로 몽고군을 의미한다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천자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통칭하는 지명이므로 중국을 통치하고 있던 원나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구조가 완전한 완성형 당신화에서 초나라라고 지칭한 것에는 단순한 지명의 오류 이면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김통정을 제거하는 대상인 삼장수는 몽고군이라 할 수 있다.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군을 초나라에 비유한다고 보면 몽고를 중국의 변방국이며 쇠락의 역사를 겪을 것임을 비하하는 전승자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도 있다. 김통정을 징치하는 무서운 장수를 당신으로 섬기면서도 몽고군을 대하는 민중의 부정적 시각이 덧입혀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유수암당은 옛날 유수암리가 설촌할 때 김장수가 설립한 당이다. 김장수 시절 고내오름에 굴레 벗은 말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 남의 곡식을 다 먹어버려도 붙잡지 못하였다. 하루는 김장수 꿈에 산신대왕, 산신백관이 나타나 말을 잡을 방도를 알려주었다. 김장수가 말을 붙잡아 올라탔더니 순식간에 제주 삼읍을 돌아오곤 하였다. 어느 해 중국에서 쳐 들어와 마을 재물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겁탈하였다. 김장수가 제주목사에게 가서 사령을 빌려다 성제오름에 매복시켜두고 적군을 유인하여 한꺼번에 붙잡았다. 그 공으로 건공장군 벼슬을 받았다. 그 후에 김장수가 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하는 당을 설립하니 마을 사람들도 무심할 수 없어 함께 모시기 시작하였다.¹⁰⁴⁾

금덕리당(유수암당)은 김장수를 김통정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김통정 설화에서 보인 비늘과 날개, 쇠방석 등 대표적인 화소들이 없기

103) 이남옥, 앞의 논문, 25쪽.

104)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7, 47쪽.

고일부(애월읍 금덕리 여무, 당시 70세), 금덕리당.

때문이다. 신비한 말의 출현과 영웅 장수로서의 면모가 부각됨을 볼 수 있다. 그는 꿈에 산신백관이 현몽하여 신비한 말을 잡아타는데, 여기에 나타난 말은 아기장수와 같이 출현하는 용마와 같은 존재로 김통정의 영웅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통정이 타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주 삼읍을 돌아올 정도로 그 비범성이 드러난다.

이처럼 빼어난 장수로서의 영웅적 기질을 상징하기 위해 말이 비범하고 신이 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는 현상은 장수나 장군의 설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빼어난 장수였던 김통정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쳐들어와 마을의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하는 것을 짐장수가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진압 후 몽고가 약 1세기 동안 제주를 지배하면서 몽고의 억압과 횡포의 수탈을 표현한 것이라¹⁰⁵⁾ 볼 때 위 당신화의 짐장수를 김통정 장군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의 주석에 대한 의문 제기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나 당신화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2) 안덕 지역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신은 김통정 장군을 물리친 장수로 모셔지고 있다. 옛날에는 광정당이 있어 운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당굿을 크게 벌렸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규모 있는 굿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광정당신화를 소개한다.

김통정이 항파두리에 들어와 토성을 쌓고 위에 재를 깔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달리게 하니 세상이 캄캄해졌다. 이에 광양당, 선양당, 광정당의 신 세 형제가 김통정을 잡으러 갔다. 김통정이 무쇠방석을 바다에 던져놓고 날아가 깔고 앉았다. 용왕이 새의 몸으로 변신하여 방석을 잡아당기니 김통정은 매가 되어 달아났다. 큰형 광양당신이 따라 날아가 김통정이 목을 든 틈에 비늘 사이로 찢러 죽였다. 삼형제는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가렸다. 큰형이 쏘 화살은 정의와 대정 사이에 떨어져 정의와 대정의 경계를 삼았다. 둘째가 쏘 화살로는 제주목과 정의 경계를 삼았다. 막내가 쏘 화살은 제주목과 대정 사이에 떨어져 그곳을 제주목과 대정의 경계로 삼았다. 그리고 큰형은 제주목 광양당, 둘째는 정의 선양당, 막내는 대정 광정당

105) 이남옥, 앞의 논문, 28~29쪽.

에 좌정하였다.¹⁰⁶⁾

광정당신화는 외래적 존재인 김통정을 제주도를 대표하는 한라산신이 징치하였다고 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징치하고 활을 쏘아 차지할 땅을 정한 뒤에 당신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볼 때 당신의 좌정 시기를 추측할 수도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김통정과 싸우는 과정에서 도술시합을 하였다는 내용은 해모수와 화백, 수로와 탈해의 경쟁을 보는 듯하며, 활쏘기를 통하여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살 곳을 정하였다는 내용은 삼성신화에서도 보인다. 다양한 화소를 지닌 광정당신화를 통해 그 당시 신앙민들의 의식을 살펴보는 작업도 의미 있을 것이다.

서촌 양반 3형제인 토착당신들은 외지에서 온 장수가 제주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에게 부역을 담당하는 등 제주도민들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삼형제가 나타나 김통정을 물리쳤다. 김통정을 잡아서 그를 물리쳐야 제주도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둔갑을 해서 달아나는 김통정을 큰형님인 광양당신이 퇴치하였다. 한라산신인 토착당신이 외래신을 퇴치한다는 것은 제주민들이 겪었던 역사적 시련과 고통을 극복한다는 뜻이기도 하다.¹⁰⁷⁾

그러나 안덕면 광정당신화는 삼성신화와 매우 유사한 화소와 이야기구조를 갖는다. 삼신인(三神人)이 삼장수(三將帥)로 바뀌어있고, 사시복지(射矢卜地)하여 탐라국이 아니라 당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삼성신화와 영향 관계에 있으나 화소에 있어서 광정당본풀이에 원형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삼성신화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탐라국 개국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화적 장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고려시대에는 탐라가 제주가 되었다가 다시 탐라로 바뀌고 원의 직할지로 되는 정치·역사의 격변기를 맞이한다. 외세의 농간 속에 반복된 탐라와 제주의 명칭 변경, 이것은 주변의 두 외세 사이에서 시달렸던 제주 사람들의 아픔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¹⁰⁸⁾

106)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7, 40쪽.

107) 이남옥, 앞의 논문, 22쪽.

108) 이영권, 『다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73쪽.

제주에 '탐라'라는 이름을 잠시 회복한 것은 삼별초 항쟁이 끝나고 제주가 몽고의 직할지가 되었던 1273년 무렵부터다. 탐라국 초토사, 탐라총관부라는 명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를

광정당신화는 당시 탐라인의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탐라인의 자긍심을 외래신의 징치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세력인 고종달을 퇴치한 광양당을 고려 시대 국가 차원의 호국신사로 대접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¹⁰⁹⁾

조동일은 탐라국의 건국서사시를 서사시의 유형 가운데 '영웅서사시'로 분류했다.¹¹⁰⁾ 1451년(문종 1년)에 완성된 『고려사(高麗史)』권 57 지(支) 제11 「지리조」에 실려 있는 기사는 탐라국의 건국이 제주도 역사의 어느 단계에 이루어지고, 어떤 의의를 가졌는지 건국서사시가 잘 말해준다. 수렵민인 원주민과 농경민인 이주민이 원주민의 주도하에 서로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결합한 것이 발전의 기초였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상활동을 통해 군사력을 기른 세력이 대내적인 통합을 성취하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를 창건했다. 탐라는 백제, 신라, 일본 등에 비해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그 어느 쪽과도 당당하게 겨루고 대등하게 교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광정당신화와 삼성신화의 유사성¹¹¹⁾에 주목을 한다면, 고려나 원의 지배에서 고통 받

고려에서 완전히 떼어내야 몽고가 제주를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 뒤 충렬왕 20년(1294)에 원 제국의 세조 쿠빌라이가 죽자, 고려는 다시 탐라를 고려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원은 고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다음 해인 1295년에 탐라는 다시 제주목으로 변신했다. 제주라는 영토는 돌려주었지만 여전히 말을 징발하는 권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5년 후인 1300년에 몽고는 또 다시 탐라총관부를 설치함으로써 고려로부터 제주를 환수하였고 제주도는 다시 탐라가 되었다.

109) 이영권, 앞의 책, 234쪽.

본성적으로 중앙 권력은 지방의 무속신앙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무속신앙이 강할수록 중앙 권력의 영향력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탄압할 수도 없었다. 때론 회유하여 중앙의 체제 내로 포섭하는 게 상책이기도 했다.

110) 조동일, 『지방문화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30~131쪽.

<천자또마누라본>·<김녕괴내깃당본풀이>·<송당본향당본풀이> 같은 것들은 두 대에 걸쳐 전개된다. <삼성신화>로 기록된 <삼성본풀이>는 한 대로 끝났던지 두 대까지 이어졌던지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정치적 지배자로 등장한 남성영웅이 권력을 장악해 나라를 세우는 위업을 달성한다. 탐라국은 <삼성신화> 말미에서 묘사한 것처럼 평화롭게 농사를 짓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건국의 영웅이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을 벌인 곳이다. 부모 대만 기록에 올린 이유는 수렵을 하는 남자와 농사를 짓는 여자는 생활방식과 식성이 달라 충돌한다고 구전에서 거듭 말하는데, 기록에서는 양쪽이 화합하는 모습만 전했다. '양을라'·'고을라'·'부을라'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고 하지도 않았다. 세 가문 후손들이 바라는 화합이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려고 탐라국 창건 세대가 벌인 더욱 격렬한 투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피로 얼룩진 영웅서사시를 평화스럽게 시작된 역사로 바꾸어놓고자 해서 전반부의 <삼성본풀이>만 발췌해 <삼성신화>로 옮겨놓았을 것이다. <삼성신화>의 기록자들은 고대는 망각하고 중세의 사고방식으로 과거를 회고하면서, 탐라국의 주체성을 선양하는 대신에 중앙정부 지배 하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에 만족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를 떠나 중앙정부가 있는 곳으로 이주해 지배층의 신분을 얻고 영달하자 생각이 달라졌다. 그러나 제주도에 남아 고난을 겪는 탐라국의 유민들은 중앙정부의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항거의 주역을 칭송하는 영웅서사시를 노래하고 영웅전설을 이야기한다.

111)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330~333쪽.

활을 쏘아 사냥을 하던 바람운이,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한다는 문맥은 탐라국 건국신화의 3신인이

던 민중들은 탐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바라는 민중 의식이 광정당신화를 이 무렵에 전승시키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다.

김통정이 등장하는 당신화는 그의 비극적인 일생이 삽입되면서 인물전설과 공유하거나 변이된 양상들을 보이면서 직접 당신이 되거나 다른 인물이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이 담겨 있다. 광정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이 당신으로 좌정하지 않는다. 김통정 장군이 당신으로 좌정하지 못한 것은 그 원형이 후대에 제주도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진 광정당 신앙민에 의해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 또 애월의 고내본향과 같은 계통의 것이 안덕에 오면서 삼장수 대신에 토착당신 삼형제가 설정되면서 김통정의 정치 모습이 호종단이 퇴치되는 것과 혼착되어 전해졌을 수도 있다.¹¹²⁾ 호종단설화는 성산에도 전해지고 있지만 김통정이 당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만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군계 당신화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도움으로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생각에서 신격화된 것이다.¹¹³⁾ 김통정을 비범한 장군으로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장군의 못다한 한을 민중들이 풀어주는 일반적인 장군계 당신화가 아닌 점에서 그 원형이 신앙민의 요구에 따라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성산 지역

성산읍에서는 삼달본향당과 성산본향당, 성산본향당(장수당), 세 곳에서 당의 내력담으로 김통정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위의 두 지역에 비해 내용이 간단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다가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한다는 신화소와 매우 닮아 있다. 서귀본향을 비롯한 광정당, 토평본향 등 서귀포 몇 곳에만 오래된 신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112) 권태효, 앞의 논문, 170~175쪽.

113) 홍태한, 「설화와 민간 신앙에서의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 『설화』, 민속원, 2008. 608~614쪽.
역울한 죽음을 당한 장군을 숭배하여 신인으로 모시고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외의 것을 장군이 대신해서 풀어 준다는 것이다. 못다한 능력을 민중들이 대신해서 풀어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에서 민중들의 한풀이 의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역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을 풀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드러난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위는 사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민중의식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인 인물은 죽은 후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욱이 아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하게 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능력의 발휘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에서 민중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제주도민에게 장수물을 제공한 장수로 기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당신화 세 편을 소개한다. 삼달본향당은 세 당신의 좌정과 김통정 집안이 상단골이 된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성산본향(장수당)에서는 당신의 좌정경위와는 무관한 마을의 설촌 내력담을 나타내고 있다.

황서국서 어매장군은 서울 장안 황서나라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황서나라는 병이 들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한 스님이 지나가며 황소의 피를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황서나라는 세 아들에게 황소의 피를 뽑아달라고 하였으나 첫째와 둘째는 거부하고 막내 어매장군이 그리 하겠다고 하였다. 어매장군은 황소를 끌어다가 문에 매고 도끼로 쳐서 황소를 기절 시킨 뒤에 피를 뽑아 아버지에게 먹였다. 이렇게 하여 살아난 아버지는 어매장군에게 역적으로 몰려 죽을 테니 피난을 하라고 일렀다. 어매장군은 제주도 별도 주전포로 피난하였으나 삼원관속이 보기 싫고 성읍 명당마루에도 삼원관속이 무죄한 백성을 타살하니 보기 싫어 삼달리 신남밭에 좌정하여 당신이 되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김통정의 꿈에 선물을 하였는데 자신의 제를 지내달라고 하였다. 김통정 할아버지가 신남밭에서 어매장군 제를 지냈더니 주사직함이 나오고, 서울로 가서 황서국서가 내 자식을 상단골로 하면 통정대부 벼슬을 내려주겠다고 하였는데 통정대부 직함이 내려오자 통정대부 신위를 내어주었다. 이리하여 삼달리 김씨 단골은 상단골로 하고 그 다음은 다 각처 단골로 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주고 동네까지 합숙을 하고 김씨 할아버지를 상단골로 하고 전대전손을 대대로 당에서 모시게 되었다.¹¹⁴⁾

삼달본향당신화에서 김통정은 통정의 직위를 받은 사람일 뿐 김통정 장군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김할아버지를 주석에서 김통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주변의 성산본향(장수당)에서 김통정이 당신으로 좌정하는 것을 미루어 김통정이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역적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주에 새로운 질서가 생성될 수 있는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의식을 뜻하며, 사회가 거부하는 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폐쇄된 사회현실과 당시 도덕률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성산본향당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물을 제공하는 뛰어난 장수로 묘사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¹¹⁵⁾

통정대부와 건공장군으로 김통정 장군에게 직함을 내리는 것은 조선시대에 개

114) 진성기, 앞의 책, 한기신(성산명 운평리, 남무, 당시 49세), 삼달본향① 요약.

115) 이남옥, 앞의 논문, 30쪽.

작되어 전승되었으며 문신과 무신, 통치자이자 수호자(장수)로서 김통정 장군에 대한 당시 민중의 기대와 요구를 담고 있다. 김통정은 탐라에 있어서 돌연히 부각된 절대적 지도자였지만, 단순히 삼별초 집단의 수장인지, 아니면 독립정부의 왕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¹¹⁶⁾ 김통정 설화가 다양한 화소를 지닌 것은 후대에 구술자(심방)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감추고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 유명한 이야기를 덧붙여 개작하여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⁷⁾

황바두리 짐통정 장수님이 동서문을 잡아가지고 억만명 팔만명 군사를 하로 한꺼번이 누런 풀 베어가듯이 몰살을 시켜두고 성산마을을 물설기 보아, 샘물통을 파고 인간 가호 설치하고 그 인간이 먹을 물을 파고 다 전하였다.¹¹⁸⁾

황바도리 짐통정 짐장수, 만리토성 둘러오듯 삼천병마 신두본향(神都本鄉) 살려 오십시오. 제일 자손에 생기 맞은 날.¹¹⁹⁾

성산분향에서는 기본형과 설화형의 구조를 이루며 서사단락이 짧아 단순히 신의 본(本)만이 풀이되고 있다. 이는 당신에게 내용을 기원하는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통정 당신화의 원형이라 볼 수 있는 점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

또한 김통정 장군이 만리토성을 쌓고 수 많은 군사를 거느린 장수의 위엄을 당신화에서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햇부리물’ 전설에서 보여준 식수를 마련해 준 동기를 당신화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애월의 당신화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지역은 성산을 중심으로 환해장성이 쌓여져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에 1270년(원종 11)에 김수와 김여림이 삼별초의 제주입도를 막기 위해 약 300여 리에 걸쳐 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의 축성과정에서 고려정부군이 이곳

116) 윤용혁, 앞의 책, 275쪽.

진도에서는 고려의 왕족을 세워 정통 고려정부를 자처하였는데, 탐라에서 어떤 위치를 설정하였을 까. 탐라 삼별초에 있어서 정통성과 정체성 확보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117) 주강현, 『국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76쪽.

팔천(八賤) 가운데 하나의 신분으로서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하대를 당하면서 그 자신 노동에 종사 하며 민중의 여러 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마을의 사제였다는 점이 단골의 민중성을 보장하는 밑바탕이기도 하다. 사회 밑바닥의 가장 비천한 신분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일 중의 하나인 ‘민중의례’를 집행한다는 역할도 단골판을 근거로 해서 성립하게 한다.

118) 진성기, 앞의 책, 신명근(표선면 표선리, 남무, 당시 68세), 성산분향①(장수당).

119) 진성기, 앞의 책, 조옥순(성산면 수산리, 여무, 당시 49세), 성산분향②.

지역민들에게 가혹하게 부역을 강요한 탓에 그 반감이 김통정을 신격화하는 당신화를 형성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김통정이 당신으로 신앙시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신적 면모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¹²⁰⁾

수산리는 몽고군이 제주도에 처음으로 말 목장을 세운 곳이다. 몽고군의 횡포와 만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신앙민들이 당신화에서 김통정을 긍정적 신격으로 묘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통정 설화에는 말에 대한 화소가 많이 등장한다. 고내 본향당이나 금덕리당 이야기에서 김통정이 말을 다루는 능력으로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그만큼 제주민들에게 말을 다루는 능력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었다.

제주민들은 고려중엽부터 진상이라는 명목아래 특산물을 헌상하면서 고려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에 시달렸다. 국가에서 원나라에 간다든가 또는 정벌을 원조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지방관에게 말을 바치도록 하거나 또는 계급에 따라서 관료에게 할당시켜서 경비를 거두기도 하며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좋은 말을 빼앗아 들이기까지 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매우 고통으로 여겼다.¹²¹⁾

고려와 원나라 양국에 헌상하는 과중한 세공과 관의 관원, 고래의 경래관, 성주·왕자 등 삼중으로 지배층의 토산물 징발에 의한 수탈은 물론 때로는 탐관오리의 극심한 가렴구주와 탐관과 결탁된 권력층 토호들의 농지 강점 등으로 인권은 극도로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었다. 몽고는 목축사역의 구실로 초적죄인을 데려오고 이들이 목호의 난을 일으켜 2만 5천의 최영 장군의 군대가 제주를 진압하러 오는 제주 최대의 사건이 이 지역의 목장에서 비롯된 것이다.¹²²⁾ 이러한 말목장은 조선시대 정조대에 국영목장이 폐지되어 마을 주민들

120) 권태효, 앞의 논문, 168쪽.

121) 『원고려기사』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충렬왕 14년(1288)에는 제주에 말을 방목하여 번식시켜서 궁중의 승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여러 왕과 재신, 문무 관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탐라도에서 산출되는 것이 가장 많았었다. 그러다가 역적(삼별초)의 반란이 있는 뒤에 원나라에서 섬에 거주하는 백성을 육지로 옮기고 탐라를 따로 원나라에 소속시킨 뒤로는 말의 사육이 잘 되지 아니하여 해마다 공출량이 매우 줄어들었다. 국가에서 원나라에 간다든가 또는 정벌을 원조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지방관에게 말을 바치도록 하거나 또는 계급에 따라서 모든 관료에게 할당시켜서 경비를 거두기도 하며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좋은 말을 빼앗아 들이기까지 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매우 고통으로 여겼다. 재인용.

122) 제주도, 『성산읍역사문화지』, 2010, 740~742쪽. 제주도, 『수산리지』, 1994. 재인용.

1273년(원종 14)에 삼별초군을 여몽연합군에 의해 항파두리성 일대에서 평정 한 후 이 곳에 일본, 남송 경략의 군마 공급지로 만들고자 몽골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1276년(충렬왕 2)에 탐날적을 총관부의 달로화적으로 임명하였고 몽골마 160필을 가져다 수산평에 방목토록 하였다. 이어 다음해에 고산리 일대(현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로 목마장을 확대한 것이 제주목장의 기원이 된다. 이 월진의 『탐라지(耽羅志)』의 제주건치연혁(建置沿革)과 김석익의 『탐라기년(耽羅紀年)』에는 1300년(충렬왕 26) 공녀 출신인 기황후(奇皇后)가 친정을 위해 제주도에 궁중에서 기르던 몽골마를 이곳

의 공동목장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유신시대에 국가시책으로 축산진흥정책과 초지재량자금의 융자 등으로 대규모 목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때 공동 명의로 신청을 했던 목장들이 지금은 후손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사에 휘말려 있다고 하니 수산리와 말과의 인연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¹²³⁾

성산 지역에서는 수산분향당 하로산또가 좌정하고 있다. 중국 대국에서 한라산에 귀양을 와서 바람웃드 소로소천국 아들자손 열여덟, 딸자손 스물여덟, 손지방상 일흔 여덟과 함께 제주의 한라산계 만이로 좌정을 하고 있는 당신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 지역은 '송씨할망당', '광정당', '수산분향당' 등 제주에서 신앙민이 많은 당문화권에 속한다. 비록 큰곳의 제차에서 소개되지는 않지만 김통정이 당신화에서 신앙민들 속에서 기억되었다는 것은 김통정 장군을 대하는 진정성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은 삼별초를 어떻게 보았을까? 송담천에서 고려의 김수·고여림 군대와 삼별초 이문경 군대가 제주 장악을 위해 전투를 벌인다. 이때 전사한 김수의 묘지에는 당시 제주 사람들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있다. “토착민이 관군에 협조하지 않고 적(삼별초)을 도왔기 때문에 패배했노라”고 한 부분이다. 중앙 관리에게 착취당하던 제주민은 민란으로 고려정부에 반기를 들다가 삼별초를 초기에는 옹호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 2천명 이상의 인

에 방목하면서 목마장의 말들을 관리하기 위해 몽골인 목축기술 전문가 목호(牧胡)들이 들어와 관리함으로써 말들이 크게 번성하여 산과 들에 가득 찼다. 동·서아막(東·西阿幕)의 말과 소는 몽골족인 목축전문가인 목호들에 의하여 사육되었다. 1368년(공민왕 17) 명나라에 의해 원나라가 망하자 명나라는 제주마 2000필을 공마할 것을 요구하자 고려는 말을 징마하기 위해 관원을 제주로 보내니 목호들은 이를 거부하고 관원을 살해하였다. 이를 ‘목호의 난’이라 한다. 1374년 7월 25일(공민왕 23) 칙서를 내려 최영장군을 도통사로 삼아 전함 314척에 병사 25,605명을 거느리고 목호의 난을 진압하였다. 1392년(공양왕 4)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조가 개국하였다.

123) 고장훈 외, 『우리 땅의 의미를 찾는 제주기행』, 백산서당, 1991, 115~116쪽.

제주의 목축 방식은 좀 특이하다. 개인 소유의 초지에 말과 소를 가두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록의 넓은 초원에 풀어놓아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방목했다. 대체로 봄에 산록으로 말과 소를 올려놓고, 여름이 지나 늦가을이 되면 데리고 내려와서 겨울 한 철은 건초 등을 먹이며 집에서 길렀다. 이렇게 방목된 말과 소의 관리는 한 마을에서 윤번제로 맡기도 하고, 지정된 한 사람이 돌보고 가을에 소출을 나누는 ‘반작’이라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내것 네것 없이 이렇게 뒤섞어 방목시키는 방법이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다소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중략… 정조 때부터 국영목장이 폐지되고 마을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주어졌는데, 그 때부터 마을 단위의 마을공동목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주민의 자유로운 방목지였던 초원에 대규모 목장이 들어선 것은 1968년부터였다. 정부에서 축산진흥정책을 내걸고 전국의 산간지대에서 축산을 하는 기업농에게는 초지재량자금을 융자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베풀자 대단위 목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축산정책이 실패하면서 목장조성은 한갓 토지 투기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현재는 중산간 초원지대의 70~80%가 외지인의 소유로 넘어가 버렸다.

구가 유입되어 생필품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조만간 큰일이라도 커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돌았을 것이다. 또 항파두성이나 환해장성 축조 때에는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고 불만이 커져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제주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군이 철수하면서 “원래 탐라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안심하고 살게 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관군이 삼별초와 제주민을 분리하여 대하고 있는 모습은 삼별초와 제주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고 양자가 긴밀하게 결합하지는 않았음을 말해준다. 어쨌든 탐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삼별초나 관군, 몽고군 모두가 똑같은 외세일 수밖에 없었다.¹²⁴⁾

김통정 장군이 당신화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김통정이 외지인이라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작용했거나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후 관에서 의도적으로 김통정을 부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¹²⁵⁾ 그리고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한 후, 그 곳에 몽고 및 고려군이 주둔하여 통치하게 되면서 그 역사적 사실과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처럼 표면적으로 왜곡되게 표현하게 되었다¹²⁶⁾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라 판단된다.

현재 김통정이 소재로 등장하거나 당신으로 좌정하는 당신화는 점점 사라지고 없다. 사회적·정치적 영향을 받는 당신화에서 김통정이 사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설화 속에서 여전히 민중영웅으로 전승되는 김통정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김통정 당신화가 최영 당신화처럼 육지의 장군 신화와 달리 당신으로 좌정하지 못한 이유와 더 이상 김통정에 관련된 당신화가 전승되지 않는 사회적·정치적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되길 바란다.

124) 이영권, 앞의 책, 81~83쪽.

제주 역사를 탈중양적 시각으로 살피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려면 우선 ‘민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족’신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변방의 역사를 읽다보면 그건 자연스레 깨칠 수밖에 없다.(이영권, 『제주역사 다시보기』, 신서원, 2005, 44쪽.)

125) 권태효, 앞의 논문, 160~161쪽.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삼별초에 대해서 제주민들은 호의적이었고 비록 적극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동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삼별초는 조세헌을 포탈하여 군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유지를 위해 제주민들을 수탈하지 않았으며 가혹하게 대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당신화 및 전설에서 김통정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민중영웅의 염원을 담은 존재로 형상화시키는 것과도 상통한다.

126) 권태효, 앞의 논문, 164쪽.

IV. 설화와 역사의 재구성

1. 김통정(삼별초) 장군의 설화와 역사

김통정은 삼별초의 장수로 1271년에 제주도로 들어와 대몽항전을 이어가다 1273년 5월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장수이다. 하지만 김통정이 민중영웅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고려 말기 몽고의 침략과 관리들의 수탈로 민중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엄혹한 시대의 영웅적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원 지배기에서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통정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기억되고 있었다. 민중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끊이지 않았던 민중들의 체제 저항운동의 저변에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의식이 설화로 전승되어 퍼져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역사와 달리 설화에서는 김통정의 탄생과 성장, 덕성과 지략, 장수로서의 면모, 영웅적인 활약상, 제주도민과의 관계, 당시의 시대적 상황, 전투의 진행과정 등 풍부한 이야기로 서술되어있다. 이는 역사에서 외면되어진 김통정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설화 속에 반영된 민중들의 생활상과 시대정신과 민중 의식 등도 살펴볼 수 있었다.

김통정이 패배한 후 제주는 몽고의 강압적 통치와 관리들의 수탈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몽고말의 진상처로 대규모 목축장에서 노역하며 대일본 항쟁의 진지로 대규모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몽고군의 차별과 야만적인 인권 유린을 견뎌야 하는 노비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몽고군의 횡포는 목호의 난으로 이어져 전대미문의 전화(戰火)를 이 땅에 불러 왔다.

김통정은 비록 패배한 장수였지만, 제주도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세곡선을 탈취하여 도민의 기근을 돌보는 선정을 베풀었기에 삼별초 항전 동안의 각종 부역에도 불구하고 설화 속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인물로 남아 있다. 관찬서 위주의 역사서에는 역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마을 신앙민들을 의식해야 하는 당신화에서는 제주의 산물을 탐내어 능력이 있지만 패배하는 장수로 전승되고 있는데 이

는 당시 지배층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며, 개별 민중들의 다양한 전승이 이루어지는 전설이나 지명유래담에서는 보다 솔직하게 김통정의 영웅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다.

최근 역사민속학¹²⁷⁾에서 연구하고 있는 ‘역사 속 민속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전승되는 민속의 역사성 회복’의 사례처럼 설화 연구에서 ‘역사적 인물의 고증의 통한 진정성 확보’와 ‘역사를 보완하는 구술사로서의 설화의 가치 회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털왓의 지명유래담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파두리성 축조 과정에서 사용된 폐기와 연구 등 고고학과 역사학 등의 연구 성과가 뒷받침되고 있다. 삼별초의 통치 기간 동안 마을의 형성을 통한 삼별초의 향파두리 입지의 전략적 과정 등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사 등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¹²⁸⁾

김통정 설화는 현재 애월 지역과 안덕 지역, 성산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애월 지역에서는 당신화 5편과 김통정 전설이 10여 편이 채록되었고 지명유래담은 수십 여 편이 전승되고 있다. 김통정 장군의 대몽항전기였던 향파두리성이 있었던 지역적 특수성의 결과이다.

애월 지역에서만 보이는 아기업개 이야기는 ‘아기업개 말도 들어라.’는 속담으로 만들어져 전란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아이와 여성을 존중하라는 민중들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또, 김통정이 중국의 삼장수에게 징치되는 결말은 몽고군에 의한 패배의 현실적 도출이며 당시 부역의 담당층으로서 삼별초군에 대한 부정

127) 한국역사민속학회 엮음, 『한국역사민속학강의 1』, 민속원, 2010, 10~11쪽.

‘역사민속학은 역사학인 동시에 민속학이요, 민속학인 동시에 역사학이다.’ 그동안 국내의 역사학은 주로 문헌자료에 근거한 연구에 집중된 결과 민속에 대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민속학의 경우에는 구전과 현장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역사와의 대화를 나누는데 크게 소홀하였다. 이 같은 반성아래 출발한 역사민속학 연구는 역사학과 민속학의 만남과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시켰다. 그것은 민족문화의 기반이자 전승문화로 이해해 오던 민속을 역사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역사민속학의 탄생은 ‘역사 속 민속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전승되는 민속의 역사성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속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현재까지 남아있는 민속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현재까지 남아있는 민속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민속학은 역사학과 민속학의 통합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존재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기층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과 민속학을 비롯하여 고고학,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어문학, 종교학, 문화학, 예술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제 통합학문의 관점으로 역사민속학이 나갈 때 전체사로서의 민중의 삶과 문화인 민속이 드러날 수 있다. 아울러 민속에 대한 접근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8) 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47, 2015, 196쪽.

적 인식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안덕 지역에서는 당신화 1편과 전설 1편과 지명 유래담이 채록되어 전해진다. 안덕의 당신화는 한라산신인 광양당을 비롯한 삼장수가 김통정을 징치하고 각각 활을 쏘아 당신으로 좌정한다. 이런 서사 구조가 삼성신화와 유사한 화소들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삼성신화가 탐라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화였듯이 원 지배기에 탐라국은 탐라인의 자주성을 고취하고¹²⁹⁾ 외세를 물리친 토착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당신화를 전승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화에 등장하는 철기들은 이 지역에 발달한 제련기술과 연관지어 볼 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노역하는 과정에서 설화가 발생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는 설촌 유래에서처럼 애월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설화를 전승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성산 지역에서는 당신화 3편과 지명 유래담이 전승되고 있다. 성산의 당신화는 황서국의 장수가 역적으로 몰려 제주도에 와 김통정을 도와주고 당신이 되는 내력과 장수물을 제공하는 내력담이다. 역적을 당신으로 섬기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는 진취적인 지역민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성산 지역은 김통정이 처음 입도하여 토성을 쌓고 설촌을 한 지역이며 몽고가 처음으로 말목장을 세운 곳으로 김통정과 관련된 설화가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통정 이야기를 통해 고려시대 말기 12세기에서 14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전승 지역의 민속 및 생활사와의 관계를 통해 고려시대 민중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김통정 설화는 원 지배기의 정치적 격변기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사학자에 의해서 민중의식을 각성시키는 동인으로, 유신정권 때에는 군사쿠데타를 합리화하는 무신들의 정권투쟁으로, 시대정신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고려 건국 1100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연구와 발굴이 진행

129) 고려시대 말, 나라의 주체가 무너지고 주권이 흔들릴 때에는 민족자존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를 거치면서 유지·발전해 왔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새롭게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일체감을 형성하려는 분위기가 폭넓게 조성된다. 몽골의 침략 시기와 원나라 지배 시기에 역사책 편찬이 활발했던 것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표적인 역사책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 하겠다. 광정당본풀이는 당시 탐라인의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탐라인의 자긍심을 외래신의 징치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이다.

민중들은 자신의 편에 선 영웅을 이야기로써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했다. 진도 정부의 수장이었던 배중손 장군 역시 용장성 전투에서 패하고 사망하고 만다. 김윤후 장군은 승리한 장군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아있었지만, 배중손 장군이나¹³⁰⁾ 김통정 장군과 같이 패배한 장군은 사당이나 신당을 세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었다. ‘목호의 난’을 진압하고 왜구의 침입을 막아냈던 최영 장군도 이성계에 의한 안타까운 죽음을 해원하기 위한 곳을 치러 주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다.

김통정과 동시대에 삼별초 장군으로 비슷한 운명을 살아간 인물에 대한 전설과 당신화가 전해오고 있다. 진도의 측근에 있는 완도에도 삼별초의 주요세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송징(宋徵)장군이 주둔하여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완도는 진도와 유사한 지리적 전략적 조건을 갖춘 곳이며 진도의 외곽으로서 신라시대 청해진의 설치가 그 요충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한다. 송징에 대해서는 사서(史書)에 전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조선 초의 지리서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실려 있다.

옛날에 섬(완도) 사람으로 송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용(武勇)이 당할 사람이 없고 활을 쏘면 60리 밖에서 미쳤다고 한다. 활시위를 끊자 피가 나왔다고 하며 지금도 반석 위에 화살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사현이라 부른다.¹³¹⁾

이 무용이 절륜한 송징은 삼별초의 장군이었다고 현지에서 구전되어 오고 있으며 이미 조선시대에 호국신(胡國神)으로 모셔져 현재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송징 역시 진도정부 산하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지며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완도에서의 송징에 대한 구전은 박창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

130) 한국향토문화대전, 디지털진도문화대전 - 진도 굴포리 검색.

굴포당(배중손 사당): 현 사당은 삼별초 배중손 장수가 남도석성 전투에 패한 후 굴포 해안 쪽으로 이동하다 당시 바다 빨밭이었던 이곳에서 최후를 마친 곳으로 전해오고 있다. 당집 앞에 세워진 굴포신당유적비(掘浦神堂遺蹟碑)에서는 당을 짓고 당제를 지내게 된 내력을 밝혀놓고 있다. 삼별초 장군이었던 배중손과 김통정이 몽고군에 대항해서 싸움을 하면서 많은 전몰장병이 생겼는데, 이들을 위무할 목적으로 소나무와 귀목나무를 심고 제당을 지어 제를 모시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다.

131)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183쪽.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진현사현조康津縣射峴條」, 1530. 재인용.

한다. 이 같은 송징에 대한 구전은 제주도 입거 시기의 삼별초군의 활동을 연상시킨다.¹³²⁾

송징 장군은 완도를 점령한 삼별초의 중요 인물로서 연년이 계속된 흉년과 육지 군의 관리 토호들의 억압과 착취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무하고 근해를 왕래하는 세미선(稅米船)을 잡아 그 세미로 거민을 구호하니 거민들은 한천(旱天)에 감우(甘雨)를 만난 듯 구세주와 같이 존경하였다. 이때에 완동을 통과하려는 세미선이 지금의 남선리 앞바다를 지나간 것을 장좌리 장도(將島)에서 활을 쏘아 이를 막아 잡고 개머리를 지나 서해안으로 가려 하면 정도리(正道里) 송댓여에서 활을 쏘아 이에 적중시켜 세미를 빼앗았다 한다.¹³³⁾

‘송징장군당신화’¹³⁴⁾로 완도군 일대에 전승되는 이야기와 완도읍 정도리와 장좌리에 전승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들 지역에 전승되는 구술 자료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① 옛날에 엄 장군과 송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결국 엄 장군은 갈웅리 위 엄숙골이라는 곳에 살고 송 장군은 장도라는 섬에 살았는데, 원래 엄 장군은 송 장군의 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엄 장군이 송 장군을 배신하여 죽이려 하자, 송 장군은 까투리가 되어 신지면 솔섬 옆에 위치한 ‘까트린여’라는 곳으로 날아가 머물러 있었으나 결국 엄 장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완도 지역)

132) 윤용혁, 앞의 책, 183쪽~184쪽.

133)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184쪽.

134)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송징장군당신화 검색.

진도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는 먼저 전라도를 제압했는데,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전주와 나주 등의 내륙 지역도 삼별초의 공격을 받았다. 그로 인해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가 삼별초의 군사적 영향권 아래 들게 되면서 이들 지역의 조운(漕運)이 막혀 공부(貢賦)의 수송선이 차단되었다. 송징 장군은 진도에 웅거하던 삼별초가 1270년(원종 11) 완도에 주둔했을 때 해로와 해안 지역의 삼별초군을 지휘한 장수인데, 계속된 흉년과 내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섬 주민들을 위무하고 구휼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진현(康津縣)」 사묘(祠廟) 조에 의하면, “현의 남쪽 칠장리에 호국신사(護國神祠)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시는 신은 송징이라 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송징 장군이 신격화되어 지역의 수호신으로 받들어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929년에 간행된 『조선환여승람』에 의하면, “장도(將島)에 단(壇)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시고 있는 신은 고려시대의 송징 장군이다. 송징은 청해에 살면서 장도에서 무술을 닦았는데, 지략과 무용을 겸비했다고 한다. 그래서 송징이 죽은 뒤에도 그 영험함이 현저하여 주민들이 추모하기 위해 단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이 훗날 전승되면서 마을신앙의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었는데, 송징 장군의 영험함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송징이 신격으로 받들어 모셔진 곳은 완도 지역의 중도리, 화개리, 대구미, 부흥리, 대신리, 대야리, 고마리, 사후리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완도읍 장좌리 당제에서만 송징 장군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② 옛날부터 전해오는 수호신이 있는데, 원래 장좌리는 장보고 장군이고, 이곳 정도리는 송대 장군이라고 한다. 송대 장군과 관련한 이야기로는 송대 장군의 목이라는 ‘송대목바위’와 그 바위 옆에 ‘장군샘’이라는 지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는 송대 장군이 탄 말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도 있었다고 한다. 정도리에는 장보고 장군 이야기는 없고, 송대 장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완도읍 정도리)

자료③ 송징 장군이 용력이 뛰어나 손쓸 방도가 없자 나라에서 송징을 죽이는 사람에게 벼슬을 준다는 방을 내걸었다. 그러자 벼슬이 탐이 난 송징의 딸이 자기 남편한테 아버지를 죽이자고 하였다. 남편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리자 딸이 혼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장좌리로 갔다. 송징 장군이 딸에게 왜 왔냐고 묻자, 딸은 가 볼 데가 있다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암퇘인 까투리가 머물던 십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까뜨린여’라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송징 장군이 꿩으로 변하자 딸은 매로 변하여 꿩을 쳐서 바다에 떨어뜨려 송징 장군을 죽였다. 그래서 송징 장군은 정도리에 있는 ‘송단여’라는 곳으로 떠내려갔다고 한다. 장좌리에서는 원래 장도섬에 있는 당에다 송징 장군을 모시고 있다. (완도군 장도섬)

자료④ 삼별초난 때 완도에 들어온 송징 장군은 장도 근방에 토성을 쌓은 뒤 그곳을 본거지로 삼았다. 이후 세미션을 털어 사람들을 구출하면서 마을의 안정을 이루고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서 장좌리 마을 사람들은 그 공을 잊지 못하여 송징 장군을 마을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완도읍 장좌리)

구술 자료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엄 장군, 송 장군, 장보고 장군, 송대 장군, 송징 장군, 그리고 송징 장군의 딸과 사위 등이다. 여기서 송 장군, 송대 장군, 송징 장군은 동일 인물일 것으로 파악된다. 송 장군이나 송징 장군이 까투리가 되었다는 동일한 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이 그러하고, 장좌리에서 죽은 송징 장군이 정도리로 떠내려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도리 지명전설의 송대 장군은 송징 장군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도의 대표적인 신화적 인물이 송징 장군임을 말해 준다.

구전되는 설화의 내용에서 김통정 장군 설화와 유사한 화소가 다수 발견된다. 자료①은 송장군의 엄장군에 의한 징치에 대한 내용으로 영웅의 좌절상을 담고 있다. 자료②는 ‘송대목바위’와 ‘장군샘’, ‘말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 등 구체적인 증거물에 대한 지명 유래담이다. 자료③은 송징장군의 방해자 역할을 하는 딸과 변신담의 화소, 관군과의 갈등 등이 나타난다. 자료④는 ‘토성쌓기’와 ‘세미션 약

탈' 등 선정을 베푼 장수의 모습 등이 서술되어 있다.

송징 장군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장군임에도 불과하고 김통정 장군 설화가 갖고 있는 장수로서의 무용과 덕성, 시대적 한계와 비극적 결말, 증거물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출생담이 빠져 있으나 삼별초 세력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이 육지와 제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통정 장군이 다른 신격에 의해 징치되는 부분을 외래신과의 갈등에서 토착신이 승리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영웅적 인물의 좌절이라는 전설의 특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송징 장군과 김통정 장군이 선정을 베푼 상황을 통해 당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역민에게 유화적 시책으로 회유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 토성을 쌓고 세미선을 탈취하는 등의 역사적 사실도 설화 속에 전승되어 인물의 영웅담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송징장군당신화'는 다른 당신화와는 달리 살아생전에 지역사회에 선정을 베푼 역사적 인물의 사후에도 그 유훈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마을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신앙의 신격 가운데 역사적 인물신이 어떻게 마을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신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완도 지역 마을신앙의 성격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¹³⁵⁾

송징 장군의 사례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역사적 인물의 기록이 소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통정의 사례에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역사적 인물의 평가가 변화되었던 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역사는 과연 진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삼별초의 두 장수는 설화 속에서 살아남아 항변하고 있다.

“역사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135) 주강현, 「신화·제의·민중영웅의 제 관계-민중영웅 송징과 장보고 변증」, 『역사민속학』 20, 2005. 4~9쪽.

2. 민중영웅(아기장수)의 설화와 역사

김통정 이야기는 ‘아기장수설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장수는 비범한 인물을 수용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장수설화’가 유독 많지만 본토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애월, 안덕, 성산 지역에 전승되는 대표적인 장수설화만 보더라도 날개 잃은 장수가 평범한 삶을 살게 되거나 민중의 영웅이 되는 등의 현실적인 결말을 맞는다. 이는 반이데올로기적인 제주도민의 삶의 진지성을 보여주는 결말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의 생활은 불모의 자연환경의 재난과 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학정 가렴주구, 외세의 침탈에서 오는 위협 속에서 ‘언제 죽어 이 고생을 면할까’하는 탄식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피나는 노력 속에 살았고 때로는 학정에 저항하는 난도 일으켰다. 그 모든 것은 생존에의 몸부림이었다.¹³⁶⁾

제주 설화에는 외세에 맞선 장군, 마을의 굿은일을 담당한 장수 등 ‘장수설화’가 많다. 특히, 아기장수설화는 육지와는 다르게 날개를 절단한 아기장수가 힘이 센 장사로 살아남는다는 결론이 다수 있어 제주도민의 특수한 의식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³⁷⁾ 그러나 김통정 설화가 발생한 시점이 고려 말 13세기라는 점을 볼 때, 탐라의 역사적 상황과 육지에서 삼별초 항쟁으로 공을 세운 장군들과 비교 연구를 통해 ‘아기장수설화’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

현길언은 『제주도의 장수설화』에서 제주 ‘아기장수설화’가 육지와 다른 점을 분석하고 1~3유형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유형은 아기장수가 전적으로 거부되는 경우로 본토와 같이 낳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그 조상의 묘를 단맥함으로 몰락하는 서사이다. 2유형은 부모에 의해 아기장수의 날개만 제거되지만 그 인

136) 현길언, 앞의 책, 16쪽.

137) 현길언, 『제주 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년, 104쪽.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이 아기장수는 제주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물을 사회가 받아줄 수 없었다. 그것은 비범한 인물을 용납하지 않는 닫힌 사회의 폭력 때문이었다. 역적이 될 인물은 어렸을 때에 죽여야 한다는 왕권수호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회는 이 반사회적인 아기장수를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자신들의 꿈을 부정하는 일이었기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고종말의 단맥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이 위대한 인물들을 폭력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기장수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꿈도 버리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제주사람들의 처신은 그들의 삶의 양식과 일정하게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물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장수가 아닌 장사로서 세상을 살아나간다. 3유형은 부모들이 아기장수의 비밀을 숨겨 버린다. 그들은 장수로서 행세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역의 장수가 되어 난을 주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몰락한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수용될 수 있었으나 역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¹³⁸⁾

애월 지역에 전승하는 장수설화는 홍업선(2유형)과 김통정(3유형) 설화 등이 있다. 홍업선 설화는 날개 잃은 장수 이야기(2유형)인데 아래와 같이 전해온다.

홍업선은 약 300년전 신엄리(新嚴里)에서 태어났다. 어릴적부터 풍모가 예사 사람과 다르고 또한 힘이 세었다. 집안은 농사를 지었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아버지는 항상 짚신을 삼아 이 아들에게 팔아오라고 하여 살림을 보태었다.

아들 업선은 꼬박꼬박 성안(제주시)에 가서 짚신을 팔고 왔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아들의 행동에 이상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차차 유심히 보니 너무 빨리 성안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하루는 일부러 새 짚신을 신기고 성안에 가서 짚신을 팔아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유심히 가늠해 보았다. 지금 시간이면 성안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보니 아들은 어느새 짚신을 다 팔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며 일부러 모른 체 하고는 아들 몰래 신고 간 짚신을 보았다. 새 짚신에 흠이 한 점도 물어 있지 않아 있었다. 아버지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술을 빚어 놓게 했다. 어느날 아버지는 아들 업성을 불러 별미인 술이니 마셔 보라고 하였다.

어린 아이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거역할 수 없어 술을 마셨다. 얼마 후 술기가 돌아 아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가만히 옷을 벗고 몸을 조사해 봤더니 이게 웬일인가? 아들의 겨드랑이에는 좋은 명주가 휘휘 감겨져 있었고 이 명주를 풀니 큰 새의 날개 만 큼한 날개가 나와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겁이 났다. 만일 이것을 관에서 알면 역적으로 몰릴 것이요 삼족의 멸망할게 분명하다. 아버지는 얼른 가위를 가져다 날개를 잘라버렸다. 아들은 몹시 고단하다하며 일어났다. 몸단장을 하려다가 날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한 일이어서 감히 원망소리를 못하였다.

그 후 업선은 전보다 기운이 없고 말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통사람에 비하면 힘이 장사여서 누구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 홍업선의 묘는 현재 제주시 외도리 위쪽 사만이라는 곳에 있고 매년 묘제를 지내고 있으며 그의 9대 손들이 살아 있다고 한다.¹³⁹⁾

138) 현길언, 앞의 책, 117쪽.

139) 제주의 마을 - 구엄리, 홍업선 검색.

홍업선이야기는 짚신을 파는 가난한 집 아들의 이야기인데, 멸문지화를 피하기 위해 날개를 잘라도 힘이 좀 줄어들었을 뿐 평범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결론으로 끝이 난다.

안덕 지역에 전승하는 장수설화는 오찰방 설화가 대표적이다. 날개 잃은 장수 이야기(2유형)인데 아래와 같이 전해온다.

대정에 정착한 오씨집안에 옥동자가 태어났다. 튼튼하고 영특한 풍모가 다른 아이와는 달랐다. 이름을 영광(榮冠)이라 지었다.

그가 어릴 때의 일이다. 장난이 심하여 주위의 눈총을 받던 오영관은 어느날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자 산방산쪽으로 도망을 쳤다. 괴씸하게 여긴 아버지는 아들을 붙들어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들의 뒤를 쫓았으나 산방산 꼭대기에 이르렀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울창한 나무숲을 헤쳐 낭떨어지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본 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느새 오영관은 깎아지른 듯한 산방산 정상에 뛰어내려 화순리 앞 모래밭에 별령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쫓긴 나머지 잘못 뛰어내려 죽은 줄 알고 아버지는 장례나 준비할 양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웬 일인가. 어느 틈엔가 아들은 미리 귀가하여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놀란 아버지가 자고 있는 아들의 겨드랑을 유심히 보고 들춰보니 아니나 다를까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다. 범상치 않은 아들의 행동에 행여나 하던 아버지의 추측이 들어맞은 것이다. 이 사실을 관에서 아는 날이면 역적의 집안이라 하여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고 만다.

공포에 질린 아버지는 얼른 인두를 달구어 아들의 겨드랑 날개를 지져 버리고 말았다. 얼마 후 이소식이 중국에까지 전해졌다. 동국(東國) 남해 큰 섬에 영산이 있어 날개달린 장수가 태어날 조짐이 있으니 그것을 미리 찾아내어 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평민으로 변장한 사자(使者)는 제주도에 건너와 수소문 끝에 마침내 오영관을 찾아냈으나 날개는 이미 없어진 후였다. 후에 그는 무과에 올라 벼슬길에 나갔으나 관작이 찰방(察訪)에 머물러 더 큰 뜻을 펼 수가 없었다.

찰방은 각 도의 역참(驛站)일을 맡아보던 외직이었다.

일세를 풍미할지도 몰랐던 큰 재목이 시대를 잘못 만나 중도에 꺾이고 말았던 것이다.

오찰방의 위에 그보다 힘이 더 장사였다는 누이가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¹⁴⁰⁾

140) 제주의 마을 - 대정 일과리, 오찰방 검색.

오찰방이야기는 산방산에서 뛰어내린 아이가 날아다니는 것이 중국에 소문이 나서 이를 제거하러 왔다는 이야기이다. 이 지역은 용머리해안의 고종달 설화가 전승하는 지역으로 단맥 설화와 연계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성산 지역에 전승하는 장수설화는 부대각 설화가 대표적이다. 거부당하는 장수 이야기(1유형)인데 아래와 같이 전해온다.

“제주도에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면 부대각자손(夫大角子孫)이라.”고 한다.

그 실제인물은 부씨 열송과의 시흥 통정대부만호묘(通政大夫萬戶墓)는 평대리 전대역 또 홍공파(弘公派)에도 실제인물인 심돌 부대각이 있으나 생략한다.

전설 연대미상 부씨택 모부인이 어느날 청룡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이것이 범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한 남편은 소 한 마리로 보양을 했다.

아기를 낳고 보니 쌍둥이였다. 낳을 적부터 크기도 했지만 10세가 되니 벌써 18~19세의 크기와 기상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근심거리였다. 세인이 아는 바 신말훤철(辛末毀澈)과 부희노(夫熙魯)의 항거 이래 많은 희생을 당했었다.

어느날 외출했다 귀가해 보니 그 형제가 안방에서 청으로 청에서 뒤뜰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것이 관가에 알려지면 큰일이다 하고 동생놈을 붙잡아 날개를 찢어 없애버리니 죽어버렸지만 형은 어느새 바다로 행적을 감추고 말았다. 영영 돌아오지 않아서 혼백을 모시고 묘를 삼았다.

식산봉 장군석 부씨오세 어모장군 유염공을 오조리 화목전지(花木田旨)에 모셨다. 이 묘에 장군석의 신령이 비추어 대각이 태어난다는 설이 유포되어 관가에서 장군석을 잘라버리니 여기서 유혈이 낭자했다고 하며 이후로 대각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주 : 대각은 신라시대의 고관 문각천에서 연유한 것으로 큰어른을 뜻하기도 한다.]¹⁴¹⁾

심돌 부대각 이야기에서도 장군석을 잘라버리는 단맥 설화와 혼합된 형태가 보이는데 역시 이 지역도 호종단이 다녀간 지역이었다. 물징거(종달리)에서 마을이름을 물으니 ‘종달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나 샘의 혈의 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3유형의 아기장수 이야기는 김통정과 이재수의 설화인데, 공통점은 날개가 있다는 것과 난을 주도하였다가 실패한다는 화소가 있다는 점이다. 두 인물은 결국 능력은 있지만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을 갖는다. 두 인물은 설화와 역사가 결합하여 3유형의 인물전설을 만들게 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141) 제주의 마을 - 오조리, 심돌 부대각 검색.

제주설화에서는 아기장수가 죽지 않고 ‘날개의 제거’ 이후에도 여전히 장사로서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간다. 이런 유형의 변이는 현실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저항 의식과 삶의 진지성과 통한다. 더구나 그런 설화들이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욱 실감나게 향유자들에게 다가온다. 어떻게 그들은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은 적응일 수도 있고(2유형) 저항일 수도 있다.(3유형).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제주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¹⁴²⁾

조동일은 『한국설화와 민중의식』에서 영웅이야기를 순차적 구조를 분석해서 구조적 유형을 정립하였다. ‘귀족적 영웅의 일생’과 ‘민중적 영웅의 일생’으로 나누었는데, 김통정 설화도 ‘민중적 영웅의 일생’으로 일대기적 구조가 나타난다.¹⁴³⁾ 이는 김통정을 민중적 영웅으로 수용한 전승자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중영웅이야기』에서는 ‘영웅의 성격 변화와 몰락 과정’을 설명하며 영웅 신화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¹⁴⁴⁾ ‘집단적 영웅에서 개인적 영웅으로’, ‘역사적 영웅에서 비역사적 영웅으로’, ‘진취적 영웅에서 보수적 영웅으로’, ‘주체적 영웅에서 운명적 영웅으로’, ‘투쟁의 영웅에서 애정의 영웅으로’로 시대에 따라 변화해 갔다는 것이다. 고대의 영웅은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문학적인 인물이었 고, 처음에는 역사와 문학이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차츰 역사와 문학이 분화되었다. 역사로서의 영웅이야기는 궁예나 작제건을 마지막으로 크게 쇠퇴해서 일대기적 유형이 유지되지 못했고, 고려 말부터 문학에서의 영웅이야기는 소설의 출현과 함께 계속 풍부하게 창조되었다. 진취적 영웅의 행

142) 현길언, 앞의 책, 154쪽.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아기장수설화’를 가르칠 때 ‘아기장수’를 죽이는 부모들의 태도에 분노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주 지역의 장수설화를 가르쳤더라면 아이들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가치관을 수용하며 설화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었을 것이다.

143)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18쪽.

귀족적 영웅이야기는 ①고귀한 혈통 ②비정상적인 출생 ③탁월한 능력 ④기아와 고비를 겪음 ⑤ ⑥구출·양육자를 만나 위기 탈출 ⑦승리자·왕이 되는 구조이다. 민중적 영웅이야기는 ①미천한 혈통 ②탁월한 능력 ③항거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 ④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됨 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한다는 구조이다.

144)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36~52쪽.

삼국 건국기 이래 오랫동안 영웅이 없다가 신라말, 고려초에 이르러서 궁예와 작제건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 시기의 시대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신라말, 고려초는 고전적인 영웅의 시대는 아니다. 계급의 사회적·문화적 분화가 격심하던 때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진통 속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자기능력을 자각하였고 그 역사적인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민족의 경험’의 시기였기에 영웅이 출현할 수 있었으며, 계급분화가 격심했다는 조건에 따라 영웅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동에 차츰 윤리적인 제약이 가해지고, 현실적 갈등의 논리를 버리고 관념적인 인과의 논리를 선택하게 된다.¹⁴⁵⁾

고려 말에 나타난 김통정은 개인적·진취적 영웅·주체적 영웅·투쟁의 영웅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집단적 영웅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고대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에 가깝다. 고려는 작제건의 할머니가 용녀였다는 것에서 혈통의 고귀함을 내세워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우왕의 죽음에서도 겨드랑이 밑에 용비늘이 있었다는 아기장수설화의 날개 모티브가 차용된다. 건국신화에서 날개 모티브가 등장한 것이 고려시대의 특징이라면 아기장수설화 또한 날개를 통해 정통성을 얻으려고 한 점에서 고려시대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아기장수설화에서 비늘과 날개의 모티브는 아기장수가 왕이나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아기장수설화는 조동일의 영웅의 성격과 몰락 과정에서 본다면 고려 중기적 영웅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⁴⁶⁾

고려 중기는 1176년 ‘망이·망소이의 난’을 비롯하여 1198년 ‘만적의 난’ 등 천민들의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이다. 문신귀족들의 전횡과 무신의 난 이후 노비들의 지위 상승으로 민중들의 저항의식이 양성되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도 평가하고 있다. 김수업은 「아기장수 이야기 연구」에서 12~13세기에 천민의 봉기와 항쟁이 거듭 좌절된 경험이 아기장수 이야기의 ‘날개 유형’을 탄생시켰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¹⁴⁷⁾

145) 조동일, 앞의 책, 36~52쪽.

영웅의 변화는 합리적이며 실증적인 사관의 성장과 더불어 더욱 촉진되었다. 이미 김부식이나 정인지도 역사서술에서 합리성을 존중해서 영웅의 행위를 인정하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실학시대에 이르러서는 실증적 비판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고대의 영웅이야기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시대가 되니, 당대의 영웅이야기가 역사적인 성격을 지닐 수 없고 가공적인 것으로만 존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려 국조설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 영웅의 일생이란 유형에 해당되는 건 작제건뿐이고, 조선왕조 건국신화에는 그런 인물이 없다. 영웅의 일생 대신 영웅적 행위나 기이한 행적의 화소들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예사이고, 그런 경향은 조선왕조에서 더욱 확대된다.

146) 조동일, 앞의 책, 54쪽.

귀족적 영웅은 가공적인 세계에서라도 영광의 승리를 구가하고 행복에 도취하지만, 민중의 영웅은 그렇지 않고 패배하기에 진실한 감동을 준다. 민중영웅은 항거하는 민중의 집단적 표상으로서 항거 및 패배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의식에 충만해 있다.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윤리적 제약이나 운명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상층영웅이 집단성·역사성·진취성·주체성을 상실하고 크게 변절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민중의 정치적 각성과 함께 민중영웅의 의의가 더욱 커졌다.

147) 김수업, 「아기장수 이야기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4, 155쪽.

제주도의 상황은 더 열악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수탈로 극심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1105년에 탐라국이 해체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지방관들은 15세 이상의 제주도 남자들로부터 해마다 콩 한 섬씩과 지방관아의 말단 공무원들로부터는 말 한 필씩을 바치도록 강요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의 지방관을 한 번 역임하면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제주의 토착지배세력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에게 빌붙어 제주도민들의 토지를 침탈하였다.¹⁴⁸⁾ 제주도민들은 토착지배세력과 지방관에게 이중적으로 수탈당하자 이에 대한 저항이 민란으로 분출하게 된다. 이에 1168년 ‘양수의 난’, 1186년 ‘번석·번수의 난’, 1287년 ‘문행노의 난’이 있었으니 본토보다 10여년이 앞선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1323년에는 탐학을 일삼던 제주만호 임숙이 주민들의 불온한 기색을 보고 도망쳐서 육지로 나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임숙은 임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하여 정동행중서성에 갇혔으나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 복직이 되어 제주도로 다시 부임하려 하였다. 이 처사에 항의하여 제주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관아와 거리에 내다붙였다.

임숙이 몹시 탐욕스러워 온갖 방법으로 수탈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였다. 이제 다시 부임하니 우리들은 무슨 죄인가? 담당 관리들이 임숙의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겨 풀어주고 부임하게 하니 중앙에서 죄를 추궁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정동행중서성에 호소할 것이다.¹⁴⁹⁾

중앙정부와 정동행중서성에서는 도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임숙을 불러올리고 다른 벼슬아치를 만호로 임명하여 보냈다. 제주도민은 부정한 관리를 스스로 배척할 정도로 의식이 성장되어 있었다.¹⁵⁰⁾ 고려 말에는 각성된 민중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고려 조정에서 관리가 파견되는 등의 저항과 탄압의 역사가 이어졌다. 이런 민중 의식의 성장 속에서 김통정 설화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 전

148) 김동전,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콘텐츠 - ‘삼별초의 항쟁’ 검색.

1234년(고종 21) 제주판관으로 부임했던 김구는 권세가의 토지침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과 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돌담’을 쌓기 시작하였다. 제주의 돌담의 유래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셈이다.

149) 『고려사절요』, 충숙왕, 재인용.

150) 이이화, 앞의 책, 202쪽.

국적으로 퍼져있던 아기장수설화의 형태로 전승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장수설화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결국 주인공들이 겪는 좌절의 양상은 저항과 탄압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김통정 이야기는 실존 인물의 역사이며 민중영웅의 설화이자 당신화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민중영웅은 역사적 변화에 따라 성격 변화와 몰락의 과정을 겪는데 고대 건국신화의 집단적 영웅은 아니지만 역사적·진취적·주체적·투쟁적 영웅이라는 점에서 고려 중기적 영웅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김통정 이야기 등 유사계열의 아기장수설화의 발생 시기는 민중적 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13~14세기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역사에서 삭제된 김통정이 설화에는 왜 살아있는가?

김통정 이야기의 역사 인식을 살펴보면서 고려시대 역적으로 폄하되었던 김통정이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사학자에 의해 민중의 영웅으로 평가가 전환되고 이승만 정권기에는 유교적인 사관으로 다시 반란 집단으로 부정되었다. 박정희 정권 때에는 군사독재세력을 미화하는 자주적인 무신으로 다시 재평가되었다. 현재에는 해양·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통정 이야기는 실존 인물의 역사이지만 역사를 서술하는 계층의 이익에 따라 왜곡되어 왔음을 볼 때 역사는 진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김통정 이야기의 설화 인식을 살펴보면 설화에서 김통정이라는 인물은 뛰어난 능력이 있으며 제주도민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세미선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식수를 공급하는 민중 영웅의 모습으로 전승된다. 또 장수로서도 말꼬리에 빗자루와 재를 매달아 연막작전을 펼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 장수의 모습도 전해진다.

제주에서 영웅은 필요했는가? 왜 김통정인가?

고려시대 탐라국은 고려에 복속되면서 이종의 수탈과 착취를 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통정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가혹한 수탈에서 벗어나게 한 해방군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김통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설화에 남게 했다.

역사와 전설에서 공통되는 사실은 김통정이 제주에 들어온 삼별초 장수이며 끝까지 항전하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설화에서 보여지는 신이한 탄생, 비

범한 능력 등의 화소는 사실은 아니지만 세미선을 탈취하고 항파두리성을 쌓았고 몽고군의 횡포를 막았다는 화소 등은 설화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 점이다.

세미선을 탈취한 행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고려정부의 입장, 삼별초의 입장,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역사적 기록으로는 고려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명 밖에 할 수 없지만 설화적 전승을 통해 삼별초가 제주도민을 회유하려고 한 사실과 제주도민이 삼별초에 대한 큰 저항없이 항파두리성을 쌓는 등의 협조를 한 것들이 연결되어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김통정이 실제로 죽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정확하지 않다. 시체를 얻어 보고하였다는 역사기록이 설화에도 전해져오는데 이는 김통정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영웅을 기다리는 민중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들의 의식은 오끼나와에 삼별초가 도망가서 살고 있다는 설화에까지 이어져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는 역사적 사실과 다시 재구성 되면서 또다른 진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김통정 이야기가 역사인식과 설화인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의 빈 부분을 설화가 채워주고 설화의 진정성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설화는 지역에 따라 또 전승 계층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당신화에서는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김통정 장군은 징치되고 부정적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김통정 이야기는 일본의 오끼나와에 도망하여 일본의 왕국 건설에 영향을 끼쳤다는 새로운 전설을 재생산하고 있다. 김통정 장군은 이러한 역사적 실존인물이었지만 고려시대 상황에서 민중들의 필요에 의해서 영웅화되고 신격화되어 재생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고려말, 김통정을 민중 영웅으로 신격화한 것은 아기장수전설처럼 민중들의 고난을 되새기고 엄혹한 시대에 희망적 미래를 갈구하는 의식이 설화에 반영되어 현재까지 전승된 온 것이다.

V. 결론

이 논문은 삼별초 장군인 김통정에 관한 이야기가 전승되어 온 양상을 살피고 역사와 설화의 불일치에 주목하여 역사 인식과 설화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역사와 설화의 재구성을 통해 김통정 이야기를 상호보완적으로 보다 풍부하게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는 설화의 진정성을 보완하고 설화는 역사의 빈 부분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통정 설화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장수(將帥)설화’를 언급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장수설화’가 많은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다양한 분석이 있었다. 특히 ‘아기장수설화’는 육지에 비해 유형이 한정적이며 극한적 대립이 없는 현실적인 결론으로 귀결된다. 제주의 장수설화를 능력이 있으나 수용되지 못한 제주도민의 한과 저항 정신의 표현으로 연구된 바가 있으나 육지의 관북, 관서, 호남 지역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주 장수설화’에 대한 지역적(특수적) 접근은 있었으나 통시적인 접근은 시도된 바가 거의 없었다. 이는 구전 설화라는 장르상의 특성상 유동성과 적층성으로 인한 이본과 변이의 흔적들 때문에 기원과 원형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에는 김통정 설화가 다양한 변이형을 갖고 존재하고 있다. 전설이 역사와 함께 전해오기 때문에 비교적 기원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제주의 ‘아기장수설화’가 등장한 한 이유를 연구하다보면 다른 ‘아기장수설화’에 대한 통시적 변화과정을 추정하고 제주도 전역에 퍼져있는 김통정 설화를 공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화 전승자로서 제주도민들의 의식과 사회·역사적 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다.

또한 설화는 이야기라는 큰 범주 안에서 신화, 전설, 민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호교섭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 역사와 지리지 등에서 다양한 층위로 전승되었고, 신문과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발견된다. 김통정 이야기는 비교적 근래에 전승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화, 전설 등 다양한 층위로 수용된 과정과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볼 수 있다. 실존 인물이 설화화되고 전승되는 과

정과 수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서사물에 반영된 수용층의 역사관·세계관을 비교·분석하고 설화 수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김통정 설화는 지명을 바탕으로 한 전설지의 내용 등을 구성하여 언어·지리·역사적 관심을 충족할 수 있다. 제주도 전역에서 고려시대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지와 이와 관련된 설화가 현재에도 다수가 전승되며 역사의 상흔을 간직한 채 시대상을 전하고 있다. 김통정이 활동한 근거지인 항파두리성, 죽음을 맞이했다는 붉은오름 등 지명 설화를 유지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역사적 아픔을 공감하게 한다.

그리고 김통정 설화에 화소로 등장하는 말사육, 축성과정, 철문, 솥 등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민속적 지식을 추측하게 하는 자료로 고려시대 생활상을 재구성하게 한다. 설화가 전해오는 지역의 말목장(성산), 와요지(애월), 불미마당(안덕), 솥가마터(성산) 등 민속 자료들은 설화 전승의 원인을 설명하고 설화를 이해하는데 상상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한다.

전설은 증거물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 교육적인 자료로써도 가치가 높다. 김통정과 관련된 전설 및 지명만 열거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나온다. 이러한 역사적 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행적과 대몽항쟁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이야기에 대한 몰입도와 상상력이 발휘되기 쉽다. 제주 설화에 대한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김통정 설화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김통정 이야기의 역사인식, 설화 인식, 설화와 역사의 재구성의 순서로 논문이 구성되어 있다. 김통정과 관련된 국내·외 사서를 통해 고려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료들을 살펴보고 시대정신에 따라 변모되어 전승된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인물설화인 전설과 당신화와 지명유래담은 실존 인물이 설화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민중의 의식이 반영되며 지역적 특징에 따른 변이되는 양상을 갖는다.

2장 김통정 이야기의 역사인식에서 김통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시대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시대에는 국가를 반역한 역적으로 폄훼하고 삼별초의 수많은 장수들처럼 역사에서 소멸하는 흔적을 발견

할 수 있다. 국외 기록을 통해 근세이후에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 선각자들에 의해 민중 의식의 요구로 재평가 되었다가 이승만 정권기에는 왕조적 사관을 이어 받아 반란집단으로 부정적으로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으며, 박정희 정권기에는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무신의 자주정신이 높이 평가되기도 하였다. 현재 김통정 이야기와 삼별초 유적은 해양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삼별초 유적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 부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삼별초 유적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학제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3장 김통정 이야기의 설화인식에서 김통정은 비록 패배한 장수였지만 설화 속에서 비교적 역사와 다른 긍정적 인물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세미선을 탈취하여 도민의 기근을 돌보는 선정을 베풀었기에 삼별초 항전 동안의 각종 부역에도 불구하고 설화 속에서 민중들의 영웅으로 남아 있다. 전설에서 애월지역은 김통정이 아기장수로서 영웅적인 면모와 장수로서의 비범한 능력과 관군과의 갈등상황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소로 남아있다. 현용준의 『제주도 전설』의 김통정 장군 이야기를 중심으로 단락구분을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위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또 아기업개와 아내, 어머니 등 여성이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이 있다. 특히 아기업개를 전쟁의 승부사로 등장시켜서 '아기업개 말도 들어라'라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하찮은 인물이 영웅이 될 수 있음을 항변하는 말이다. 안덕지역의 전설은 김통정을 무쇠옷을 입은 장수로 묘사함으로써 쇠와 관련된 화소가 많이 등장한다. 이는 불미마당이 15~16개소 있었던 제련산업이 발달한 이 지역의 특징과도 관련이 된다. 애월지역의 당신화의 특징은 중국의 삼장수에 의해 김통정이 징치되는 내용인데, 김통정이 제주의 물산을 탐내는 내용이 나오는 점으로 볼 때 당시 부역을 담당하던 계층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 지배기동안 김통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안덕지역은 한라산신의 아우인 광정당 3형제가 김통정을 징치하는 내용으로 외부 세력인 김통정을 토착 세력이 징치하는 내용으로 당시 탐라인들의 자주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산지역은 장수당의 샘플의 제공자로 설촌의 내력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원형에 가까워 가

치가 있다. 지명 유래담은 애월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구체적인 역사와 삼별초 군의 생활사가 드러나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덕 지역과 성산 지역은 설촌 유래를 통해 삼별초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애월과 성산은 12세기 김통정의 입도와 함께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고 안덕은 14세기 이후 마을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당과 마을 신앙민의 관계가 성립하는 당신화에서도 안덕의 신화가 가장 후대에 전승된 것이며, 신앙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본래의 형태와는 다르게 개작되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김통정은 관찬서 위주의 역사서에는 반적이자 역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마을 신앙민들을 의식해야 하는 당신화에서는 제주의 산물을 탐내어 능력이 있지만 패배하는 장수로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지배층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며, 개별 민중들의 다양한 전승이 이루어지는 전설이나 지명유래담에서는 보다 솔직하게 김통정의 영웅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다.

4장 설화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김통정 이야기는 실존 인물의 역사이자 민중영웅의 설화이면서 당신화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하였다. 민중영웅은 역사적 변화에 따라 성격 변화와 몰락의 과정을 겪는데 고대 건국신화의 집단적 영웅은 아니지만 역사적·진취적·주체적·투쟁적 영웅이라는 점에서 고려 중기적 영웅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김통정 이야기 등 유사계열의 아기장수설화의 발생 시기는 민중적 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13~14세기로 추정해볼 수 있다. 김통정 장군은 역사적 실존인물이었지만 고려시대 상황에서 민중들의 필요에 의해서 영웅화되고 신격화되어 재생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김통정을 민중 영웅으로 신격화한 것은 아기장수 전설처럼 민중들의 고난을 되새기고 엄혹한 시대에 희망적 미래를 갈구하는 의식이 설화에 반영되어 전승된 것이다.

지금까지 김통정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기술의 보완으로서 설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시적·통시적으로 전승 양상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또 역사적 사실을 통한 설화의 진정성을 발견하고 구술사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주의 고려시대 생활사를 재구성해보고 민중들의 미시사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자료>

-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 『제주설화집성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영돈, 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 9-3(남제주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9(제주도편)』, 평민사, 1992.
- 진성기,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1985.
- 제주도, 『제주문화원형 설화편1』, 제주연구원, 2017.
- 제주도, 『고성리지』, 북제주군애월읍고성리향토지편찬위원회, 1983.
- 제주도, 『성산읍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0.
- 제주도, 『애월읍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3.
- 제주도, 『안덕면지』,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2006.
- 제주도, 『제주도지 제7권-문화유산』,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 제주도, 『학교가 떠낸 우리고장이야기-제주시V 애월읍』,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4.
- 제주도, 『학교가 떠낸 우리고장이야기-서귀포시III 성산읍 표선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4.
- 제주도, 『학교가 떠낸 우리고장이야기-서귀포시V 안덕면·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4.

<단행본>

- 강문규,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각, 2006.
- 강진옥 외, 『설화』, 민속원, 2008.
- 국립제주박물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서경문화사, 2011.
- 고창훈 외, 『우리 땅의 의미를 찾는 제주기행』, 백산서당, 1991.
- 고광민, 『제주 생활사』, 한그루, 2016.
- 국립제주박물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서경문화사, 2011.

- 권태효,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 김경집, 『생각의 융합』, 더숲, 2015.
- 김경집, 『인문학은 밥이다』, 알에이치코리아, 2013.
- 김광웅 엮음,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생각의 나무, 2009.
-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 김연희, 안동준, 조규태, 『국어교육 지역화의 실천 방안』, 한국문화사, 2008.
-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 김영일, 『한국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사, 2005.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2000.
- 김일우 외,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 김일우 외, 『제주학과 만남』, 제주학연구자모임, 2010.
- 김태준·김승호, 『우리역사인물전승1』, 집문당, 1994.
-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1993.
-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들녘, 1996.
- 박용운 외, 『고려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2007.
-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1997.
- 배진섭, 『제주 신화와 교육연극』, 연극과 인간, 2015.
-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 변성구, 『제주 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연구소, 2007.
- 변숙자, 『제의적 커뮤니케이션과 신화교육』, 역락, 2016.
- 보리편집부,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보리, 1997.
-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1.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서찬석, 『삼별초 항쟁 가까이』, 어린른이, 2007.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출판, 1998.
- 안스가 뉘닝·로이 조머, 『문화이론과 문학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양영자, 『제주 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여원관계사연구팀, 『역주 원고려기사』, 선인, 2008.

유발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15.

윤용택 외, 『제주와 오키나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윤용혁,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해안, 2014.

에릭 홉스봄,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5.

이영권, 『제주 역사 다시보기』, 신서원, 2005.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이원진,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7, 몽골의 침략과 30년 항쟁』, 한길사, 1999.

임래옥 외,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임재해, 『민족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2002.

임재해 외,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집문당, 1989.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장영주, 『제주도 역사설화스토리텔링 애월읍』, 책과 나무, 2016.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조동일, 『한국 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조동일, 『인물 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조현설,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주강현, 『21세기 우리문화』, 한겨레신문사, 1999.

주강현, 『두레-농민의 역사』, 들녘, 2006.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문학사상, 2005.

제주학연구센터, 『신화의 보물섬, 제주 신화의 성격과 세계적 위상 - 2016 제주학대회』, 2016.

제주학연구센터, 『세계 섬, 해양 문화와 미래비전 - 2017 제주학대회』, 2017.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 민속원, 2003.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진성기, 『제주의 세시풍속』, 도서출판 디딤돌, 2010.
-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최광식 외, 『한국해양사자료집-고대~고려시대편』, 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 최운식,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민속원, 2002.
- 최운식 외, 『전설과 지역문화』, 의재 최운식박사 화갑 기념논총 『전설과 지역문화』간행위원회, 2002.
- 최운식 외, 『한국 민속학 개론』, 민속원, 1998.
- 최래옥 외,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 칼세이건,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 2004.
- 케이스 젠킨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해안, 1999.
- 한국민속학회 엮음, 『설화-한국민속학학술총서01』, 민속원, 2008.
- 한국역사민속학회 엮음, 『한국역사민속학강의1-역사속의 민속 민속속의 역사』, 민속원, 2008.
-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청년사, 2005.
- 한혜원, 『디지털 시대의 신인류 호모나렌스』, 살림, 2010.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허춘, 『제주 설화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현길언, 『제주 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현용준, 『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연구논문〉

- 강봉룡, 「한국 해양사의 전환: '해양의 시대'에서 '해금의 시대'로」, 『도서문화』20, 2004, 42쪽.
- 강소진, 「제주도 심방의 멩두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2012.
- 강재광, 「1950~1960년대 독재 권력의 삼별초항쟁 인식과 서술」, 『역사와 현실』, 2015.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2002.

강창화 외, 「제주 향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 『2017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역사문화학회, 2017.

고안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지역사 학습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0.

고창석, 「여·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제17집, 제주대학교, 1984.

고창석 외,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기본정비계획」, 제주북제주군, 2002.

권도경, 「송징 전설의 형성 과정과 계열 분화에 관한 연구-장도 당제 계열과 고려 삼별초 장군 계열에 나타난 송장군 전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0호』, 2007.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제8집, 구비문화회, 1999.

권태효, 「호국여산신설화의 신격 인식 양상 연구」, 『한국민속학』30, 민속학회, 1998.

김수엽, 「아기장수 이야기 연구」, 박사학위논문, 1994.

김수옥, 「아기장수설화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논문, 2007.

김연희, 「중학생의 표현력 신장을 위한 지역전설교육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2.

김영돈, 「삼별초항거순의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소, 1988.

김영희, 「아기장수설화의 전승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5.

김은정, 「제주도 전설의 교육 활용 방안-애월읍 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제주도 전설의 특성과 활용 방안』, 제주연구원, 2017.

박상규, 「향파두리 토성의 전설적 민요에 관하여」, 『한국민요학』1, 1991.

박재형, 「제주전래동화연구-제주설화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97.

박희순,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3.

서대석,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제1집, 백제문화개발연구소, 1985.

양성필 「理想社會論에서 본 孟子 荀子の 哲學」, 석사논문, 2006 .

윤용혁, 「고려삼별초의 제주항전」,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94.

오대혁, 「김통정관련 서사물에 투영된 역사인식」, 『동원논집』제10집, 동국대학교, 1997.

이남옥, 「김통정 설화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이정신,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 항쟁 연구」, 『민속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1991.

이혜화, 「아기장수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16집, 민속학회, 1983.

-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연구』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 임철호, 「구비설화에 나타난 민족의식과 민중의식」, 『논문집』제16집, 전주대학교, 1987.
- 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 연구』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제주도연구』제11집, 제주도연구회, 1994.
- 전영준, 「삼별초의 항과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47, 2015.
- 전영준,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고려선초 제주의 기와수공업」, 『역사와 실학』59, 2016.
- 전영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재현 양상」, 『역사와 교육』제14집, 2012.
-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10집, 동아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1971.
- 조성숙, 「한국 전래동화연구-설화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2008.
- 주강현, 「신화·제의·민중영웅의 제 관계-민중영웅 송징과 장보고 변증」, 『역사민속학』20, 2005.
- 진성기,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한국문화인류학』제1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5.
- 최종성, 「17세기에 의례화 된 송대장군」, 『역사민속학』44, 역사민속학회, 2014.

〈누리집〉

-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역사문화학회 www.hiscul.kr/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제주의 마을 <http://jejuvill.jeju.go.kr/jejutown/>
- 제주학아카이브 <http://www.koreanhistory.org/>
-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culture/myth/list.htm/>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역사연구회 <http://www.koreanhistory.org/>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 <http://cafe.daum.net/kphpi21/>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부록〉

〈부록 1〉 현용준, 『제주도 전설-34.김통정 장군』, 서문문고, 1996. 94~99쪽.
원문 전체 (강태언(애월면 고성리 남·64세) 1975.8.14.)

고려 때의 일이다.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허리가 점점 커갔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 채고, 남편도 없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수근거렸다. 과부는 사실을 털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문을 꼭꼭 잠그고 자노라면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잠을 자고 간다'는 말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다음 그 남자가 찾아왔을 때 실로 그 몸을 묶어 두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과부는 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이튿날 저녁에도 그 남자는 여전히 찾아들어서 잠을 잤다. 과부는 나가는 남자의 허리에 몰래 실을 묶어 놓았다. 날이 새어 보니 실은 창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 노뚝돌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과부가 노뚝돌을 들어 보니 큰 지렁이가 한 마리 있는데, 실이 그 지렁이 허리에 감겨져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이 지렁이가 밤에 와서 잠자리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과부는 지렁이를 보니 우선 징그러운 생각부터 들었다. 오늘 밤도 이 징그러운 지렁이가 다시 찾아오면 어찌하나 생각하고 지렁이를 죽여 버렸다.

그로부터 허리가 점점 커져서 과부는 옥동자를 하나 낳았다. 아이는 온몸에 비늘이 돋쳐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돋어나 있었다. 과부는 이런 사실을 일체 숨기고 고이 아기를 길렀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하여 '지렁이 진'자 성(姓)을 붙이고 '진통정'이라 불렀다. 이 아이가 바로 김통정인데, 성이 김씨로 된 것은 김씨 가문에서 '진'과 김(金)이 비슷하다 해서 자기네 김씨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김통정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렸다. 그래서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김통정은 삼별초가 궁지에 몰려 가자,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먼저 군항이로 상륙하였다. 군이 입항했다 해서 '군항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김통정은 군항이에서 군사상 적지를 찾아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항바들이를 발견하고 여기에 토성을 쌓았다. 흙으로 내외성을 두르고 안에 궁궐을 지어 스스로 '해상왕국'이라 한 것이다.

김통정 장군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되 돈이나 쌀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 닻되와 빗자루 하나씩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재와 빗자루를 비축해 두었다가 토성 위를 빙 돌아가며 재를 뿌렸다. 김통정은 외적이 수평선 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채찍을 놓고 성 위를 돌았다. 그러면 안개가 보양게 피어올라, 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곤 했었다.

어느 해 김방경 장군이 거느리는 고려군이 김통정을 잡으러 왔다.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연막을 올려 보았으나 김방경 장군도 도술이 능해 놓으니 전세는 위태로웠다. 김통정 장군은 사태가 위급해지자 황급히 사람들을 성으로 들여 놓고 성의 철문을 잠갔다. 이때 너무 급히 서두는 바람에 아기엽개 한 사람을 그만 들여 놓지 못하였다. 이것이 실수였다.

김방경 장군은 토성에까지 진격해 와서 입성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토성이 너무 높고 철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도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성 주위를 뱅뱅 돌고만 있었다. 이때 아기엽개가 장군의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보여서 물었다.

“어떠하면 장군님은 성만 뱅뱅 돌았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궁리하는 중이다.”

“원 장군님도……. 저 쇠문 아래 불미를 걸어 놓았 두 일뿔 열나흘만 부껴 봅서. 어떻 되느니?”

아기엽개 말에 무릎을 치고 김방경 장군은 곧 풀무를 걸어 놓아 불기 시작했다. 열나흘이 되어 가니 철문이 별절게 달아올라 녹아 무너졌다. 그래서 '아기엽개 말도 들으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성문을 무너뜨리고 김방경 장군의 군사가 몰려들자, 김통정 장군은 깔고 앉은 쇠방석을 바다 위로 내던졌다. 쇠방석은 물머루 위에 가 뒀다. 김통정 장군은 곧 날개를 벌려 쇠방석 위로 날아가 앉았다.

김방경 장군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시 아기엽개에게 묘책을 의논했다. 아기엽개는 장수 하나는 새로 변하고 또 한 장수는 모기로 변하면 잡을 수 있으리라

했다.

김방경 장군 군사들은 곧 새와 모기로 변해서 쇠방석 위의 김통정 장군을 따라갔다. 김통정 장군은 난데없이 새와 모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었다. 곧 쇠방석을 떠서 고성리 마을 서편에 있는 골그미라는 내로 날아왔다.

새로 모기로 변한 김방경 장군 군사들은 다시 뒤를 쫓아왔다. 새는 김통정 장군의 투구 위에 와 앉고, 모기는 얼굴 주위를 돌며 앵앵거렸다. 김통정 장군은 갑자기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

‘이 새는 나를 살리려는 새냐, 죽이려는 새냐?’

이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어 새를 보려 했다. 머리가 뒤쪽으로 젖혀지자 목의 비늘이 거슬리어 틈새가 생긴 것이다. 이 순간 모기로 변했던 장수가 칼을 빼어 김통정 장군의 목을 비늘 틈새로 내리쳤다. 떨어지는 모가지에 얼른 재를 뿌려 놓았다. 비늘이 온몸에 꼭 깔려 칼로 찢어도 들어가지 않던 김통정 장군의 모가지가 끝내는 떨어지고, 재를 뿌려 놓으니 두 번 다시 모가지가 붙지 못한 것이다.

이때 김통정 장군은 죽어 가면서 ‘내 백성일랑 물이나 먹고 살아라’하며 혀를 신은 발로 바위를 팡 찍었다. 바위에 혀 발자국이 움푹 패고 거기에서 금방 샘물이 솟아 흘렀다. 이 샘물이 지금도 있는데 ‘햇부리’ 또는 ‘햇자국물’이라 한다. 이 샘물을 고성리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음료수로 이용한다.

김통정 장군을 죽인 김방경 장군은 곧 토성 안으로 달려들어 김통정 장군의 처를 잡아냈다. 토성 안에는 약 3정보 가량 되는 평지가 있는데, 여기는 당시 물을 괴게 해서 김통정 장군이 뱃놀이하던 곳이었다. 이 물 위에 길마를 놓고 김통정 장군의 처를 끄집어다 그 위에 올려 앉혔다. 뱃속에 임신한 자식이 있는가를 물에 비쳐 알아보고 완전히 멸종시키기 위해서였다. 길마 위에 걸터 앉혀 보니 물에는 뱃 속의 아이 그림자가 어렸다. 죽여야 하는 것이다. 곧 밑으로 불을 붙여 태워 죽이니, 매 새끼 아홉 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한다. 날개가 돋친 김통정 장군의 자식이니 매 새끼로 임신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김통정 장군의 처를 죽이니, 그 피가 일대에 흘러내려 흙이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붉은 오름’이란 이름이 생겼고 지금도 여기는 흙이 붉은 것이다.

김통정 장군은 토성을 뛰어나갈 때 아기엽개의 말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 밖으로 뛰어나가며 안오름에 있는 아기엽개를 발견하고는 발길로 한 대 차고 날아갔다. 아기엽개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 피가 번져 지금도 안오름의 흙은 붉다.

〈부록 2〉 삼별초와 관계된 지명 유래담¹⁵¹⁾

① 대궐터(大闕터): 지금 항몽순의비(抗蒙殉義碑)가 있는 경내(境內)를 대궐터라고 불렀다. 이곳은 삼별초군의 본영으로 김통정을 비롯한 장군들이 살았던 대궐이 있었던 곳이다. 순의비 건립 이전만 해도 주춧돌이 남아 있었으며 기와가 밭에 산재해 있었다. 일제시대에 문화재가 될 만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주워갔다고 한다.

② 성내골: 향파두리 토성 안에 있는 고을, 대궐터 서쪽 사녀(士女)들이나 병사(兵士)의 막사가 있어 동네가 형성되어 이렇게 불려졌다. 지금은 밖의 길과 골짜기를 통칭하는데 지명이 와전되어 붙여진 듯하나 확실하지 않다.

③ 검성이왓: 성(城)동산 너머 성내로 들어서면 대궐터와 남수문으로 난 길이 갈려진다. 길이 갈린 곳에서 남쪽을 검성이왓이라 하는데 삼별초군이 검술을 훈련하는 연병장이었다. 「검술이왓」인데 속칭 「검성이왓」 또는 「검생이왓」이라 부르고 있다. 이 서쪽은 대궐터 바로 앞이다. 대궐터 앞쪽은 병사나 사녀(士女)들의 막사가 있었을 것이고 옆에 훈련장을 두어 심신을 단련하며 전시에 대비했을 것이다.

④ 성동산(城동산): 향파두리 북쪽 진입로에서 남쪽으로 뻗은 동산이다. 동산 위에 성이 있다 하여 성동산이라 한다. 이 성은 계곡과 능선을 이용하여 15리(6km)에 달하는 둥그런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위에 재를 깔아 두었다가 적군이 공격해 오면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아 위를 달리게 했다. 그러면 재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흩날려 여몽연합군은 사방을 분간할 수 없어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⑤ 거제비: 성동산 북쪽 입구 토성과 향파두리로 갈리는 길 서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길으로는 그저 편편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10여m 정도의 깊이) 골짜기이다. 여름에는 흘러나오는 샘물로 먹을 감고 떨어지는 물을 맞기도 하는 곳이다. 이곳은 삼별초군이 방어를 목적으로 골을 깊게 파고 위장을 해서 의 공격에 대비한 시설물인 듯하나 확실한 전설이나 기록이 없어 고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⑥ 구시물(溝水): ‘구시’란 나무나 돌로 수로를 파 만든 것을 말한다. 구시물은

151) 제주도, 『고성리지』, 1976. 122~150쪽.

동산 북쪽 기슭 샘물로 삼별초군의 식수원이었다. 이 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 밖인데도 또 성을 쌓아 나무로 구시를 만들어 깨끗이 관리하였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질 좋은 생수라서 콜레라가 돌 때도 고성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하니 구시물 덕분이 아닌가 한다.

⑦ 웅성물 (五生水): 지금의 극락사 경내에 있는 생수로 구시 물과 함께 삼별초군의 식수로 사용하였다. 웅성(甕城)은 무너지지 않는 성인데 생수가 솟아나는 지형을 보고 붙인 이름인 듯하다. 또 오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웅성물의 와음(訛音)이거나 아니면 거제비, 자귀남귀, 구시물, 웅성물, 장성물을 합하여 오생물이라 부르다가 다른 물은 독립적인 이름이 붙고 이 물만 오생이란 이름으로 남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오생물은 「성 밑으로 나는 다섯개의 샘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병사(兵士)나 사녀(士女)는 구시물을 먹고 이 물은 장군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전용(專用)했다고 한다.

⑧ 장수물(헛뿌리, 장수 발자국): 토성밑 서맹되 굴금이내 옆에 있는 석간수. 전설에 의하면 김통정 장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을 바다로 던지고 발을 여기 디며 탈출하였다고 한다. 움푹 패인 암석의 모양이 오른발 같으며 그곳의 엄지발가락 비슷한 위치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일명 「헛뿌리」라고도 하는데 「혜」는 옛날 장군이나 귀족이 신는 신발이었으니 「장수물」, 「장수 발자국」과 같은 뜻이다.

⑨ 종네미: 안오름 서쪽 기슭의 생수가 나고 내(川)가 시작되는 골짜기. 전해오는 말에는 종나무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나 근거가 없다. 또, 「종(終)」과 「남(南)」이 합해진 어원으로 해석해 보면 남쪽이 끝나는 곳(막아진 곳)이라 이런 이름이 붙은 듯도 하다. 안오름 기슭으로 남쪽이 가려져 안보이고 길은 여기서 끝난다. 윗밭이 장털(장태) 왓이라서 고소리코에 해당되는 목이라 이곳을 막아 호수를 만들었다 한다. 그래서 남쪽이 끝나는 종남이가 합리적이긴 하나 확실하진 않다.

⑩ 당커리: 검샘이왓 윗쪽에 당이 있어 그런 이름이 생긴 듯하다. 고성에는 김통정 신이 무서워 할망당이 없었다. 그래서 고성리 처녀들은 어디로 시집 가나 당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동리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주위에 당을 만들었다. 이 당커리도 금덕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리라 짐작된다.

⑪ 모그네왓 (모개 밭): 장털왓 서북쪽 밭인데 모개나무가 많아서 유래한 명칭이다. 모개나무는 학명으로 산당화인데 봄에 빨간꽃을 피운다. 이 꽃나무는 삼별초의 상징 - 즉 국화(國化)였다. 촌로들이 어렸을 때도 이곳에 지천으로 모개나무가 있었고 빨간꽃이 피어 아름다웠었다 한다. 이제는 다 없어지고 고성리 사람들의 정원수로 한두 그루 남아 있을 뿐이다.

⑫ 백토골: 안오름 남서쪽 기슭, 장털왓 북쪽 밭인데 이곳에 백토(白土)가 출토되어 백토골이라 한다. 삼별초군의 도자기 기술공들은 이곳에서 백토를 채취하여 장수물 동북쪽 기와로에서 백자를 구워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⑬ 안오름: 고성리 바로 남쪽 오름으로 토성 안에 있어 안오름(內岳)이라 하나 실제로는 능선으로 성이 관통하여 반은 성안이고 반은 성 밖이 되는 것이다. 안오름 정상에 서면 파군봉, 도두봉, 한림 비양도까지 조망할 수 있어 망대(望臺)가 있었던 곳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성이 함락될 때 김통정은 어머니를 종신당으로 보내고 아내는 장군의 칼에 쓰러진다. 살아서 적군의 노리개감이 되기보다 차라리 남편의 칼에 쓰러짐을 자청하였다. 그 피에 물들어 이 근처 흙은 붉은 황토가 되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안오름은 토성의 상징이며 붉은 마음으로 우뚝 서 고성리를 지켜갈 것이다.

⑭ 장털왓: 안오름 남쪽 기슭 움푹하게 틀어 간 8,000여평 남짓한 밭이 장털왓인데, 장태왓의 와음(訛音)이 아닌가 생각한다. 장태는 술을 발효시키는 고소리인데 그 모양에서 유추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또 장통밭의 와음(訛音)으로 봐도 의미는 같다. 옛날은 여기가 호수였다. 김통정 장군은 여기 호수를 만들어 배를 띄우고 망중한(忙中閑)을 즐긴 것이다. 지금은 종내미로 물코를 트고 물을 빼 버려서 농사 짓는 밭이 되었다. 속설에 의하면 여기 고소리의 물을 다 빼 버려 고성리에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촌로들은 전한다.

⑮ 옥터 (獄터): 옷작지소 바로 서쪽 성안에 움푹 패인 200여평 남짓한 이곳에 삼별초의 감옥이 있었다. 동쪽은 성밧이고 서쪽은 장털왓, 그러니까 그 당시 호수였으며 북쪽은 안오름이어서 완전히 분지였다. 여기는 군벌을 어긴 병사나 포로들을 가두었던 곳이다. 상소왓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녀(士女)나 일반인들은 억울한 일을 상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자연 지형물에 인공을 가해 튼튼한 감옥을 만들어 군기를 확립해 나갔다.

⑩ 옷작지소: 고성 남로 곁의 고성천에 있는 소. 안오름 동남쪽 망이리 동산 기슭이다. 여름에 떡을 감고 우마에게 물을 먹이곤 하던 곳이다. 작지(자갈, 작은 돌맹이)가 많아 작지소란 명칭이 생긴 듯하다. 조금 북쪽에는 암반에 물이 고인 곳이 있는데 그 모양에 따라 방애물, 접시물, 종지물, 사발물 등 매우 시적(詩的)으로 불리우고 있다.

⑪ 망이리 동산: 진동산의 능선은 강정캐까지 이어진다. 여기 망이리 동산은 진동산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옷작지소 바로 동쪽이다. 삼별초군의 망루가 있었던 곳이다. 여기 서면 시야가 타 트이고 해안에 떠있는 섬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망을 보기에 적당한 자리다.

⑫ 남수문(南守門): 향파두성은 사방에 각각 문이 있었는데 남수문은 남쪽으로 난 문이다. 향파두리 본영(本營)에서 약 1Km 남쪽에 위치한 이 문으로 서귀포 강정 나락을 군량미로 들여 왔고 극락봉 훈련장 출입문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였다.

⑬ 왜왓(瓦田): 향파두성 남쪽 일대로 생수가 고이는 논이 있었다. 여기서 찰흙이 출토되어 기와를 제작하였다. 기와를 만들어 운반하여 기와굴에서 구웠는지 여기 왜왓 근처에서 구웠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왜왓은 고성리 부락민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옛날 여기 고성리 1개반을 두었다가 4·3사건 후 고성리 본동에 정착하여 왜왓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한다.

⑭ 대문목(大文목이): 옷작지소로 길을 따라 가면 약 100m 쯤에 위치한 곳에 향파두성의 동쪽문이 있었다. 네 개의 문 중에서 가장 큰 문이라 해서 대문이라 했고 지금은 그 일대의 지명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 문을 지나 고성 동쪽을 끼고 돌면 술장(率將)이곳으로, 그 길은 계속 하여 회군도로를 지나 오솔길을 따라 파군봉으로 이어지고 그 앞이 바로 군항(軍港)이다. 이제는 성의 자취가 약간 남아 있을 뿐 문의 규모나 형태는 찾을 길 없다.

⑮ 기와굴(窯地): 장수물에서 동북쪽으로 약 300여m 지점, 굴렁에 기와를 굽는 굴이 있어 이곳을 기와굴이라 하였다. 진흙을 왜왓에서 채취하여 기와를 만들어 여기까지 운반해서 구웠을 것이다. 여기서 주운 기와의 파편을 보면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지금의 기술 공정으로는 추종불허라 생각된다. 여기서 기와뿐만 아니라 자기도 구웠으리라 짐작된다.

㉒ 종신당(終身堂): 성이 함락되었을 때 김통정 장군의 어머니를 이곳 종신당으로 모셨고 김통정은 다른 장수들과 부하 70여명을 거느리고 붉은오름까지 물러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병사들이 전사하자 그 자신도 자결했다. 사녀(士女)와 함께 여기 온 김통정 장군의 어머니는 “내가 여기 들어가 불빛이 보이지 않는 날에는 입구를 막아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레 동안 「눈비아기쿨」로 불을 밝히다 불이 꺼지니 그 입구를 막아 버렸다. 그래서 그곳이 무덤이 되었다. 전에는 여기서 생활용구들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평평한 밭일 뿐 그런 흔적은 찾을 길이 없다.

㉓ 살 맞은 돌: 극락봉 북쪽에 있는 자연 입석인데 여기 화살이 박혀 있어 「살 맞은 돌」이라 한다. 삼별초군이 무술을 익히던 곳이다. 이 입석을 과녁으로 하여 활을 쏘았다. 쏘고 또 쏘고……. 과녁은 깊게 패였을 것이다. 1950년대만 해도 이 과녁에 살촉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누군가가 빼어가 버려 과녁만 남아 비바람에 마멸되고 있다. 극락봉은 병사들의 훈련코스이며 망대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제 절은 고성리 서쪽 서병덕 토성밑 분지로 옮겨졌고, 극락 봉과 「살 맞은 돌」만 남아 옛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㉔ 진군ㄹ: 동쪽 능선으로 삼별초군 최후의 진지(陣地)였다. 파군봉 전투에서 방위선이 무너지자 삼별초군은 회군도로를 통과, 여기에 최후의 저지선을 치고 완강히 저항한다. 그러나 중과부적(衆寡不敵), 성은 함락되고 삼별초군은 패하고 만다.

㉕ 술쟁이 곳 (率將이 곳): 동쪽 하천과 그 옆의 길을 통칭(統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군사를 인솔한 곳이라 하여 「술장이 곳」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내(川)로 변해 버렸다. 대문목을 출발한 삼별초군은 이 술장이 곳을 통과회군도로의 오솔길을 따라 파군봉과 군냉이를 왕래하였다.

㉖ 호군ㄹ (回軍道路): 호군ㄹ는 회군도로의 와음(訛音)으로 본다. 삼별초군이 회군한 도로라는 뜻이다. 군냉이(軍港洞, 軍港浦)는 삼별초군이 상륙한 항구로 여몽연합군이 공격하였던 곳이기도 하며 파군봉은 삼별초군이 잠복하여 적을 맞았던 곳이고 그 앞 너른 벌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였다. 삼별초군이 파군봉에 잠복했다가 보로미 길을 따라 이쪽 오솔길로 회군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㉗ 상소왓(上所왓): 던덕마을 남서쪽 너른밭을 「상소왓」이라 하는데 억울한 일을 상소하는 송사(訟事)를 하던 곳이 아닌가 한다. 안오름 남쪽 호수가에 옥(獄)터가 있음을 생각할 때 상소왓은 삼별초와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 한편 향수왓이라고도 하는데 와음(訛音)인지 아니면 향수(鄉首: 고을에서 지체가 높은 분)가 살았던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다.

㉘ 던덕마을: 「덩덩」마을의 와음(訛音)일 가능성이 있다. 고성리 북쪽 능선을 말하는데 삼별초군이 여기 잠복했다가 적이 나타나면 「덩덩」 북을 쳐 알렸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요즈음 경계·공습경보·사이렌 등과 같이 비상임을 알리던 북소리에서 붙여진 이름이라하나 확실치는 않다.

㉙ 장군이왓(將軍이왓): 던덕마을 서북쪽 움푹 패인 밭들을 통칭하는 곳으로 장군의 지휘소가 있었거나 삼별초군의 야영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던덕마을의 「덩덩」 북을 쳤던 마을이라든지, 이 윗쪽 너른 밭을 상소왓이라 부르고 몇 년 전 이 부근에서 장군들이 사용했음직한 돌로 된 물병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삼별초군과 관련이 있는 지명인 것을 알 수 있다.

㉚ 선돌왓: 진군마을 너머 동쪽 길옆에 선돌이 있어 이 근처를 선돌왓이라 한다. 이 선돌은 부락을 지켜 준다고 믿어 신성시하였다. 김통정 장군의 아내가 아기를 밴 채 남편의 칼에 쓰러져 그녀의 혼이 이 돌에 영키어 돌이 아이를 배었다하여 일명 「아기 밴 돌」이라고도 한다.

㉛ 알작지소: 고성천 하류, 마을 북쪽에 있는 소로 옷작지소와 대조적으로 붙여진 이름이고 용도도 같다. 그런데 알작지소는 큰 암석에 발자국 모양, 의자 모양, 미끄럼대 모양이 있어 김통정 장군이 여기에서 떡을 감고 젖은 몸을 말리곤 했다는 전설이 있다.

㉜ 파군봉(破軍峯): 군녕이 바로 남쪽 해발 90m의 오름으로 군토(軍土)가 파(破)한 봉이란 뜻에서 「파군봉」이다. 삼별초군이 여기 잠복했다가 적을 맞아 북쪽 너른 벌판에서 격전을 벌렸다. 그러다 보름이길로 물러나 호근드르를 돌아 솔쟁이곳 너머 진군마을에 진지를 구축, 완강하게 버텼다. 속설에 파군봉은 여인이 너울을 쓰고 우는 형체라서 묘자리가 파군봉에 드러나면 과부가 많이 난다는 등 불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만큼 한이 서린 격전지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 아닌가 한다.

㉓ 군녕이(軍港洞, 軍港浦): 파군봉 바로 북쪽 항구다. 삼별초군이 대단히 중요한 군항으로 이용하였다. 여몽연합군도 이곳으로 상륙하여 향파두리를 기습 공격하였다. 지금은 길 북쪽 바닷가 조그마한 어항(漁港)에 지나지 않으나 옛날엔 삼엄한 경계와 숨가쁜 도전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㉔ 진수못(金須못): 향파두리성 남쪽으로 6Km 지점, 산심봉 동북쪽에 있는 못이다. 전라영광부사 김수(金須)의 본영(本營)이 있던 곳인데 속칭 진수못이라 한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제주의 혈맥인 이곳에 작전지휘소를 두었는데 삼별초가 김수를 정벌하고 여기다 못을 파버려 호수처럼 물이 고였다. 지금은 고성 공동목장에 방목 중인 우마(牛馬)들이 먹는 물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못이 되었다. 그러니까 삼별초가 아직 진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김수와 고여림 장군에게 군사 1,200여명을 주어 삼별초의 제주 상륙을 저지하도록 명하였다. 이들은 1270년 9월에 제주에 들어와서 바닷가 300여리에 「환해장성」을 쌓고 삼별초와 맞서 싸웠으나 패하여 김수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현재 산심봉 기슭(진수못 곁)에 김수 장군의 묘가 남아있다.

㉕ 산시미 오름(山心峯, 三心峯): 진수못 서남쪽에 자리잡은 해발 650m의 산인데 산의 모양이 마음 심(心)과 비슷하여 삼심봉 또는 산심봉이라 한다. 이 산 전체가 고성리 공동목장이며 고성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디를 가나 산심봉을 찾고 쳐다보며 향수를 달랜다. 이 봉은 고성리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부록 3〉 향파두리성 밖 향몽 관련 유적지¹⁵²⁾

가. 물유적

① 오성물: 향파두리토성 북쪽, 극락사라는 절 뒤편에 있는 물을 말하나, 인위적으로 향파두리토성과 관련시켜 오성물(甕城-)이라 잘못 알려졌다고 보인다.

② 구시물, 구시물동산: 향파두리토성 북동쪽 앞, 오성물, 동쪽 길가에 있는 샘물을 이름, 삼별초군이 향파두리토성을 축조할 때부터 식수 등의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의 보호를 위해 반원형의 보조성(補助城)도 쌓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구시물’이 들어선 동산을 ‘구시물동산’이라 일컫는다.

③ 햇부리, 햇부릿물, 장수물, 장수발자국: 향파두리토성 북서쪽 ‘골그미내’ 가에 있는 샘물을 이름, 최근에는 ‘장수물’로 더 알려졌고, ‘장수발자국’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김통정 장군이 관군에 쫓기다가 성을 뛰어넘었는데, 이때 팬 발자국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햇부리’, 또는 ‘햇부릿물’이라는 이름이 ‘장수물’보다 더 고유한 이름임을 상기하면, ‘장수물’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전설화된 것으로 보인다.

④ 우수암천: 북제주군 애월읍 중산간 마을 우수암리에 있으며, 태산(泰山)이라 일컫는 구릉의 암반 틈에서 솟아나 북쪽을 향해서 흐르는 물을 이름. 이 물은 삼별초군이 제주에 들어 올 때 함께 왔었던 승려들이 태산사(泰山寺)라는 사찰을 창건하면서 생활용수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특히, 우수암천 밑에는 물이 흘러가 고이게 된 타원형 물통이 있고, 여기에는 향파두리 토성 외곽 군사들이 흐르는 물을 받아서 말과 소에게 먹이기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이야기되는 길이 4m 정도의 돌구시가 놓여져 있다.

나. 망대(望臺)와 진지(陣地) 유적

① 극랑봉 진지: 향파두리토성 남쪽 지역 해발 314m의 오름 정상을 말함. 삼별초군이 널찍하고 편평한 극랑봉 정상을 무술 연마장과 망대로 이용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② 바굼지오름, 파군봉(破軍峯):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지역 해발 85m의

152) 김일우 외(2006),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회관.

오름을 말함. 파군봉은 삼별초군이 물자 반입의 포구로 자주 이용했다고 보이는 군항모와 향파두리토성 사이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파군봉은 삼별초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었고, 이름도 여몽연합군이 삼별초군을 크게 격파한 데서 붙여졌다고 민간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다.

③ 진군마틀: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마을 주거 밀집 동쪽 지역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나지막한 구릉 지역을 말하고, 삼별초군들이 진을 쳤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④ 망이리동산: 향파두리토성의 서쪽과 고성천 사이에 자리 잡아 북쪽의 넓은 지대를 관찰하기 용이한 곳으로 삼별초군이 망대를 설치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⑤ 붉은오름: 한라산 서쪽 해발 1.061m의 오름 여몽연합군이 향파두리성을 포위하여 총공세를 가하자, 삼별초의 김통정 장군은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성을 탈출하여 최후의 항전을 펼치다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

⑥ 살맞은돌: 향파두리토성 남쪽, '극락오름' 앞쪽에 있는 돌을 이름, 일찍부터 '살맞은 돌'이라고 불려왔는데, '살'은 '화살', '맞은'은 '맞다'의 관형사형, '돌'은 '돌(石)'을 뜻한다. 곧 말 그대로 '살 맞은 돌'이다. 삼별초군이 무술을 익히던 돌로, 화살이 박혔던 것과 같은 자국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삼별초군이 쏘았던 화살이 194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박혀 있었던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⑦ 삼심봉: 향파두리성 남쪽 약 4km 지점 해발 650m의 오름, 원종 11년(1270) 고려 개경 정부(開京政府)는 김수(金修)와 고여림(高汝霖) 장군을 제주에 보내 방어케 함으로써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때 김수 장군은 제주시·북제주군 애월읍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고, 한라산은 물론, 추자도까지 관찰이 용이한 삼심봉 정상에 고려군 진지를 구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⑧ 동제원(東濟院) 진지: 삼별초가 진도(珍島)에 정부를 세워 대몽항쟁(對蒙抗爭)을 전개하던 원종 11년(1270) 10월 말경 제주에 들어온 이문경(李文京) 부대의 삼별초군이 진을 쳤던 곳, 동제원은 현재 제주시 화북동 오현고등학교 앞거리 지역을 말한다. 이문경 지휘하의 삼별초군이 제주에 들어오기 한 달 여 전부터, 고려 개경정부는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코자, 김수와 고여림

장군을 제주에 파견했다. 이들 관군이 제주시 화북동 해안지대를 방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문경 부대의 삼별초군은 명월포를 통해 상륙한 뒤, 화북동 지역의 관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동제원에 진을 쳤다.

다. 포구 유적

① 군항포(軍港浦): 삼별초 대몽항쟁의 거점이 되었던 향파두리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은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해안지역의 포구. 김통정 장군이 거느린 삼별초가 제주로 들어올 때 이용한 포구였고, 이후에도 삼별초군이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계속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② 조천포(朝天浦): 김통정 장군 군항포의 삼별초보다 먼저 제주에 왔었던 삼별초군이 거점으로 삼았던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포구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삼아 대몽항쟁을 전개할 때 제주를 장악하기 위해 별장(別將) 이문경을 보냈고, 이문경은 제주시 화북동 일대에서 송담천(松淡川: 현재의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을 경계짓는 내) 전투를 벌여 제주를 지키고 있던 관군을 물리친 다음, 조천포에 웅거하였다고 한다. 포구 동쪽 해안일대에는 제주 방어 관군이 쌓기 시작했고, 이어 제주 삼별초가 쌓았으며,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왜구의 침략 등을 방비키 위하여 계속 수축, 보완, 길이 연장 등이 이루어졌다는 환해장성이 남아 있다.

③ 함덕포(咸德浦): 원종 14년(1273) 제주 삼별초를 정벌하러 출동한 여몽연합군의 중군(中軍)이 상륙하여 삼별초군을 무찔렀던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포구, 여몽연합군의 지휘자 김방경과 혼도는 중군을 함덕포, 본대를 명월포로 상륙시켜 삼별초를 압박해 들어가는 양동작전을 펼쳤다. 함덕포 상륙의 여몽연합군은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삼별초군을 제압했고, 함덕포 전투에서 패배한 삼별초군은 향파두리성으로 퇴각하면서 마지막 항전을 준비하게 된다. 포구 서쪽 해안 일대에는 제주 방어에 나섰던 개경정부의 관군이 쌓기 시작했다는 환해장성이 남아 있다. 또 함덕 해수욕장 중심지쪽 해안일대에는 여몽연합군과 삼별초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석이 세워져 있다.

④ 조공포(朝貢浦): '도근포' 혹은 '외도포'라고도 일컬어지는 제주시 외도동 해

안지대의 포구, 삼별초군이 물자운반용 포구로서 이용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삼별초군이 이곳 포구로부터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3리를 거쳐 향파두리성까지 이어지는 운반로를 닦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길은 현재도 지역 주민들의 농로로 이용되곤 한다.

⑤ 애월포(涯月浦):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해안지대에 위치하며, 삼별초군의 군사작전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포구, 이곳 근처에 삼별초가 애월목성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포구 서쪽 해안지대에는 환해장성이 남아 있다. 이곳의 환해장성은 다른 지역의 것보다 규모가 크고 높게 남아 있는 편이다.

⑥ 명월포(明月浦): 김통정 장군이 이끈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올 때 이용했고, 삼별초를 정벌하기 위해 출동한 여몽연합군의 본대가 상륙했던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해안지대의 포구, 삼별초 군의 물자운반과 군사작전에도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포구였다고 본다. 원종 14년(1273) 여몽연합군의 지휘자 김방경과 혼도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포구를 통해 중군을 상륙시키는 한편, 본대는 명월포로 신속히 상륙시켜 삼별초를 압박해 들어가는 양동작전을 펼쳤다. 삼별초군은 함덕포 전투에서 패배하고, 명월포에서도 여몽연합군의 상륙을 저지시키지 못한 채 향파두리성으로 퇴각하면서 마지막 항전을 준비하게 된다.

라. 기타 항몽 관련 유적

① 진수못: 삼심봉 동쪽에 자리잡은 봉천수, 크기가 대략 50cm 가량되며,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이름은 원종 11년(1270) 고려 개경정부가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주에 파견한 김수 장군이 이용하였던 물이라는 것에 연유하여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② 고려충신김수장군유적비(高麗忠臣金修將軍遺跡碑): 원종 11년(1270) 고려 개경정부가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코자 고여림 장군과 더불어 제주에 파견했던 김수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김수 장군은 삼심봉에 진지를 구축한 다음, 동쪽으로 나아가 제주시 화북동 일대 해안지역을 방비하고 있었다. 이때 이문경 부대의 삼별초군이 명월포를 통해 제주에 상륙한 후, 동쪽으로 나아가 현재 제주시 화북동 오현고등학교 앞 거리에 위치한 동제원 지역에 진을 쳤다. 이어 김수 장군의 관군과 이문경 부대의 삼별초군이 제주시 화북동 송담천

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김수 장군을 비롯한 제주 방어의 관군이 모두 전사하였다.

③ 김수장군추정묘: 삼심봉 북동쪽 기슭에 자리잡은 방묘 형태의 무덤. 이 무덤은 원종 11년(1270) 고려 개경정부가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코자, 제주에 보냈고, 제주 점령을 시도하는 이문경 부대의 삼별초군과 제주시 화북동 송담 천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김수 장군의 묘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무덤 양식은 고려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쓰여졌던 방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김수 장 고려충신김수장군유적비 군의 묘인지는 좀 더 조사·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다.

④ 송담천(松淡川) 전적지: 원종 11년(1270) 이문경 부대의 삼별초군이 제주를 방비하던 고려 개경정부의 관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둔 곳. 송담천은 현재의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을 경계짓는 내를 말한다. 원종 11년(1270) 고려 개경정부는 진도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코자, 김수와 고여림 장군이 거느린 군대를 제주에 보내 방비케 하였다. 이들 관군은 삼심봉에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제주시 화북동 일대 해안지역을 방비하는 시설도 설치하였다. 이때 삼별초의 진도정부는 이문경 부대를 보내 제주 점령을 시도하였다. 이문경 부대의 삼별초군은 명월포를 통해 제주에 상륙한 뒤, 제주시 화북동 해안지대를 방비하던 개경정부의 관군을 공격 목표로 삼아 현재의 제주시 화북동 오현고등학교 앞거리 동제원 일대로 나아갔다. 이어 개경정부의 관군과 이문경 부대 삼별초군 간의 송담천 전투가 벌어졌다. 여기에서 김수와 고여림 장군을 비롯한 제주 방어의 관군이 모두 전사하였다. 이로써 삼별초가 제주를 장악하고, 진도 함락 이후에는 제주를 마지막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송담천 전투는 삼별초군의 희생도 많았고, 피가 강처럼 흘러 송담천의 바위들은 피에 젖어 지금도 붉다는 구전이 전해질 정도로 치열했다.

⑤ 환해장성(環海長城): 제주 해안을 전체적으로 둘러친 3백리 장성(長城), 이 성은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삼아 대몽항쟁을 전개할 때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저지코자 원종 11년(1270) 고려의 개경정부가 제주로 보내 방어책을 펼치게 했던 김수와 고여림 장군 등의 관군이 쌓기 시작하였다. 이어 관군을 물리쳐 제주를 장악한 삼별초가 개경 정부군과 몽골군 공격에 대비해 환해장성을 계

속 쌓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왜구(倭寇) 등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수축, 보완, 길이 연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환해장성이 제주시 화북동, 삼양동,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조천읍 북촌리, 신촌리, 신흥리, 함덕리, 구좌읍 김녕리, 행원리 등 지역의 바닷가에 남아 있다. 또한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대정읍 일과리, 영락리, 서귀포시 보목동, 예래동 등 지역의 바닷가에서도 환해장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환해장성은 자연석을 적당한 크기로 분류하여 쌓아놓았던 것 같다. 잔존 대략 2m 안팎이나, 화북동의 경우는 2.8m, 함덕리는 최고 4m의 경우도 있다. 형태 경사지고 성 안은 높은 것, 또는 성 밖은 경사지고 성안은 평탄한 것 등의 다양한 여러가지 모양을 띠고 있음이 확인된다.

⑥ 종신당터: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주택 밀집지역에서 약300m 가량 떨어져 자리잡고 있으며, 속칭 '종신당', 혹은 '태암감실(泰岩龕室)'이라 일컬어지는 곳, 여기에는 항파두리성에 대한 여몽연합군의 총공격이 있기 전, 제주 삼별초의 우두머리 김통정 장군이 자신의 어머니를 피신시켰던 곳이며, 김통정 장군의 어머니는 굴을 파 숨어살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밤에 불빛이 안보이거든 입구를 막아달라 당부했고, 마을 사람들은 굴에서 불빛이 안보이게 되는 날이 오자 입구를 막았다는 구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⑦ 태산사(泰山寺) 절터: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마을 중심부의 밋밋한 봉우리 지역으로 속칭 '절동산'이라 일컫는 곳의 북쪽. 여기에는 삼별초군과 함께 제주에 들어온 승려들이 창건한 태산사라는 절이 세워져 있었다는 구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